

제14호
계명 참길
2026. 2

참길은 참스승의 길을 뜻합니다.



1899 A 2012



학과장 인사말 - 박선우 교수 · 1

학생회장 인사말 - 김지원('21) · 3

1. 2025년 되돌아보기

1) 함께하는 행사 / 편집부 · 7

2) 국어교육과 소셜 미디어 활동 결산

/ 김태훈 · 박서연 · 최지윤('25) · 20

2. 학술연구반 활동

1) 학술연구반 소개

- 의사소통교육연구반 / 김주혁('22) · 27
- 고전문학교육연구반 / 김가림('24) · 29
- 한국어데이터분석연구반 / 이다현('24) · 31
- 현대문학교육연구반 / 오가연('24) · 33

2) 학습동아리 활동

- K-Circle <의사소통교육연구반> / 정우진('25) · 35
- K-Circle <고전문학교육연구반> / 김수민('24) · 38
- K-Circle <KLE KoNLP> / 안재은('23) · 41
- 독서토론클럽 <꽃구름> / 이정연('25) · 44
- 토론동아리 <말모이> / 남하연('24) · 47
- K-Circle <전공튜터링> / 안재은('23) · 50

3. 학술세미나 보고서

- 1) **의사소통교육연구반**
청소년 문학을 대상으로 한 독서 토론 수업 연구
/ 김주혁('22) 외 · 55
- 2) **고전문학교육연구반**
허균의 생애와 한문진 작품 연구 / 김수민('24) 외 · 76
- 3) **한국어데이터연구반**
R코딩 텍스트마이닝과 생성형 AI 텍스트마이닝의 결과에 대한 비교
- 연구논문 초록 텍스트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 이다현('24) 외 · 95
- 4) **현대문학교육연구반**
생태소설을 활용한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오가연('24) 외 · 127

4. 학술제, 학술기행

- 1) **제13회 돌을별 학술제 소감문**
한 해의 결실을 담은 학술제 / 김민경('23) · 153
- 2) **1학년 골든벨 대회 수상 소감문**
골든벨, 국어교육의 열정을 올리다 / 정민지('24) · 157
- 3) **사범대학 AI 에듀테크 수업설계대회**
AI와 함께하는 문학수업을 고민하며 / 안재은('23) · 160
- 4) **춘계학술세미나**
국어교육과가 가까워지는 시간 / 김태훈('25) · 163
- 5) **추계학술답사**
국어교육과로서 함께 느낀 순간들 / 최지윤('25) · 165

5. 공모전 활동

1) 계명토론대회

토론 앞에서의 첫걸음 - 계명토론대회 참가 소감문 -

/ 김진성('22) · 169

2) AI 에듀테크 창의융합 수업설계 경연대회 최우수상

뤼튼을 활용한 시 창작 수업

- 사범대학 AI·에듀테크 창의융합 수업설계 경연대회 최우수상 -

/ 권현서·안재은('23) · 172

3) 교내대회 수상작

- 함께 버티는 마음의 온도

- '책에 미친 비사야' 최우수상 / 김슬기('22) · 188

- 조급함의 뿌리를 찾아서 : 느린 발걸음이 열어준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의 세계 - '책에 미친 비사야' 우수상 / 이호연('22) · 191

4) 교외대회 수상 소감

대학생 우리말글 논문발표대회 소감문 / 김도이('24) · 194

6. 자유발언대

1) 학생회 활동 결산

학생회 [열:음], 2025학년도의 기록 / 장윤아('23) · 199

2) 신임 학생회장 인사말

2026년을 비추는 국어교육과의 돋을별 / 김희원('22) · 203

3) 교수 칼럼

습관은 힘이 세다 / 이영호 교수 · 205

4) **학교현장실습 후기**

-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다렸던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
/ 이호연('22) · 207
- 칠판 앞에 서서 배우고 느낀 것들 / 김민준('22) · 213

5) **교외 프로그램 참가 후기**

- AI와 공존하는 미래교실
- AIEDAP 현직교사 멘토링 참가 후기 / 권현서('23) · 215
- 방학을 채운 3박 4일
- 2025 예비 교원 기후환경교육 연수 참여 후기 / 박소연('24) · 218

6) **국외봉사 후기**

- 꼭 해 봐야 하는 경험 / 김수민('24) · 220
- 언어의 벽 너머에서 시작된 배움 / 김가림('24) · 223
- 낯선 환경에서 마주한 가르침의 떨림 / 도원경('25) · 226

7) **계명전공글로벌체험학습 후기**

세계 속에서 배우는 교육의 가치 / 권현서('23) · 229

8) **교육·문화 견학 프로그램 후기**

국어과 교사로 가는 길 / 이병근('21) · 233

9) **중등임용시험 합격 후기**

- ‘나’를 믿고 묵묵히 걸어간 시간 / 오형은('14) · 237
- 포기하지 않으면 ‘운’이 나의 것이 되는 날도 있다
/ 안시현('18) · 245

10) **편집 후기**

우리의 2025년을 기록하며 / 편집부 · 252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해적이 · 253

졸업생, 입학생, 편집위원 명단 · 256

도전과 성장의 2025년을 되돌아보며

국어교육과 학과장 박선우

2025년은 인공지능이 교육 현장의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되었음을 실감한 한 해였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교실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고, 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사회적 기대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대에 중등학교의 국어과 교사를 양성하는 우리 학과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지, 지난 1년은 그 물음과 끊임없이 마주한 시간이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학과의 다양한 사업과 행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학과의 모든 구성원들께 학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학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사업으로서 학과지 편찬을 준비하면서 ‘춘계학술세미나, 추계학술답사, 돈을별 학술제’ 등을 포함하여 1년 동안 진행했던 학과의 행사들을 무사히 마치게 된 점에 대하여 학과 구성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학과 학생회를 이끌어준 김지원 학생회장과 장운아 부회장, 김민경, 이유진, 안재은 부장 등 국어교육과 학생회의 모든 임원 여러분께 학과 교수진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직 업무와 연구, 강의로 바쁘신 와중에서도 학과의 크고 작은 행사와 업무들을 챙겨 주신 이영호, 윤호경, 울리아나 코바

코바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요즘은 누구나 대학을 둘러싼 대내외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어떠한 학과든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계명대학교의 사범대학과 국어교육과는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부 교원양성교육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운영하면서 교육계와 대학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지난해에 진행되었던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어교육과의 모든 구성원들은 지난 25학년도에도 부지런히 활동했습니다. 전공 수업과 전공동아리, 토론대회, 국내외 봉사활동, 교내외 공모전, 국어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었고, 열매를 거두기 전까지 국어교육과의 온 구성원들이 땀 흘려 노력했던 흔적들을 '참길 14호'에 담았습니다. 참길 14호를 제작하면서 기획부터 편집까지 모든 과정에서 수고해 준 안재은 홍보부장과 원고의 수집과 편집을 맡은 김수민, 김태훈, 박서연, 최지윤 편집위원 그리고 원고를 제출해 준 모든 필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2 학과장 인사말

최선을 다해, 최고를 향해

김지원('21)

안녕하십니까, 제14대 국어교육과 학회장 김지원입니다. 우선, 국어교육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교수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어교육과의 한 해를 위해 뒤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학생회 임원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어교육과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2025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학회장 준비를 시작하며, 학과 내 행사와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깊이 고민했고,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해 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누구든 말할 수 있는 학회장이 아닌,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국어교육과 역대 최고의 학회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4개의 부서를 3개로 통합하고, 부학회장직을 도입하며 '홍보부'라는 새로운 부서를 출범시키는 등 여러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2025년, 제14대 학생회는 학우분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했고,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앞으로 이어질 15대, 16대 학생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협력과 소통의 가치는 앞으로 학과와 학생회의 모든 활동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진행된 행사와 업무를 통해 당장의 큰 성과를 모두 이루었다고 말하기

는 어렵지만, 그 경험과 깨달음은 저와 학생회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아쉬웠던 점들은 제15대 김희원 학회장과 충분히 공유하며 학과 발전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통해 이후 학과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발전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 또한 당연히 그럴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도 이전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격려와 따뜻한 관심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행사에 참여하며 선후배들과의 접촉을 늘리어 학업과 진로 및 취미에 대해 공유해보며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선배들은 후배들을 배려하고 후배들은 선배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건강한 선·후배 문화 또한 국어교육과 내에 확실히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은 제계 학회장으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책임감과 리더십을 깊이 체감한 한 해였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며 지지해 주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으며 학우 여러분께서도 대학교 생활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그룹 스터디 등을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시면서 그를 통해 본인이 세운 목표를 불철주야 노력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의 나를 본보기 삼아, 2026년 병오년에는 붉은 말처럼 힘차게 도전과 성취를 향해 달려가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새로운 목표와 꿈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서로를 북돋는 마음이 2026년을 더욱 의미 있게 할 것입니다. 모든 학우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는 순간을 만들고, 학과와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불어, 새해에는 새로운 시작과 가능성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용기와 열정으로 마음껏 달려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학우 여러분 각자의 길 위에서 빛나는 성취와 따뜻한 우정을 함께 쌓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4 학생회장 인사말



**2025년
되돌아보기**

2025년 되돌아보기

함께하는 행사

○ 2024학년도 전기 국어교육과 학위수여식 (2025.02.18.)



2024학년도 전기 사범대학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어 또 하나의 배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다. 졸업생들은 학사모를 쓴 채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였고,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졸업생들은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 1학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25.02.25.)

2025학년도 국어교육과 신입생들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국어교육과 학생’의 첫걸음을 걸었다. 어색함 속에서 시작된 만남은 간단한 활동과 대화를 거치며 점차 웃음으로 바뀌었다. 선배들의 설명과 교수님들의 조언을 들으며 신입생들은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 1학기 개강총회 (2025.03.13.)



새 학기의 출발을 알리는 국어교육과 개강총회가 있었다. 개강총회에서는 학과 운영 방향과 학기 중 진행될 활동들이 공유되었고, 재학생과 신입생이 함께 어울리며 학과의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이번 총회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서 한 학기를 함께 만들어 갈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1학년 단체사진 촬영
(2025.03.26.)



봄기운이 완연한 캠퍼스에서 국어교육과 1학년의 첫 단체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훗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찍은 사진은 낯설었던 시작의 순간을 담아내며, 앞으로 이어질 대학 생활의 출발점이 되었다.



○ 춘계학술세미나 (2025.03.28.~2025.03.29)

2025년 3월 28일, 29일 이틀간 국어교육과 춘계학술세미나를 다녀왔다.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호미곶 해맞이 광장, 상생의 손 등을 견학했다. 바비큐 파티, 교수님과의 간담회, 레크리에이션, 요리대회 등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포항에서의 시간은 참여한 국어교육과 모두의 추억이 될 것이다.

○ 학교현장 실습 환송회 (2025.04.30.)



교생실습을 앞둔 4학년 선배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학교현장실습 환송회를 진행했다. 학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환송회에서는 후배들이 준비한 응원 영상을 시청한 후 4학년 학년대표의 답사와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사 등이 이어졌다. 후배들은 선배님들의 도전을 함께 응원했다.

○ 현장교사 특강 (I) (2025.06.04.)



13학번 졸업생이신 합천 초계고등학교 강지연 선생님께서 ‘국어교사 준비, 그 첫걸음을 위한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주셨다. 특강은 국어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선생님께서는 교사의 장단점, 어떻게 임용시험을 준비하셨는지, 기출 분석 스티디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주셨다.



○ 학교현장실습 평가회 (2025.06.09.)

학교현장실습 평가회에서는 현장실습을 다녀오신 4학년 선배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여 실습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실습 중 유익했던 경험, 마음가짐, 소감까지 전해주셨다.

○ 추계학술답사 (2025.09.26.~2025.09.27)



추계학술답사는 국어교육과 학우들이 문학과 관련된 다양한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교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답사에서는 정호승 문학관,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권정생 어린이 문학관 등 문학사적 가치가 담긴 장소를 방문하였으며, 이와 함께 체육대회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학우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학술적 탐방과 공동체 활동이 조화를 이루며 구성이 되어, 학우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현장교사 특강 (2) (2025.09.23.)



12학번 졸업생이신 계성중학교 정희정 선생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다. ‘국어 수업, 교과서를 넘어 교실로: 현장 국어과 교육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셨다. 국어과 교사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어떻게 해야 잘 지내는지, 학교에서의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지금의 우리가 접하기 힘든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주셨다.

○ 제13회 돈을별 학술제 (2025.11.05.~2025.11.06)



국어교육과의 대표 학술 행사인 돈을별 학술제는 지난 11월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본 학술제는 국어교육과 학우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학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이다. 학술제 1일차에는 도전! 국교 골든벨, 90초 안에 톨아보기,

AI 및 교육공학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시연 설계 대회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우들은 전공에서 배운 이론과 지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며, 국어교육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학술동아리 발표회가 진행되었으며, 각 동아리는 연구 활동과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학우들과 공유하였다. 발표를 통해 학우들은 국어교육의 다양한 연구 주제와 접근 방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학문적 교류의 장이 형성되었다. 이번 돈을별 학술제는 학우들이 국어교육 전공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학문적 성취와 공동체 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행사로 마무리 되었다.





○ 현장교사 특강 (3) (2025.11.14.)

13학번 졸업생이신 부산 명지중학교 공지은 선생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귀한 걸음을 해주셨다. ‘국어과 교직 진출 시험 준비 및 학습 방법 안내’라는 주제로 임용 답안 작성 및 공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셨다. 무려 10페이지가 넘는 자료를 직접 제작해 오셔서 특강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주로 임용시험 준비를 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 영역에 맞는 교재와 공부법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

○ 종강총회 (2025.12.08.)

종강총회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여 2025학년도 2학기 동안 이루어진 학생회 활동과 학과 행사를 돌아보고, 학생회 운영 전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이 되었다. 종강총회에서는 2학기 동안 진행된 다양한 행사에 대한 활동 보고와 함께 학회비 사용 내역, 홍보 활동 결과 등을 학우들과 공유하며, 학우들이 학생회 운영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국어교육과 소셜 미디어 활동 결산

김태훈·박서연·최지윤('25)

홍보부는 지난 2025년 1년간 학과 행사 참여 독려와 행사 결과 보고를 위한 게시물로 카드 뉴스와 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국어교육과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의 활성화를 도왔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업로드하며 학기들을 추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어교육과 학우들이 학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이바지하였습니다.



3월에는 신입생들을 위하여 「영암관 주요 시설 소개」 영상을 제작하여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개강총회를 활용하여 「신입생 인터뷰」를 제작해 신입생들이 생각하는 대학 생활, 한 학기 목표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국어교육과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한 행사 공지나 정보 전달을 넘어서 신입생 개인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담아냄으로써 학과의 분위기와 공동체적 성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춘계학술세미나에

서는 답사지 방문, 레크레이션 등의 활동을 추억할 수 있는 브이로그를 계획하고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학과의 모습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4월,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는 「국어교육과가 좋아하는 과목」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의사소통, 문법, 고전문학, 현대문학으로 나누어지는 국어교육과의 특성을 살리고 시험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또한 학교현장 실습을 나가시는 선배님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학교현장실습 환송회'에서 재생하였습니다. 단순히 응원 메시지를 넘어 재미 요소를 같이 포함하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월에는 「누가 자료실을 더럽혔을까」라는 제목으로 자료실을 깨끗이 사용하지는 취지를 담아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사범대학 축제인 해오름제를 맞이하여 우리 국어교육과 부스에서 진행되는 게임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하여 학과 부스를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6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는 「국교는 촛불 꺼질 때까지 공부를 해」라는 제목으로 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시험 기간 응원 릴스는 시험으로 인해 긴장한 학우들에게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기말고사 이후 「국어교육과 3학년의 시험기간 브이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학우들의 학업 분위기와 일상을 기록하고자 제작하였으며, 기말고사 준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우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부터 2학기 종강까지 홍보부는 학과 행사 홍보와 참여 독려, 그리고 행사 이후 결과 공유를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카드 뉴스 형태의 게시물뿐만 아니라 릴스 영상을 적극 활용하여 재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학과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하

내가 배운 것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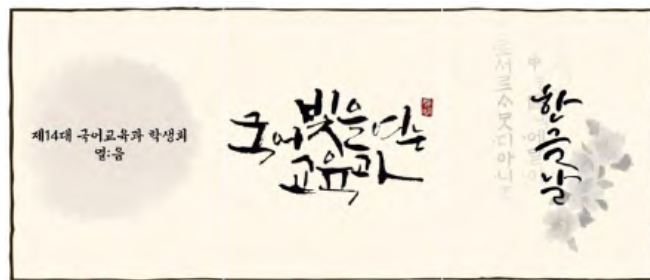
내 머릿속



인스타그램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였습니다. 국어교육과 교수님의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릴스를 제작하여 학과 전공과 관련된 의미 있는 콘텐츠 기획하였고, 「방학 2개월간 이룬 것들」, 「학교 가기 싫어하는 사람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등 공감형 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국어교육과가 플러팅 할 때」와 같은 흥미 위주의 릴스를 통해 학과 인스타그램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에는 입시 홍보 목적의 릴스를 제작하여 예비 신입생들에게 학과를 알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2학기 개강 전후로는 학과 행사 안내 게시물 및 릴스를 제작을 진행하였습니다. 개강총회 안내 게시물을 시작으로 앰티 참여 독려 릴스, 앰티 준비물 릴스를 제작하여 행사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개강총회 종료 후에는 결과 보고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행사 진행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기 중 진행된 학술 관련 행사 홍보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학술제 안내 및 홍보 게시물을 제작하였으며, 추계학술답사 이후에는 결과 보고 게시물과 「추계학술답사 돌아보기」 릴스를 제작하여 답사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 하였습니다.



한글날 기간에는 학과 인스타그램 배너와 프로필 사진을 바꾸며 한글날 임을 학생들에게 강조하였고 한글날 행사 안내 및 결과 보고 게시물 제작, 기념 게시물 업로드 등을 통해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시험 기간에는 재학생들을 응원하는 릴스도 제작하였습니다. 중간고사 응원 릴스를 비롯해 「내가 강의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 때」, 「홍보부 시험 기간 브이로그」 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기말고사 응원 릴스까지 제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능 응원(필수 준비물) 릴스와 임용시험 응원 게시물을 제작하여 수험생들을 응원하였으며, 중강총회 안내 및 결과 보고 게시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어교육과 한 해 돌아보기」 릴스를 통해 1년간의 학과 활동을 정리하였습니다.



홍보부에서 활동하며 단순히 게시물이나 결과물을 제작하는 것을 넘어, 학과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학과의 분위기와 이야기를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콘텐츠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기획부터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하며 협업의 중요성과 책임감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재학생들의 행사 참여도가 높아진다고 느껴질 때 홍보부 활동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다양한 행사와 순간들을 콘텐츠로 남기며 학과의 시간을 함께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뜻깊었고, 일 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연구반 활동



학술연구반 소개



의사소통교육연구반

김주혁('22)

의사소통교육연구반은 이영호 교수님의 지도 아래 2학년 김주혁, 김민정, 김희원, 김형진, 오지훈, 이나은 1학년 권수인, 김성은, 배서현, 정우

진, 정다희 총 11명으로 구성된 국어교육과 학술 동아리이다. 본 학술 동아리는 교육의 목적이자 주체인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었다. 아이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아픔과 고민, 꿈이 존재하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본 학술 동아리의 활동은 질문이자 과제를 제시한다.

본 동아리의 활동은 독서 토론의 형태가 기본이다. 동아리 구성원들의 투표로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 김선영 작가의 「시간을 파는 상점」을 지정 도서로 선정했다. 각각 가족 문제, 친구들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장 공감하기 쉽고 몰입하기에 용이한 주제이다. 구성원들은 각자 지정된 도서를 읽고 토론의 쟁점이나 수업에 활용될 요소를 구상해 온다. 이후 모임에서 감상, 쟁점, 수업 활용 등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또 반박하며 독서 토론을 진행한다. 이렇게 구상한 아이디어는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구성원들은 실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듯 수업의 방향과 구성, 교사의 대사, 학생의 예상 답변 등을 생각하여 실제 실연이

가능한 수업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K-circle 활동에 참여했고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국어교육과 학술제인 ‘돋을별 학술제’에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를 기반으로 한 수업 지도안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 문학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청소년 문학의 개념과 목표, 의의를 조사하고 해석하여 청소년 문학 자체를 개관하고, 청소년 문학 교수학습 방법에 관해 현 실태를 비판하며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를 기반으로 한 수업 지도안을 발표하며 학술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청소년에게 공감하고 위로를 전할 방법으로써 독서 치료를 택한 본 학술 동아리는 청소년 교육이라는 큰 틀 중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 독서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을 작중 인물, 혹은 작품 자체에 투영하여 공감하고 위로받는 것이 본 학술 동아리의 목적이다. 비단 교수 학습 방법에만 국한될 것이 아닌, 청소년을 마주하는 ‘어른’이라면 응당 사랑과 관심을 쏟아야 하겠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청소년의 아픔과 고독을 치료하는 것이 어른이라면 동시에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또한 어른이다.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받은 모멸, 학교에서 교사 혹은 친구에게 받는 상처, 청소년에게 어른으로서의 역할과 성장을 기대하는 고통의 눈초리.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보지 않는 어른들의 건조한 이념이 그들에게겐 흉터로 남기만 한다. 본 학술 동아리는 미래 교단에서 청소년을 바라볼 인물들에게 질문이자 과제를 던졌고 「의사소통연구반」의 활동이 그 해답을 찾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고전문학연구반

김가림('24)



「고전문학교육연구반」은 Uliana Kobyakova(올리아나 코바코바) 교수님의 지도 아래, 국어교육과 2학년 김수민, 김가림, 박소연, 최예인과 1학년 김태훈, 박세은, 이원준, 안서린, 안세은, 최동혁으로 구성된 국어교육과 학술동아리입니다. 이 모임은 전통 문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반은 조선 후기 문인 허균의 한문전(漢文傳) 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허균의 생애와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의 한문전 작품을 살펴보며, 작품에 나타난 인물 형상화 방식과 서사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균이 한문전을 통해 어떠한 인물과 삶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는지, 그리고 그의 문학 세계가 어떤 문체의식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을 활동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허균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문체적 지식인으로, 기존의 유교적 권위와 신분 질서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당대 사회의 모순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인물입니다. 그의 한문전은 전통적인 전기문 형식을 따르면서도, 주변부 인물과 비주류적 삶을 서사의 중심에 놓아 기존 전통 문학과는 다른 시

각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허균의 한문전은 『홍길동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덜 받아왔기에, 본 연구반은 그의 한문전 작품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며 그 문학적 가치를 탐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반은 주 1회 정기 모임을 통해 팀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주제는 크게 허균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한문전 작품 분석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허균 평전』을 중심으로 허균의 성장 배경과 관직 생활, 시대적 상황, 권위주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의 사상적 지향을 살펴보고 작가로서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허균이 문학을 통해 어떤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었는지를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허균 한문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죽음의 서사 기법, 권위주의 인식, 주변 인물의 형상화 방식 등을 다룬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팀은 주제별로 논문을 맡아 읽고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발표 이후에는 학우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해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한문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죽음의 서사’가 단순한 결말이 아니라, 당대 사회 질서에 대한 비판과 인물의 삶을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라는 점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허균이 작품을 통해 지양하고자 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탐구하며, 그의 문학이 지닌 사상적 깊이를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돋을별 학술제’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 아래 허균 한문전의 문학적 특징과 의의를 정리한 연구 성과를 국어교육과 교수님들과 학우들 앞에서 공유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균 문학이 지닌 비판 정신과 서사적 실험성을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연구반 활동은 조선 후기 문학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문전이라는 장르가 지닌 교육적·문학적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데이터분석연구반

이다현('24)

한국어데이터분석연구반은 박선우 교수님의 지도 아래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한국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는 Python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올해는 R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1학기에는 R 프로그래밍을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의 기초를 학습하였다.



변수와 함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숫자와 문자 데이터를 다루며, 간단한 계산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익혔다. 이후 ggplot2, dplyr 등의 패키지를 활용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학습했으며,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이해하고, 엑셀 및 CSV 파일과 같은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 분석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하였다.

2학기에는 김도이, 이다현(2학년), 안재은, 이유진(3학년)이 팀을 구성하여 「R 프로그래밍 텍스트마이닝과 생성형 AI 텍스트마이닝의 결과 비교분석」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문법 교육 관련 논문 초록 653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프로그래밍 기반 분석과 생성형 AI 분석 결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총 8회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초기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한자 변환과 띄어쓰기 정리 등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작업에 집중하였다. 이후 R 프로그래밍과 생성형 AI를 각각 활용해 명사 빈도 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는 한글학회 대구지회에서 열린 제29회 대학생 우리말글 연구 논문 발표대회에서 공유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

한 해 동안 한국어데이터분석연구반에서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해석 그리고 발표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1학기에는 프로그래밍 기초를 익히는 데 집중했고, 2학기에는 이를 바탕으로 분석 방법을 비교하며 결과를 만들어 갔다. 분석 결과를 정리할수록 작업은 단순해지기보다 오히려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졌으며,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팀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조율해 나갔던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현대문학교육연구반

오가연('24)



「현대문학교육연구반」은 윤호경 교수님의 지도 아래, 22학번 김진성, 24학번 김정우, 남하연, 신언호, 오가연, 25학번 도원경, 안제이, 이정연, 최소혜 총 9명으로 구성된 국어교육과 학술동아리다.

본 동아리는 현대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과 토론을 통해 문학 이해 능력과

문학 교수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동아리는 한 편의 작품을 한 명의 발제자가 전담하고 발제자는 작품을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질문 및 논의할 문제 등을 마련하여 발제자 주도의 문학 토론 및 감상 공유를 진행했다. 작품은 SF 소설과 생태 소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예비 교사들에게도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 작품을 읽고 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와

공동체가 직면한 위기를 인식하고 관련 교육 문제를 이해하며 예비 교사의 미래 대응 능력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SF 소설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원통 안의 소녀』, 「굿바이」, 「관내분실」, 「특이점을 지나서」, 「우주 택시」를 다루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과 『원통 안의 소녀』로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소외 및 인권 문제를 다루고, 「굿바이」와 「관내분실」로 기억의 데이터베이스화 및 디지털 시대 기억의 문제, 「특이점을 지나서」와 「우주 택시」로 포스트 휴먼 타자와의 공존을 주제로 작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생태 소설은 「내 여자의 열매」, 「채식주의자」, 「도요새에 관한 명상」, 「잔인한 도시」,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다루었다. 「내 여자의 열매」와 「채식주의자로」 식물-되기 및 식물적 상상력에 대해 이해하고, 「도요새에 관한 명상」, 「잔인한 도시」로 동물권 및 동물 복지를 통한 비인간 동물과의 공존에 대한 이해,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와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로 사회 생태주의를 통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작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작품을 읽고 관련 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부원들은 현대문학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이 제기하는 사회·윤리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작품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예비 교사로서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문학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독자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 질문을 스스로 사유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과정은 문학교육의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 속 사회적·윤리적 쟁점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탐구하도록 돕는다.

「현대문학교육연구반」을 통해 문학이 단순히 감상하거나 해석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작품을 읽고 부원들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더 넓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K-Circle <의사소통교육연구반>

정우진('25)



- 지도 : 이영호 교수님
- 팀장 : 김주혁('22)
- 팀원 : 오지훈('21), 이나은('24), 김성은, 배서현, 정우진('25)

2025학년도 1학기에 활동한 「의사소통교육연구반」은 이영호 교수님의 지도 아래, 2학년 김주혁·이나은·오지훈, 1학년 정우진·배서현·김성은 등 총 6명의 학우로 구성된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소속 학술 동아리이다.

본 동아리는 청소년문학 작품을 1~2권 선정하여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 수업 지도안을 설계함으로써 청소년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탐구한 것을 활동 주제로 삼았다. 활

동은 총 8회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매회 약 2시간씩 도서관 그룹 스터디룸에서 이루어졌다.

매 차시 선정 도서에 드러난 청소년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동아리원 간 독서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 수업을 설계하고, 완성된 수업 지도안에 대해 장점과 보완점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활동에서는 동아리원들이 직접 투표에서 고른 청소년문학 작품인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와 김선영 작가의 『시간을 파는 상점』을 선정하였으며,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활동을 진행하였다. 단순히 작품 내용에 국한된 독서에 그치지 않고, 작품 속에 있는 사회적·윤리적 문제 등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사고를 도모하였다.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4회차에서는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를 읽고 작품에 제시된 청소년 문제와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독서토론을 진행하였다. 『페인트』는 부모 선택 제도를 소재로 하여 청소년이 처한 현실적 문제와 정체성의 혼란을 다룬 성장소설로, 청소년문학으로 분류된다. 이에 1~2회차에서는 작품 속 청소년이 겪는 문제를 탐색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3~4회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5~8회차에서는 김선영 작가의 『시간을 파는 상점』을 읽고 작품에 제시된 청소년 문제와 사회적 의미를 중심으로 독서토론을 진행하였다. 『시간을 파는 상점』은 청소년이 마주하는 선택의 책임, 물질적 가치와 삶의 가치 사이의 갈등을 다룬 작품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가치관 형성을 중심에 둔 청소년 문학이다. 이에 5~6회차에서 주인공이 겪는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으며, 마찬가지로 7~8회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 수업을 설계하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동아리원들은 청소년문학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서 나아가 교육적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수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문학과 독서토론이 교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문학이 학생들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체감하며, 예비 교사로서 문학을 대하는 태도와 시선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와 가정이라는 공간 속에서 청소년들은 상처받고 또 사랑받으며 깊어지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간다. 교사로서의 미래를 탐구하는 우리는 그들에게 교육적 책임을 지닌 존재이다. 치유받아야 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청소년들에게 교사와 독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 것인가. 물론 그 의미는 자명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교단에 섰을 때, 나아가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학생을 마주했을 때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에 본 학습동아리는 학교 폭력이나 가정불화 등을 다룬 작품을 바탕으로 정서 치유를 위한 독서토론과 수업안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정서 치유를 위한 독서 교육의 가능성을 조망하고, 감정과 사랑이 모자란 사회를 성찰하는 담론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독서의 가장 큰 가치는 그 의미가 단순한 정보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독서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다양한 관점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며, 이 과정은 독서 교육을 실천하는 예비 교사로서 동아리원들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가정의 불화와 학교 폭력 등 청소년의 삶과 고난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통해, 본 동아리원들은 청소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Circle <고전문학교육연구반>



김수민('24)

- 지도: Uliana Kobyakova 교수
- 팀장: 김수민('24)
- 팀원: 김가림, 박소연('24),
안세은, 이원준, 최동혁('25)

2025년 1학기 활동한 「고전문학교육연구반」은 Kobyakova Uliana

교수님의 지도 아래 팀장 김수민, 팀원 김가림, 박소연, 이원준, 안세은, 최동혁으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우리 「고전문학교육연구반」은 고전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인물 중심 탐구를 목표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반은 고전문학 작품을 단순히 읽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문학, 사상, 역사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 학기에는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사상가인 허균을 탐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의 한문 산문과 전(傳) 작품을 중심으로 '허균의 생애와 한문전 작품 연구'를 주제로 하여 총 8회차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허균을 탐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홍길동전』의 작가로 잘 알려졌지만 다른 한문 작품들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를 더 탐구해 보고자 함이었다. 이에 연구반은 허균을 단편적인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문학적 성취와 사상, 정치적 행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장생전』, 『장산인전』, 『손곡산인전』, 『남궁선생전』, 『엄차사전』의 세계관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활동 계획을 세웠다. 또한 더 나아가 그의 문학과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탐구하려 하였다.

활동 1회차에서는 허균 탐문 활동의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허균과 관련된 기존 인식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원들은 허균에 대해 알고 있는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으며, 이후 허균을 둘러싼 상반된 평가가 형성된 배경에 주목하여 탐구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허균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한 자료 조사와 문헌 분석을 주요 활동 내용으로 확정하였다.

2회차와 3회차에서는 허균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자료 탐색이 이루어졌다. 『허균평전』을 비롯한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허균의 생애, 문학 활동, 정치적 행적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허균 평전 자료를 활용하여 그의 성장 배경과 사상 형성 과정을 분석하였다. 허균은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당대의 신분 질서와 사회 구조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이 그의 문학과 사상 전반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활동에서는 허균 탐문 활동의 전체 일정과 방향을 공유하고, 전 문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기 문학의 일반적인 특징과 기존 작가들의 전 서술 방식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뒤, 허균의 전 작품이 기존 전기 문학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을 보이는지 탐색할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후 작품을 조별로 분담하여 각 조가 맡은 전을 중심으로 인물의 성격, 서술 구조, 작가의 평가 방식 등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이다음에는 본격적인 작품 분석 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조는 맡은 작품을 정독한 뒤, 작품 속 인물이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장생전』과 『장산인전』에서는 관직이나 제도와 거리를 둔 인물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형상화되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러한 인물 선택이 허균의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손곡산인전』과 『남궁선생전』에서는 당대의 일반적

인 기준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서사의 중심에 놓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념이 상대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엄차사전』의 경우 인물의 신분이나 출신보다 삶의 태도와 능력이 강조되는 서술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각 조는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발표에서는 작품 요약에 그치지 않고 인물 형상화 방식과 서술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발표 이후에는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허균의 전 문학이 사회적 주변부 인물이나 제도권 밖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서사의 중심에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후반 회차에서는 개별 작품 분석을 종합하여 허균 전 문학의 전체적인 성격을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허균이 인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개인의 삶의 태도와 선택에 있음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서술 태도가 허균 문학의 중요한 특징임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허균 평전 자료와 관련 연구 글을 참고하여, 작품 분석 결과를 문헌 정보와 연결해 정리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졌다.

마지막 회차에서는 지금까지의 탐문 활동 전 과정을 정리하고, 허균 탐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조는 자신들이 분석한 작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공유하였으며, 허균의 전 문학이 조선 후기 산문 문학에서 가지는 의의를 중심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본 활동은 고전문학 작품을 단순히 읽는 데서 나아가, 분석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번 허균 탐문 활동을 통해 고전문학을 인물 중심으로 탐구하는 연구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장생전』, 『장산인전』, 『손곡산인전』, 『남궁선생전』, 『엄차사전』 등의 전 작품을 분석하며 허균이 기존의 전기 문학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주변부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그의 문학적 시선과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허균의 문학 작품과 정치적 행적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문학과 역사가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조별 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해석을 공유하는 과정은 고전문학 연구가 해석과 논의를 통해 확장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K-Circle <KLE KoNLP>

안재은('23)

- 지도 : 박선우 교수
- 팀장 : 이다현('24)
- 팀원 : 안재은, 이유진('23), 김도이('24)

2025년 2학기에 활동한 'KLE KoNLP'는 박선우 교수님의 지도 아래 총 네 명의 학우로 구성된 동아리이며, 10월 1일부터 총 8회차에 걸쳐 '생성형 AI 기반 노코딩 텍스트마이닝과 R 프로그래밍 텍스트마



이닝의 한국어 분석 성능 비교'라는 주제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1회차에는 '문법교육' 관련 KCI 등재 논문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총 1,127편의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초록이 영문으로 된 경우를 제외하여 653편의 논문 초록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이후 형태소 분석 과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는 어휘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사

전을 구축하고, 한자어를 한글로 변환한 파일, 띄어쓰기를 유지한 파일, 띄어쓰기를 제거한 파일 세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하였다.

2회차에서는 각자 맡아서 작업한 (1) 한자 한글 변환 파일, (2) 띄어쓰기 유지 파일, (3) 띄어쓰기 제거 파일을 취합하여 R코딩으로 직접 코드를 작성하여 실행한 결과와 AI를 이용해 만든 결과물을 비교·분석하였다. R코딩과 AI 3종(ChatGPT, Claude AI, Gemini)으로 명사 출현 빈도 그래프와 워드클라우드를 작성해 보았다.

3회차에서는 AI가 워드클라우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고,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목차를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4회차와 5회차에서는 국어교육과의 ‘돋을별 학술제’의 발표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를 다시 도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PPT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6회차와 7회차에서는 ‘한글학회 대학생 연구 논문발표대회’ 준비를 진행하였다. 최종 발표문을 작성하기 위해 전체 목차를 재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제29회 대학생 우리말 글 연구 논문 제목을 ‘R코딩 텍스트마이닝과 생성형 AI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 - ‘문법교육’ 관련 연구 논문 초록 텍스트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로 확정하였다. 이후 편집된 원고를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였고 최종 원고를 완성하였다. 8회차에서는 발표 리허설을 진행하여 전반적인 구성과 표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8회차의 활동을 통해 저희 KLE KoNLP는 R코딩과 생성형 AI 기반 텍스트마이닝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글학회에서 발표까지 마치는 뜻깊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연구를 시작할 때는 AI가 R코딩을 대체하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실제로는 전처리 작업과 복잡한 통계 처리 과정에서 여전히 사람의 통찰력과 적극적인 개입, 즉 ‘Human-In-The-Loop’가 필수적임을 느끼게 되었다.

더불어 연구를 진행하면서 프롬프트 작성의 중요성도 크게 깨달았다. 생

성형 AI에게 단순하거나 모호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구체적이고 명확한 프롬프트를 입력해야만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 과정을 통해 수많은 오류를 팀원들과 함께 해결하며 논문을 완성하면서 협업의 가치를 배우게 되었다. 끝으로, 함께 연구를 진행한 팀원들과, 많은 도움과 지원을 주신 박선우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학습동아리 활동

독서토론클럽 <꽃구름>



이정연('25)

- 지도: 윤호경 교수
- 팀장: 오가연('24)
- 팀원: 김진성('22), 남하연('24), 도원경, 안제이, 이정연, 최소혜('25)

2025년 2학기 동산도서관에서 주관한 「독서토론클럽」에 「소우주」 팀으로 참여하였다. 팀명 「소우주」는 ‘작은 세계’라는 뜻으로, 하나의 인간이 거대한 우주에 비견될 만큼 심오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독서토론 활동은 이러한 소우주들이 모여 선정한 세 권의 책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각자의 세계를 이해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번 「독서토론클럽」 활동에는 윤호경 교수님의 지도 아래, 2학년 오가연 팀장을 중심으로 2학년 김진성, 남하연, 1학년 도원경, 안제이, 이정연, 최소혜 총 7명의 학우가 참여하였다. 활동은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진행되었으며, 시집 1권과 소설 2권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총 6회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1·2회차는 김소형 외 19인의 『도넛을 나누는 기분』, 3·4회차는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 5·6회차는 조지 오웰의 『1984』를 읽고, 각 도서마다 2명의 발제자를 정하여 독서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활동을 통한 목표는 토론 진행 책임자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소통 중심으로 흐름을 조율하고, 참여자들은 각자 읽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고민한 답변을 마련해 토론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토론일 이전까지 ‘각자 맡은 책의 논제 거리 준비하기’, ‘선정한 세 권의 도서를 완독한 뒤 토론에 임하기’ 등 기본적인 태도를 지킬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며, 서로의 의견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청소년 시집 『도넛을 나누는 기분』을 읽으며 부원들은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시의 주제와 표현 기법, 시어가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작품 감상 과정에서 작품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며, 시가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을 읽고서는 작품 속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중심으로 인물과 서사에 대한 이해를 나누며 작품 해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피르소의 태도 변화, 그의 사형을 정당화하는 검사와 배

심원의 시선, 피르소를 감정이 결여된 인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주요 논점으로 삼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작품이 제기하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탐색할 수 있었다.

마지막 작품인 조지 오웰의 『1984』에서는 소설에 구현된 세계관과 체제의 구조, 주요 인물들이 가지는 가치와 태도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작품 속 권력이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들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윈스턴·줄리아·오브라이언이 각각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나아가 작품 속 상황을 현재 사회와 연결 지어 해석하고, 자신이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부원들은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가치관을 접할 수 있었고, 작품 감상과 해석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감상을 설명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예비 교사로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역량과 자신의 해석을 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었다.

본 활동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보내주신 윤호경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모든 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독서토론클럽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토론동아리 <말모이>

남하연('24)

- 지도: 이영호 교수
- 팀장: 김진성('22)
- 팀원: 김주혁('22), 권지민, 김현진('23), 김수민, 남하연('24)



국어교육과 토론 학습 동아리는 토론을 통해 말하는 힘과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학기에 걸쳐 이영호 교수님의 지도 아래,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 중심의 토론 활동을 진행하였다.

동아리 활동은 토론 대회 형식에 맞춘 실습 위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계명토론대회 출전을 위해 칼 포퍼 토론 방식을 바탕으로 한 입론 작성, 질문 및 반박, 최종 발언 연습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단계별 활동을 통해 토론의 구조를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해야 한다.」와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두 개의 논제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바꾸어 토론을 총 5회에 걸쳐 진행하며 한쪽 주장에 고정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리를 구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활동을 지속하면서 동아리원들은 자신의 말하기 습관과 사고방식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다. 발언 속도, 어휘 선택, 논리 전개 방식 등을 점검하며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고민하였고, 이를 통해 발표력과 표현력 또한 함께 향상될 수 있었다.

토론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조사와 논제 분석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동아리원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준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일정 조율과 발표 준비를 병행하며 책임감과 협업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은 동아리원들이 토론의 전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단순히 이론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논리 전개 방식과 발언 태도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활동 과정에서 서로의 개선점을 함께 고민하는 협력적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동아리원들은 상대의 주장을 정확히 듣고, 즉각적으로 핵심을 짚어 반박하는 토론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었다. 토론에 대한 부담감이나 두려움이 있던 학우들 역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토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는 점에서 동아리 활동은 의미 있는 성장의 과정이었다.

국어교육과 토론 학습 동아리는 토론을 잘 말하는 기술이 아닌, 생각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접근한다. 선후배 혹은 동기와 체계적인 토론을 하고 싶은 학우, 말하기와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우는 토론 학습 동아리를 권유하고 싶다.

토론 학습 동아리에서의 경험이 전공 학습은 물론, 앞으로의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쌓인 경험과 학습 태도가 앞으로의 교육 활동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는다. 또, 예비 교사로서 수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 활동을 운영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국어 수업에서 토론 및 토의 활동을 지도할 때, 동아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수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우리에게 큰 격려와 응원을 주신 이영호 교수님과, 바쁜 학업 속에서도 늘 웃으며 함께해 준 동아리원 학우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K-Circle <전공튜터링>

안재은('23)

■ 팀원:

가르치미-안재은('23),
배우미-이다현('24)



후배인 이다현('24)의 권유에 응하여 2025학년도 1학기에 K-Circle 전공 튜터링에 참여하였다. 전공튜터링은 가르치미가 앞서 수강한 과목을 이제 수강하게 되는 배우미에게 학습한 내용을 알려주어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국어음운과형태'를 선정하여 총 8회차에 걸쳐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습 목표는 '국어음운과형태' 과목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학습, 시험 대비 예상 문제 출제 및 풀이, 중요 개념 정리하기로 설정하였다.

가르치미인 나는 튜터링 전에 가르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고, 강의자료를 다시 읽어보며 튜터링에 사용할 자료를 만들었다. 자료를 만들 때는 중요도를 판단하여 검은색-파란색-빨간색 순으로 중요한 내용을 표시하였고, 글로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림이나 자료를 첨부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단어의 기원 - 조음단위
 (1) 음파의 전달 과정

진동 시작 → 음파 전달 → 진동 끝

3) 조음단위 형성

- 음절 (가령 '꽃')
- 음소 (포모 / 조음단위)
- 음소 단위
- 음소 단위

1) 발음

- 음소
- 음소
- 음소

2) 발음

- 음소
- 음소
- 음소

3) 발음

- 음소
- 음소
- 음소

(1) 조음단위 세분화 - 음소

- 음소
- 음소
- 음소

(2) 조음단위 세분화 - 음소

- 음소
- 음소
- 음소

(3) 조음단위 세분화 - 음소

- 음소
- 음소
- 음소

(4) 조음단위 세분화 - 음소

- 음소
- 음소
- 음소

튜터링이 진행된 뒤에는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미에게 강조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차당 3개씩 문제를 만들어 주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학기에 수강했을 때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나,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상기하여 문제를 구성해 보았다.

Q. 한국어 표제어들의 '파라미터'와 '성대역역' (VOT) 길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낱말 유형 (경음-경음-유기음) 사이의 차이를 '7-7-7'을 띄우며 설명하라.

Q. 다음 단어의 구조를 예와 같이 분석하라.
 예) 빛 : CVC
 유류 : _____ 구빈 : _____ 결혼 : _____

Q. 초분광음소의 개념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라


1회차에는 음성학의 기초, 2회차에는 음성 전사와 음성 부호, 3회차에는 한국어의 음운체계와 운율 체계, 4회차에는 구조주의 음운론, 5회차와 6회차에는 생성음운론, 7회차에는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차례대로 학습하였고, 8회차에는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시험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공튜터링을 통해 습득하고 싶었던 역량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능력이었다. 이는 교사가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역량으로, 국어 교사를 지망하는 저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었다. 전공튜터링 활동은 이 능력을 습득하는 데 한 발짝 다가서게 된 계기가 되었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학습 자료를 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교수 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공부하게 되고, 몰랐던 부분을 깨닫고 보충하게 되고,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배우미가 한 질문과 튜터링 동안의 대화를 통해 배우미가 어떤 부분을 자신 있어 하고,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파악해 보기도 했다. 1:1로 누군가의 학습 방법, 흥미, 능력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전공튜터링 활동을 통해 이를 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문법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 나타나는 현상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영역이기에, 가르치고자 하는 이론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드는 것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번 튜터링을 통해 알게 된 이 방법은 앞으로 수업하게 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배우미는 이번 튜터링 활동으로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았으며, K-Circle 활동 결과 장려상을 받는 결과를 얻어냈다. 튜터링 활동을 통해서 단순히 '가르친다'라는 행위만을 경험하지 않고, 가르칠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 목표 설정, 배우미와의 교류, 가르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문제 만들기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배우미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공유해주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웠고, 이것은 예비 교원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학술세미나
보고서

청소년 문학을 대상으로 한 독서 토론 수업

의사소통교육연구반 (지도: 이영호 교수)
오지훈('21)
김주혁, 김형진('22)
김민정, 이나은('24)
김성은, 배서현, 정다희, 정우진('25)

I. 들어가는 말

학교, 가족, 그 속에서 청소년들은 상처받고 또 사랑받으며 깊어지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간다. 교사로서의 미래를 탐구하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교육적 책임을 가진다. 치유받아야 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청소년들에게 교사와 독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물론 무한한 의미를 가짐이 자명하겠지만, 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교단에 섰을 때, 또 치유가 필요한 학생을 마주했을 때, 너무도 큰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본 학습 동아리에선 학교폭력이나 가정의 불화 등을 다룬 책을 바탕으로 정서 치유를 위한 독서토론이나 수업안을 작성하려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 치유를 위한 독서 교육을 조망하고 감정과 사랑이 결여된 사회를 일갈하는 담론의 공동체로서 부상하려 한다.

독서의 가장 훌륭한 점은 그 의미가 비단 정보 전달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 권의 책을 읽고 그에 관한 독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자신만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생각을 듣고 고개를 끄덕일 줄 알게 된다. 다양한 생각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 또한 독서 교육과 예비 교사로서의 조원들을 한 단계 진보시키는 것이다. 가정의 불화, 학교 폭력 등 청소년의 삶과 고난을 가감없이 목도하고, 이를 이해하며 위로하기 위한 교육활동이 끝난 후에 본 동아리원들은 청소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까워질 것을 기대한다. 청소년 문학을 개관하고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를 통해 실제 교수학습방안을 고안해보았다.

II. 청소년 문학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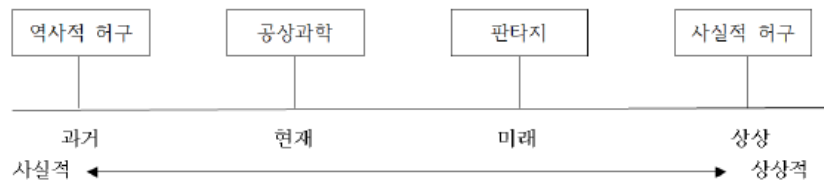
2.1. 청소년 문학의 개념

명시적으로 청소년을 목표 집단으로 하여 쓰인 청소년 문학은 특별히 청소년을 위해,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 쓴 문학이다.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 독자를 위해 쓰인 문학적 구성, 즉 청소년들의 삶, 경험, 열망, 문제 등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이 탐구하는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학 텍스트들을 읽는 주요 예상 독자로서 청소년을 테스트 속에 형상화하고 있다. 청소년 문학이란 청소년의 성장, 정체성, 관계, 갈등을 다루며, 청소년이 공감하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쓴 문학 작품이다.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기에 있는 작중인물들에 초점을 두어 작중인물들의 정체성 인식, 모험, 꿈(희망), 그리고 사소한 일들을 탐구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있는 작중인물들이 도전과 난관에 직면할 때, 그들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청소년 문학은 의미 있는 발전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될 변화와 모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청소년 문학이 되기 위한 조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 1) 청소년 문학은 문학교육의 지향점인 학습자의 문학 능력 증진과 문학 문화의 고양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청소년은 독자인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대상이 되는 존재, 청소년 문학을 교수-학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문학 능력을 증진시켜 학생들의 자기 성찰 및 새로운 자기 형성이 목적이다.
- 2) 청소년 문학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정신적·육체적 성장 과정에서 형성되는 자아 정체성을 주요하게 다룬다.
 - 청소년 문학교육은 청소년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풀어낼 수 있도록 어른들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청소년의 본성, 즉 청소년 삶의 주요 흐름이나 정체성을 구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 독자들이 공감하고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문학 텍스트들을 향유한다. 청소년 문학 교육의 장을 보다 확장시켜 청소년들의 실제적인 요구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교육을 실천할 필요 존재한다.
- 4) 오늘날의 청소년 문학 특징
 - 주인공이 12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이다.
 -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사건이 벌어지는 몇 개의 하위 플롯을 가진 주요 플롯 하나를 갖는다.
 - 작중인물들의 숫자가 제한된다.
 - 하나의 주요 배경을 갖는다.
 - 대략 125~2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그 길이로 갖는다.
 - 일반적으로 청소년 문학에 사용된 언어들은 실제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되풀이한다.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의 삶, 경험, 이슈, 그리고 열망 등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청소년 문학 텍스트는 문학 교육과정 및 내용 구안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다른 문학 장르와 더불어 읽고, 경험하고,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들이 자신, 타자 그리고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하며,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역할 모델들을 제공한다.¹⁾



〈그림 1-1〉

청소년 독자들을 위해 쓰인 텍스트에는 기본적으로 허구적인 것과 사실적인 것이 있다. 허구적인 것에는 사실적 허구, 유머, 미스터리, 판타지, 공상과학, 그리고 역사적 허구 등이 있다. 〈그림 1-1〉은 허구적인 텍스트들의 유형을 이해할 수 있는 개요를 나타낸다(유머와 미스터리에는 다른 유형의 허구들과 독특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외).

반면 비허구적인 것에는 전기, 자서전, 정보 전달 텍스트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들 이외에도 청소년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문학 텍스트에는 시, 드라마, 그림 문학 등이 있다.

① 사실적 허구

청소년을 위한 허구적 서사의 주요 범주에는 동시대의 세계를 반영하는 텍스트들이 포함된다. 사실적 허구 서사는 믿을 만한 플롯, 청소년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감정 이입할 수 있으며, 실재하는 것 같은 작중인물들, 학교, 이웃집, 쇼핑몰 등과 같은 친숙한 배경 등을 보여준다.

1) 선주원(2008), 「청소년 문학교육론」, 역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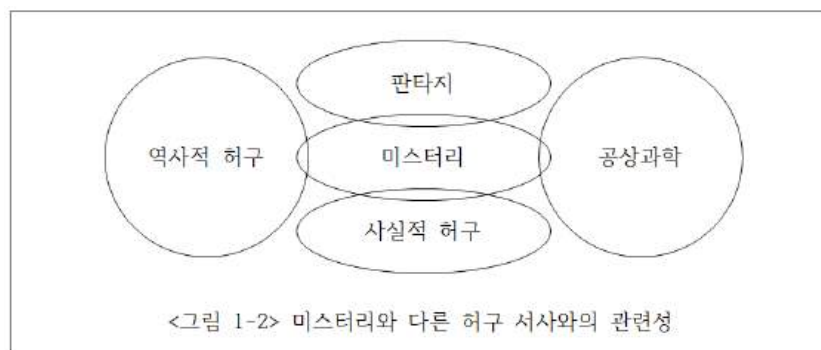
사실적 허구 서사에 자주 형상화되는 주제들은 소외, 정체성 탐구, 우정의 중요성, 변화에 대한 대응과 수용, 변화하는 가족의 역할, 작중인물이 학습하고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든 것이다. 예시 작품에는 이순원의 「19세」, 김별아의 「첫사랑」이 있다.

② 유머

청소년 독자들을 위한 사실적 허구 텍스트들은 보통 유머스러운 요소들을 포함한다. 유머가 있는 청소년 사실적 허구 서사들은 청소년들의 기호에 영합하여 공간적으로 전파되고 시간적으로 전승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들은 해학적 고전 설화들을 계승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③ 미스터리

청소년을 위한 대부분의 텍스트들이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반응하고 상호 작용하는 신뢰성 있는 작중인물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에, 미스터리리는 매우 모호함과 매우 분명함 사이의 균형을 깨뜨려야만 하는 경악, 왜곡, 반전, 암시 등으로 가득 찬 정교하게 짜진 플롯에 의존한다.²⁾



2) 선주원(2008), 「청소년 문학교육론」, 역락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미스터리는 역사적 허구, 공상과학 혹은 판타지 등이 될 수 있다. 예시 작품에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용의자 X의 헌신」, 쓰시무라 미즈키의 「아카쿠치바의 전설」이 있다.

④ 판타지

현실의 질서가 아닌 초현실적 세계의 질서를 제시하여,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질서를 제시하는 서사적 환상이 잘 구현된 것이 판타지 소설이다. 즉 초현실적인 현상을 사실적인 것으로 진술하므로 청소년에게 어떤 식의 망설임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망설임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굳이 해명하려 하지 않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판타지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다. 예시 작품으로는 J.K. 롤링의 「해리 포터」 시리즈, 나오미 노빅의 「테메레르」시리즈가 있다.

⑤ 공상과학

슬레이터에 의하면, 공상과학은 아직은 일언 마지않았지만, 미래의 언젠가는 발생할 어떤 것에 대한 문학이다. 공상과학은 특정 인물과 다른 인물들의 관련성을 과학, 기술문명, 전위예술 등과 같은 그럴듯한 이야기 등과 관련시킨다. 예시 작품으로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양자인간」, 아서 클라크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있다.

⑥ 역사적 허구

역사적 허구 서사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특정 시대에 대한 세부 사항들의 확실성이 나타나는 서사이다. 문서에 기록된 사건들과 단어들에 연관 있는 역사적 인물을 지속적인 방법으로 형상화하며, 사건들의 연대기가 정확해야 한다. 역사 소설은 가치문제, 소설에 형상화된 시대의 도덕적 딜레마와 이슈 등에 대한 반성 및 성찰 기회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예시 작품으로는 조정래 「태백산맥」이 있다.

⑦ 비허구적 서사

비허구적 서사들은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게 한다. 그 종류로는 전기와 자서전, 설명문 등이 있다. 전기와 자서전은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와 그 시대의 사건들, 그리고 주인공에 대한 영감을 보여주고, 설명문은 독자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만족감과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만족감을 경험시켜준다.

청소년 문학 장르는 다양한 유형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현직 교사나 예비 교사들은 청소년 문학 장르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청소년 문학 텍스트들을 읽어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문학을 문학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2.2. 청소년 문학의 목표/의의

1) 청소년의 존재성과 목표

한 사람이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성장해 갈 때, 삶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변화들은 청소년 시기에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청소년 시기에 다른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알게 되고, 점차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적응과 저항, 성인과의 조화와 부조화, 수용과 창조의 양면적인 길항 관계 속에 존재하며, 이 시기는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문화 습득 및 독자적인 창조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시기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진 삶의 목표와 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어렵고 고단한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유목성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
- 성적 개방과 문란한 사생활로 인한 성적 문제들의 증대
- 점증하는 윤리적, 문화적 다양성
- 최소 목표로서의 대학 진학과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평생교육

2) 청소년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주제³⁾

① 가족 관계

‘가족관계’ 범주와 관련된 내용: 적절한 부모 역할,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 독립성 성취, 개인적 이념 혹은 가치 체계의 획득, 사회적 책임과 성취.

② 친구와 사회

‘친구와 사회’ 범주와 관련된 내용: 동년배 친구들과의 새롭고 보다 성숙한 관계 수행, 적절한 남성 혹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수행, 신체의 효과적인 사용과 정서적 독립성 형성, 결혼과 가족을 위한 준비, 직업을 위한 준비, 개인적인 이념이나 가치체계 획득, 사회적 책임감 수행.

③ 윤리적, 계급과 관련성

윤리적, 계급과 관련된 내용: 동년에 친구들과의 새롭고 보다 성숙한 관계 수행, 적절한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 독립성 성취, 개인적 이념 혹은 가치 체계의 획득, 사회적 책임감 수행.

④ 신체와 자아

신체, 자아와 관련된 내용: 동년배 친구들과의 새롭고 보다 성숙한 관계 수행, 적절한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신체적 변화에 대한

3) 선주원(2008), 「청소년 문학교육론」, 역락

적용과 효과적인 신체 활용, 결혼과 가족을 위한 준비, 직업을 위한 준비, 개인적인 이념이나 가치체계 획득, 사회적 책임감 수행.

⑤ 성적 관계

‘성적 관계’와 관련된 내용: 동년배 친구들과의 새롭고 보다 성숙한 관계 수행, 적절한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 사회적 역할 수행,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적응과 효과적인 신체 활용, 결혼과 가족을 위한 준비, 직업을 위한 준비, 개인적인 이념이나 가치체계 획득.

3) 청소년 문학의 존재 의의

- 청소년 문학: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에 대해 쓴 문학
- 예상 독자: 청소년
- 청소년들의 삶, 경험, 열망, 이슈 등을 다루고 있는 문학이라 할 수 있다.
-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될 광범위한 변화들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문학은 삶을 위한 전략들을 제공한다”라는 말은 문학의 모든 장르에서 이 말이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청소년 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야 한다. 청소년들만큼 능동적으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이다. 독서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일상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토대를 얻는다.

* 로젠블랫: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작중 인물과의 만남을 통해 실제 삶과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얻게 된다.

청소년 소설에 형상화된 젊은 주인공들은 청소년들에게 동일시를 위한 모델들을 제공한다. 또한 그 인물들은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한다. 이 탐구들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

를 증진하면서, 주변의 사건들과 상황들, 그리고 인간 삶의 양상들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게 된다.

청소년 문학 읽기를 통해 청소년 독자들은 자아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사회, 문화, 그리고, 보다 확장된 상황 맥락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 문학 텍스트는 청소년들이 자기-이해(self understanding)를 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어떻게 대비하고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모색을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소년 문학 텍스트는 청소년들을 미지의 장소로 데리고 가서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 문학 텍스트는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을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III. 청소년 문학 교수 학습 방법

3.1.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문학 수업의 문제점

현재 학교 현장의 문학 수업은 학생들이 책 속 사건의 흐름만 따라가거나 줄거리를 외우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 인물의 속마음이나 행동의 이유, 배경이 작품에 미치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학생은 듣기만 하는 수업 방식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토론이나 질문 기회가 적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해석을 나누거나 비판적으로 읽는 힘이 자라지 못한다. 또한, 한 교실에 다양한 읽기 수준을 가진 학생들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활동과 자료가 동일하게 제시되어 이해가 느린 학생은 소외되고 이해가 빠른 학생은 흥미를 잃는 일이 잦으며, 인물의 감정 이입이나 창의적 재구성 같은 활동이 부족해 학생들이 작품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보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할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다. 또한, 평가도 정답 중심·요약 중심으로 치우쳐 학생의 사고 과정과 성장 과정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

3.2. 개선해야 할 점, 변화되어야 할 점

그렇기 때문에 개선점과 변화되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수업을 활동 중심으로 바꿔 학생이 직접 질문하고 토론하며 이야기 지도를 통해 이야기의 구조를 눈에 보이게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 수준에 맞춰 읽기 자료와 활동 난이도를 조절하는 차별화 수업을 도입해 누구나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참여하게 하고, 조별로 역할을 나누어 각자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물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감정과 동기를 탐구하는 일기 쓰기, 편지 쓰기, 역할극 같은 표현 활동을 넣어 공감 능력을 키우고 텍스트를 삶과 연결하게 해야 하며, 형성평가와 포트폴리오 같은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 스스로 개선점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이야기의 결말을 바꾸거나 인물의 관점으로 글을 써보는 등 학생이 글 안으로 들어가 직접 서사를 확장해 보는 창의적 활동을 수업 안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도구나 시청각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 협업을 돕고 텍스트의 배경과 분위기를 더 잘 이해하게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3.3.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1)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으로는 ‘이야기 지도(story map)’를 중심에 둔 프로젝트형 수업을 제안한다. 전체를 6주 정도의 과정으로 나누어 첫 주는 작품의 도입부를 함께 읽고 예측 활동으로 흥미를 유발한 뒤, 둘째 주에는 주요 인물들을 나누어 인물 카드(목표, 성격, 관계)를 작성하게 한다. 셋째 주에는 갈등을 드러내는 문장을 텍스트에서 찾아 근거를 제시하게 하며, 넷째 주에는 인물의 관점에서 일기나 편지를 쓰거나 짧은 역할극을 해 인물의 내면을 깊게 이해하게 한다. 다섯째 주에는 ‘만약 환경이 달랐다면’ 같은 대체 결말을 팀별로 만들어 이야기 지도의 다른 칸에 채워 넣어 비교하게 하고, 마지막 주에는 완성된 이야기 지도를 포스터나 디지털 파일로 발표하게 하여 가시적 산출물을 만들도록 한다.

평가는 이야기 지도의 완성도(증거와 논리), 팀 참여도, 표현 활동의 창의성, 자기·동료 평가를 합산해 과정 중심으로 하며 난이도 조절 카드와 역할 분담, 보조 자료(발췌본·녹음본)를 제공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교사에게는 샘플 템플릿과 피드백 문구 모델을 제공해 수업 실행을 돕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1) 전체 목표

- 학생이 작품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인물 동기와 갈등을 분석하며, 자신의 경험과 연결해 표현할 수 있다.
- 협력과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주차별 세부 계획

- 1주차 — 도입: 텍스트 탐색과 예측 활동
 - 목표: 작품의 기본 정보 파악과 흥미 유발
 - 활동: 전체가 작품의 앞부분을 읽고, 소그룹으로 '무엇이 일어날까?' 예측하기 활동을 한다.
 - 이야기 지도 첫 칸(주제·제목·예상 줄거리)을 채운다.
 - 교사 역할: 학생들이 예측을 공유하도록 촉진하고, 중심 질문을 제시한다.
- 2주차 — 인물·배경 분석 집중
 - 목표: 주요 인물의 성격과 배경을 구체화한다.
 - 활동: 각 소그룹이 한 인물을 맡아 인물 카드 작성(성격, 목표, 갈등, 관계)을 만든다.
 - 이야기 지도의 인물·배경 칸을 채운다.
 - 산출물: 인물 카드와 간단한 발표(3분).
- 3주차 — 갈등과 전개 분석, 증거 찾기 연습
 - 목표: 갈등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텍스트 근거로 분석한다.
 - 활동: 텍스트에서 갈등을 드러내는 문장 찾기 활동(인용과 해석).
 - 이야기 지도 갈등과 전개 칸을 채우고, 각 갈등에 대한 증거를 표시한다.

- 교사 팁: 학생들에게 '왜'를 계속 묻도록 유도해 인과 관계 분석을 강조한다.
- 4주차 — 전환: 인물의 관점에서 글쓰기와 역할극
 - 목표: 인물의 내면을 이해하고 표현 능력을 기른다.
 - 활동: 인물의 일기 쓰기 또는 인물 간 대화극을 준비해 발표한다.
 - 이야기 지도에 인물의 감정선(기복)을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 차별화: 글쓰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그림이나 만화 형식으로 표현하도록 선택권을 준다.
- 5주차 — 창의적 재해석과 비교 활동
 - 목표: 작품을 다른 상황으로 바꿔보며 가설적 사고를 키운다.
 - 활동: '주인공의 환경이 만일 ~했다면?' 질문을 바탕으로 소그룹 창작(대체 결말, 다른 시대 배경 등)을 만든다. 대체 결말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함의를 찾고 토론 학습을 진행한다.
 - 이야기 지도에 대체 전개와 결과를 추가해 비교 분석한다.
 - 산출물: 대체 결말 발표와 토론
- 6주차 — 종합 발표 및 평가, 반성 활동
 - 목표: 학습 내용을 종합하고 자기 성장을 돌아본다.
 - 활동: 각 소그룹이 완성한 이야기 지도를 포스터나 디지털 슬라이드로 발표한다.
 - 평가: 동료 평가(긍정 피드백 2개, 개선 제안 1개)와 자기 평가표 작성
 - 마무리: 교사는 과정 중심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음 단원에 대한 연결 질문을 준다.

3) 평가 방식(과정 중심 평가)

- 이야기 지도 완성도(증거 제시, 논리성) 30%
- 협력과 참여도(토론, 역할 분담) 25%
- 표현 활동(글쓰기·발표·창작물) 25%
-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 반영 20%
- 피드백은 구체적이고 행동 가능한 조언으로 제공한다.

예) “인물의 동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더 명확하다”

4) 차별화 방안(모든 학생 참여를 위한 방법)

- 난이도 조절 카드: ‘도움 카드(문장 인용 제공)’, ‘도전 카드(심층 질문 제공)’를 준비해 학생이 선택하도록 한다.
- 역할 분담: 자료 검색 담당, 그림 담당, 발표 담당, 기록 담당 등으로 나눠 각자의 강점을 살리게 한다.
- 보조 자료 제공: 읽기 느린 학생에게는 발췌 정리본, 듣기 자료(녹음 분) 제공을 제공한다.

5) 교사 지원과 연수 제안

- 교사는 이야기 지도를 처음 도입할 때 샘플 수업과 템플릿을 미리 만들어 연수받는다.
- 수업 중 관찰지와 피드백 문구 모델을 준비해 신속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교사들은 동료 수업 참관을 통해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개선안을 모색한다.

6) 기대 효과

- 학생의 텍스트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된다.
- 협력 활동을 통해 소통 능력과 책임감이 강화된다.
-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문학에 대한 흥미와 감정 이입 능력이 높아진다.
- 과정 중심 평가로 학생 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3.4.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2)

앞서 제시한 이야기 지도 중심 프로젝트형 수업이 작품의 구조와 인물 간 관계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협력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이었다면, 두 번

재 교수학습 방법은 텍스트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고 표현하는 활동 중심의 문학 수업이다. 이 방법은 학생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작가의 시선으로 다시 써보며 글을 능동적으로 해석하도록 돕는다. 특히 편지 쓰기, 결말 바꾸기, 기사 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1) 전체 목표

-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고 재구성하며 창의적 사고력과 표현 능력을 기른다.
- 인물의 감정과 갈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이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2) 주차별 세부 계획

- 1주차 - 도입 및 작품 탐색
 - 목표: 작품의 주요 줄거리와 인물을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 활동: 작품의 주요 장면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고 인물 간 관계를 정리한다.
 - 교사 역할: 중심 질문 제시(“이 작품에서 인물의 선택을 바꿀 수 있다면?”)
- 2주차 - 편지 쓰기 활동
 - 목표: 인물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한다.
 - 활동: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게 보내는 공적인 편지 쓰기
 - 발표: 편지 낭독
- 3주차 - 창의적 재구성 ① 새로운 결말 쓰기
 - 목표: 갈등의 해결 과정을 새롭게 설계하며 창의적 사고력 향상
 - 활동: “만약 인물이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이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대체 결말 작성
- 4주차 - 창의적 재구성 ② 이어 쓰기 및 신문기사 쓰기
 - 목표: 사건을 논리적으로 확장하며 다양한 문체를 경험한다.

- 활동: - 소설의 결말 이후 내용을 이어 쓰기.
 - 작품 속 사건을 뉴스 기사 형식으로 재구성
 - 교사 역할: 기사 구조 지도 및 문체 피드백
- 5주차 - 의미 요약 및 상징 표현
 - 목표: 텍스트의 주제와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 활동: - 작품을 상징이나 표어로 요약하기
- 6주차 - 종합 발표 및 평가, 반성 활동
 - 목표: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성장을 인식한다.
 - 활동: 개인별로 창작물(편지, 기사, 결말 등)을 발표 및 전시
 - 평가: 동료 평가(긍정적 피드백 2개, 개선 제안 1개)와 자기 평가를 통해 과정 중심 피드백 실시
- 3) 평가 방식
 - 창의적 재구성의 완성도: 30%
 - 협력과 참여 태도: 25%
 - 언어 표현력: 25%
 - 자기, 동료 평가 반영: 20%
- 4) 기대 효과
 - 학생이 인물의 내면을 스스로 재구성하며 글쓰기 능력이 향상된다.
 - 다양한 글쓰기를 경험하면서 문학을 다각도로 해석하는 능력이 길러진다.

IV. 청소년 문학 교육의 실제

4.1. 대상 도서 소개

1) 작가

글을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처음으로 썼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고 산후우울증 때문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감정을 토해내고 싶어서 시작했다.

70 학술세미나 보고서

단편소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로 2013년 제1회 김승옥 문학상 신인상 대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8년 「페인트」로 제12회 창비청소년문학상을, 같은 해 「너는 누구니」로 제1회 브릿 G 로맨스릴러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장편소설 「나나」, 「보통의 노을」, 「챌린지 블루」, 「썸썸머 베케이션」 등이 있다.

2) 줄거리

소설 「페인트」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으로 인해 가족에게서 분리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국가 보호시설 'NC 센터'를 배경으로 한다. 이곳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모두 '국가의 아이들'로 불리며,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페인트(PAINT: Parents Are In Need of Trust)' 제도를 통해 새로운 부모를 선택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 제도는 아이가 부모 지원자와 면담을 진행한 뒤, 자신이 원하는 가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모-자식 관계의 권력 구조를 뒤집는 실험적인 사회 시스템이다.

주인공 제이는 NC 센터에서 성장한 소년으로, 페인트 제도의 대상자가 되면서 여러 명의 부모 지원자들을 만난다. 하지만 제이는 단순히 좋은 조건을 가진 부모를 찾는 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제도 자체에 회의감을 느낀다. 그에게 가족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는 관계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면담 과정에서 제이는 부모의 역할을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로 바라보게 된다.

그는 부모 지원자들이 보여주는 조건적 사랑, 혹은 '아이를 소유하려는 태도'를 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의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이는 페인트 제도의 모순을 발견한다. 표면적으로는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국가가 부모의 자격을 심사하고 아이의 삶을 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이는 제도의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로 마음먹고,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보다 스스로의 존재로서 살아가겠다는 선택을 내린다. 작품의 결말에서 제이는 새로운 가정을 선택하지 않는다. 이

는 가족의 유무를 넘어서, 한 개인이 타인의 보호 없이도 존엄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이처럼 「페인트」는 가족이라는 제도의 본질, 그리고 사랑과 존중의 조건을 질문하며,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한다.

4.2. 대상 도서에 대한 실제 교수·학습 과정안

1) 개요 및 학습 목표

본 교수 학습 지도안은 국어 교과 중 문학 과목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차시에 해당하며, 이희영 작가의 소설 「페인트」를 주요 교재로 활용한다.

학습 목표: [12문학 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2) 수업 내용 및 교수 학습 활동 분석

총 2차시 중 2차시 수업에 대한 지도안으로, 학습 과정은 크게 도입, 전개, 정리 및 평가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도입 (5분)

- 주요 활동: 지난 차시 도서인 이희영 작가 「페인트」의 내용 이해를 위한 퀴즈 진행.
- 세부 내용: 「페인트」 줄거리와 관련된 퀴즈를 카훗(kahoot!) QR 코드를 활용하여 진행한다. 이는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난 내용을 복습하며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② 전개 (40분)

- 주요 활동: 학습지 배부 및 조 배정, 개인 활동 및 팀 활동 진행 (역할극과 편지쓰기를 통해 인물의 감정 이해 및 문학의 삶과 감정의 풍

요로움 체감).

- 개인 활동 (인상 깊은 부분 작성): 학생들이 「페인트」를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한다. 이는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읽고 개인적인 감상을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 모둠 활동 (감상 나누기 및 선정): 모둠원끼리 각자 작성한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모둠원 모두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느낀 감상평 1개를 선정하여 활동지에 기록한다. 이 활동은 학생들 간의 생각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역할극 준비 (대사 재구성): 선정한 인상 깊은 부분을 책에서 찾아, 지난 시간에 했던 인물 분석을 참고하여 인물들의 대사를 자신만의 말로 재구성한다. 단순한 대사 따라 하기가 아닌, 인물의 마음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실감 나는 이야기를 작성하도록 유도하여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한다.
- 역할극 진행: 작성한 역할극 대본을 바탕으로 모둠 안에서 역할극을 진행한다. 역할극 후 편지쓰기가 이어지므로 인물에 이입하여 역할극을 진행하도록 안내한다.

③ 정리 및 평가 (5분)

- 주요 활동: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발표 및 공유, 자기 참여와 느낀 점 돌아보기 및 평가.
- 편지쓰기: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통해 역할극에서 느꼈던 점,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등을 자유롭게 담아 작성하게 한다. 이 활동은 문학 속 인물과 '나 자신'을 연결하여 스스로를 이해하는 눈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발표 및 공유: 작성한 편지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눈다.
- 평가: 역할극과 편지쓰기 활동을 통해 인물과 자신을 연결하며 문학

이 주는 의미를 깊게 느꼈는지 확인한다. 평가지를 통해 오늘 자신의 참여와 느낀 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후 수업을 마무리한다.

4.3. 교수 학습 방법 및 특징

본 지도안은 역할극과 편지쓰기 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협력 학습 및 경험 학습을 강조한다.

- 문학의 본질적 이해: 문학 작품이 인간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직접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 정서적/미적 고양: 인물의 감정 이해 및 문학의 삶과 감정의 풍요로움을 체감하는 것을 학습 내용으로 명시하여, 학습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구체화하였다.
- 자기 성찰 및 연결: 특히 ‘주인공에게 편지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주인공의 감정과 생각에 자신을 투영하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편지를 쓰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문학 인물과의 연결을 통해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한다.

V. 맺는말

독서를 통한 청소년들의 정서적 치유와 자기 성장을 조망하고자 시작된 본 연구는 문학 교육과 독서토론수업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중심 교수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선 청소년 문학의 단순 문학적 능력 증진을 넘어 궁극적으로 공감과 성찰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치유를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학교 현장의 문학 교육이 단순 암기 방식, 혹은 교사의 일방적 설명에 치우쳐 있기에 학생들의 다양한 해석이나 정서적 공감이 부족하다

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동시에 문학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기 형성을 위한 문학 작품 발췌, 역할극, 편지 쓰기 등의 표현 활동을 삽입하여 텍스트와 청소년들의 삶을 연결하도록 한다. 이러한 개선 방향에 따라 본 연구에선 이희영 작가의 소설 「페인트」를 활용한 실제 교수 학습 모델에서 ‘역할극과 편지쓰기’를 핵심 활동으로 설계하였다. 역할극 이전에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자신을 대입하도록 한다. 역할극을 통해 주인공에게 자신을 이입시킨 후 주인공에게 다시금 편지를 쓰는 활동을 통해 객관적인 대상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나’를 이해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과 치유를 가져온다.

이러한 경험 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독서 치유를 체득시키고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교수 학습 모델과 문학 교육의 지향점은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자아 탐색을 돕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독서토론교육의 역할과 기능 확장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허균의 생애와 한문전 작품 연구

고전문학연구반(지도: Uliana Kobayakova 교수님)

김가림, 김수민, 박소연, 최예인, 한주환('24)

김태훈, 박서연, 안서린, 안세은, 이원준, 최동혁('25)

I. 들어가는 말

‘고전문학교육연구반’은 조선 중기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문인으로 파격적 사상과 문학적 성취를 남긴 허균(1569~1618)의 생애와 그의 한문전 작품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그의 문학적 성취는 방대한 한문 산문과 시문에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육과정에서는 허균을 「홍길동전」의 저자로만 간략히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그의 방대한 한문 산문과 시문, 그리고 사상적 깊이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허균은 당대의 유교적 질서 속에서 사회제도와 권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다양한 문학적 형식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이상을 표현한 지식인이었다. 그의 한문전 작품은 정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더불어 새로운 인간상과 이상 사회를 모색하는 사상적 실험의 장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허균의 한문전 작품을 분석하고, 그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허균의 사상과 문학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중기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허균이 어떻게 기존 질서를 넘어 새로운 사유를 전개했는지, 나아가 그의 문학과 사상이 오

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탐구할 것이다.

II. 허균의 생애

허균은 선조 3년에 강릉 초당동에서 허엽과 둘째 부인 김씨 사이에서 삼남삼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 학산(鶴山), 성소(惺所), 백월거사(白月居士)이다. 학문은 둘째 형의 벗인 이달에게 시와 글을 익혔으며, 후에 당대 대학자 류성룡(柳成龍, 西厓, 1542~1607)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배웠다. 광해군을 임진왜란 속에서 보필하였고 1594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그해 4월 명나라 사신을 수행하고 되돌아왔다. 1597년 29세에 동인의 초대 당수인 김효원의 딸과 재혼한다. 1602년 원접사 이정구(李廷龜)의 종사관이 되어 명나라 외교관들을 상대하였다. 1604년(선조 37년) 성균관전적(典籍), 수안군수(遂安郡守)가 되었다. 그러나 불교를 믿는다고 암행어사에게 다시 탄핵받아 벼슬에서 사퇴하였다. 1608년(선조 41년) 사신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때 누나인 난설헌(蘭雪軒)의 시를 명나라 문인, 작가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문인들은 허난설헌의 작품성에 찬탄(讚嘆)하여 인쇄하는 비용을 대주기도 하며 특별히 출간하기도 하였다. 1610년(광해군 2년) 전북 익산군 함열 유배소에서 학동들을 데려다 가르치고 글을 써서 1611년(광해군 3년)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64권을 엮었으며, 1612년에는 한글소설 「홍길동전」을 저술하였다. 허균은 당시 「홍길동전」의 저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복인계 인사 유몽인이 「홍길동전」을 외부에 알리면서 그의 작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612년 12월 진주사(陳奏使)에 임명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광해군 때 대북에 가담하여 실세로 활동하였으나 1617년(광해군 10년) 인목대비 폐모론에 적극 가담하였다. 1618년 반역을 도모하려 했다는 기준격의 밀고로 능지처참되었다. 그의 나이 50세 1618년 광해군 10년 되던 해 8월 24일 이었다. 허균은 그의 작품이 모두 인멸(湮滅)될 것을 직감하고 『성소부부고』 등 문집을 직접 장녀의 집으로 옮겨놓았다. 훗날 외손자인 이필진에 의하

여 간행되어 그의 문집과 허난설헌의 문집도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¹⁾

III. 허균의 사상

허균은 무너져가는 왕조의 혼란을 극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그 병폐의 원인을 허위와 형식으로 가득한 주자학의 전통과 사회적 인습으로 보고 그를 타파하려 했다. 그는 유가 출신이지만 스스로 전통적인 유가 사상을 그대로 지키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도교, 불교, 천주교 세 종교에 모두 조예가 있었으며, 결국은 유교, 도교, 불교를 혼성하려 했다.²⁾

허균은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 12편의 논(論)과 3편의 설(設)을 남겼다. “천하의 두려워할 만한 자는 오직 백성뿐이다”라는 구절로 「호민론」(豪民論)부터 시작하여 이 글이 민중에 바탕을 두었음을 밝혔다. 허균은 백성을 단일한 존재로 보지 않고 향민(恒民), 원민(冤民), 호민(豪民)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는 백성의 힘을 크게 인정했는데, 모든 백성을 한 가지로 보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평소에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는 향민(恒民), 불만을 느끼기는 하지만 힘이 없어서 원망이나 하는 원민(冤民), 다른 마음을 품고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엿보다가 때를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풀어보려는 호민(豪民) 세 가지로 나누었다. 허균은 임금의 위를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임금이 있는 것이라며 절대자에게 절대적 충성만 강요하던 당시 사회에서 백성의 존재와 힘을 지배층에게 부각시켰다. 또한 「유재론(遺才論)」에서 “하늘이 재능 있는 사람을 내었는데, 사람이 이를 가문과 과거로 한정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본래 동등한 권리를 타고났다는 그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는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신분은 높은 사람을 발탁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발탁해야 한다고 하였다. 하늘이 인재를 쓰라고 세상에 내었는데, 신분이 낮다고 해서 쓰지 않는 것은 임금의 직무

1) 허경진, (2002), 『허균 평전』, 돌베개, 21-28

2) 김창규, (2022). 李贄와 許筠 사상의 횡단적 보편성. 역사학연구, 236, 238-239

유기라며³⁾ 임금을 위해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임금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러한 사명을 잊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이다. 절대자에게 절대적인 충성만 강요하던 당시 사회에서 백성의 존재와 힘을 지배층에게 부각시킨 것이다. 또한 ‘호민론(豪民論)’은 허균의 위민사상과 사회개혁 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는 천하에 가장 두려워할 만한 자는 오직 백성뿐이라면서, 백성은 물이나 불, 범이나 표범보다도 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윗자리에 있는 자들은 백성들을 제멋대로 업신여기며 모질게 부러먹는다고 당시의 현실을 지적한다.⁴⁾ 즉 한 마디로 신분제 사회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상으로, 조선 사회의 질서와 가치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허균의 대표소설로 잘 알려진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은 호민이었다. 이 소설은 조선사회의 커다란 병폐였던 남성들의 축첩과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사회적 모순을 담고 있다. 유교적 사회의 축첩제도와 적자와 서자의 차별 문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의 억울함을 고발한 것이다. 허균은 자유로운 세계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꿈꿨다. 허균은 그의 꿈을 현실 세계인 조선에서 이루지 못할 줄 알고 소설을 통해서나마 그것을 이루려 했는지 모른다.⁵⁾

IV. 허균의 전 작품 분석

조선 전기 사대부 사회는 주자학을 기반으로 한 유교적 질서와 도덕적 이상을 추구했다.⁶⁾ 집현전과 성균관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은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동문선』과 같은 대규모 문집을 편찬하며 사대부 문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안정된 체제 속에서도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진

3) 허경진, (2002), 『허균 평전』, 돌베개, 305-309

4) 김창규, (2022), 李贄와 許筠 사상의 횡단적 보편성. 역사학연구, 247

5) 김창규, (2022), 李贄와 許筠 사상의 횡단적 보편성. 역사학연구, 248

6) 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한국 고전문학 작품론 1 한문소설』, 휴머니스트, 207

리를 추구하는 ‘이인(異人)’들이 존재했다. 이들은 유교의 틀에서 벗어나거나 그와 대립하며, 도교적 수행, 예지력, 초월적 능력 등을 통해 현실 질서의 부조리를 비판하고, 이상적 세계를 지향했다.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이인의 이야기가 문학 속 상상력과 결합되어 다양하게 형상화되었으며, 허균은 그 중심에 있는 작가다.

허균은 「홍길동전」뿐 아니라 여러 전기 작품에서 이인적 인물을 통해 현실 비판과 이상 추구를 동시에 그려냈다. 「장생전」의 장생은 의협심과 재능을 지녔지만, 사회에 버림받은 인물로, 결국 신선이 되어 이상국을 찾아 떠난다. 이는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면서도 환상적 보상을 통해 이상을 그리는 구조다. 「남궁선생전」에서는 유교 사회와 충돌한 남궁두가 도교적 수련으로 신선을 지향하지만, 결국 인간적 한계로 실패한다. 그는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좌절하는 이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엄처사전」의 엄처사는 유학자로서의 도덕적 수양과 출처관을 갖춘 은둔형 인물로, 현실 정치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유교적 이상을 동시에 담고 있다. 「손곡산인전」에서는 세속을 떠나 시와 학문에 몰두한 스승 이달을 통해, 문학적 이상과 시인의 초탈한 삶을 형상화한다.

이처럼 허균은 이와 같은 당대의 민감한 사안을 소설에서 환상적으로 그려낸 셈이다.⁷⁾ 허균의 전기 작품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현실과 대립하는 이인의 삶을 조명하며, 조선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모색하려는 문학적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체제 바깥의 목소리를 되살리고, 현실 너머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제시한 허균의 작가의식을 잘 보여준다.

1. 「장생전」

허균의 「장생전」은 주인공 장생을 통해 조선 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고발하는 작품이다. 「장생전」의 주인공 장생은 밀양도호부 좌수의 아들이었

7) 민족문학사연구소, (2017), 『한국 고전문학 작품론 1 한문소설』, 휴머니스트, 211

지만, 고자질 때문에 쫓겨나서 비렁뱅이로 전락한 인물이다. 겉으로는 이야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풍류와 재담을 즐기지만, 속에는 큰 뜻을 품은 인물로 그려진다. 장생은 아침이면 저자에 나가서 동냥을 얻었는데 동냥으로 얻은 음식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며 비렁뱅이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또한, 계집종이 소매치기 당한 머리꽃이를 경희루 지붕에서 찾아주고, 물건을 훔치던 두 젊은이에게 당부하는 모습에서 그의 의협심이 부각된다.

이러한 설정은 장생이 의협심이 강하고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비렁뱅이로 지내야 했기에 현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희루에서 만난 두 젊은이에게 당부한 말은 장생이 세상에 대해서 정면 도전할 음모까지 품은 느낌을 받게 하고, 경북궁에다 도적의 소굴을 설정한 것은 광해군이 백성의 재물을 긁어모으는 것을 풍자함과 동시에 장생을 통한 작가와 사회의 대립을 고조시킨다. 장생의 죽음 또한 단순한 사고가 아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더라도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는 없고, 수표교 위에 거꾸러졌으니 실수로 죽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재적인 의미로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분노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장생은 다시 태어나 죽음을 극복하고 이상국가를 찾아나섰다.

장생은 동쪽 바다 가운데 한 섬나라를 찾아가는데 그 섬나라는 그가 소외당하며 살았던 현실 밖의 세계이다. 이는 「홍길동전」의 주인공이 율도국을 찾아 세워 보상받은 서사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장생의 시체가 썩어서 날개 달린 벌레로 날아가 버렸다는 것은 시해선, 즉 신선이 된 것을 가리킨다. 허균은 많은 비렁뱅이들이 추종하던 그가 현실에서 좌절당하지만, 신선이 되어 이상국가를 찾는 것으로 보상받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장생전」은 현실 세계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현실 너머의 이상 세계를 지향하는 이중적 구조를 보여준다. 허균은 장생을 통해 조선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드러내는 동시에 새로운 이상 질서와 인간상을 모색하는 문학적 실험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⁸⁾

8) 허경진, (2002), 『허균 평전』, 돌베개, 217-220

2. 「장산인전」

허균의 「장산인전」은 초월적 능력을 지닌 인물 장산인을 통해 현실의 부조리와 인간 존재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죽음을 매개로 이상세계에 이르는 초월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허균은 장산인의 생과 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죽음을 끝이 아닌 또 다른 서사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

작품은 장산인의 출생과 가계, 귀물(鬼物)의 제압, 신술의 발휘, 사후의 행적이라는 네 단계의 일화로 구성된다.⁹⁾ 장산인은 아버지가 두고 간 〈옥추경〉, 〈운화현추〉라는 책을 보고 귀신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인물이다. 호랑이를 말로 꾸짖자 호랑이가 애걸하고, 이웃이 자신의 집에 나타나는 귀신을 해결해 달라는 청을 받는 등 귀물을 제압할 수 있는 신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그는 죽은 물고기와 꿩을 살리는 등 신이한 능력을 보이며 초월적 존재로 성장한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장산인은 전란 속에서 왜군의 칼에 찔려 죽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죽음이 서사의 종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서사 공간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그는 사후에 친구 정봉을 찾아가 3일 동안 함께 지내고 금강산으로 떠나며,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 활동하는 존재로 보여준다.¹⁰⁾

허균은 이처럼 죽음을 현실과 사후, 그리고 선계(仙界)를 연결하는 서사적 매개로 활용하였다. 장산인의 삶은 ‘생전의 현실담 - 사후의 현실담 - 선계의 동경담’으로 이어지며, 이는 허균이 죽음을 통해 서사 공간을 확장하고 인물의 비범성을 극대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¹¹⁾ 생전에는 귀물을 제압하고 죽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현실의 질서를 초월하고, 사후에는

9) 김진영. (2021). 허균의 한문단편에 나타난 죽음의 서사기법적 연구 - 〈장생전〉과 〈장산인전〉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60(4), 157

10) 김진영. (2021). 허균의 한문단편에 나타난 죽음의 서사기법적 연구 - 〈장생전〉과 〈장산인전〉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60(4), 157-158

11) 김진영. (2021). 허균의 한문단편에 나타난 죽음의 서사기법적 연구 - 〈장생전〉과 〈장산인전〉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60(4), 159

현실 공간에 다시 등장하여 죽음을 넘어선 존재로 그려진다.

또한 「장산인전」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통해 조선 사회의 모순을 비판한다. 장산인은 신선에 가까운 능력을 가졌으나, 제도권 속에서는 그 능력을 펼칠 수 없는 존재로 남는다. 그의 죽음과 사후의 부활은 곧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작가의 정신적 저항이자, 새로운 이상세계를 향한 도교적 상상력의 구현이라 할 수 있다.¹²⁾

결국 허균은 「장산인전」을 통해 죽음조차 극복하는 인간의 초월성을 강조하며, 현실 비판과 이상 추구를 동시에 담아낸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초월로 가는 길이며, 장산인의 사후 행적은 현실을 넘어 자유와 이상을 갈망하는 인간의 정신을 상징한다. 이러한 점에서 「장산인전」은 허균의 사상적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선 후기 고전소설에서 생사 초월 서사의 전통을 여는 교량적 역할을 했다.

3. 「남궁선생전」

허균의 「남궁선생전」은 주인공 남궁두의 몰락과 신선 수련을 통해 인간 존재의 한계와 좌절을 형상화한 작품이다.¹³⁾ 즉,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일사소설(逸士小說)’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남궁선생인 남궁두가 유교 사회와 대립하게 된 이유는 첫 단락부터 밝혀져 있다. 남궁두는 진사에 급제하고 성균관 시험에 장원하여 벼슬 사회에 도전했기에 벼슬 사회의 위계질서를 인정해야 하는데, 자신의 재주를 믿고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굴었으며 관원들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음으로써¹⁵⁾ 작품 초반부터 주인공과 당대 사

12) 김진영. (2021). 허균의 한문단편에 나타난 죽음의 서사기법적 연구 - 〈장생전〉과 〈장산인전〉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60(4), 161

13)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21(0), 137

14) 민족문화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저. (2012).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327

회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기장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주인공과 당대 사회가 처음부터 화해할 수 없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당대 사회와 대립하다가 패배한 그는 옥에서 탈출하여 치상산에 들어가 선술을 수련한다. 그는 신선 수업을 통해서 좌절감을 극복하려 했던 것인데 남궁두는 치상산에서 장로를 만나 죽지 않는 방술을 배우게 되었다. 넷째 날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수련이었지만 다섯째 날 밤이 되자 별안간 깨달음이 있더니 정신이 상쾌해졌고 장로가 기뻐하며 경서 두 권을 꺼내주며 날마다 각각 열 번씩 읽게 하였고 음식을 끊어서 낮은 것부터 배워 높은 데까지 이르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루에 밥을 두 끼만 먹게 했다. 이러하여 남궁두는 3년 동안 두 권을 비결을 만 번씩 읽어 가슴속이 시원해졌으며 3년 동안 숨 자주 쉬는 법과 기운을 움직이는 법을 배워 삶이 윤택해졌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신선이 되는 공부에서 실패했다.¹⁵⁾ 단련한 지 여섯 달 만에 단전이 가득 차면서, 마치 황금 같은 빛이 배꼽 밑에서 나왔는데 남궁두는 자기의 도가 거의 이뤄진 것이 기뻐서, 빨리 크게 이루고픈 마음이 생겨나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수온에 불이 붙어서 이환이 타버렸다. 그는 정성을 다해 신선이 되려고 단련했지만, 결국 승천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지상선이 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성급히 이루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이다. 장로의 말에 의하면 남궁두는 도골이 있는 데다 큰 인내력을 지닌 인물인데도 승천하는 데에 실패했으니, 이 전은 은연중에 사람이 신선이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익산 지방에 전해지는 남궁두의 전설로 그가 신선 수련을 마친 뒤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전설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애쓰다가 비극적으로 죽는 남궁두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숙명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장로는 속세의 연분이 아직도 다 없어지

15)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39

16)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41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했는데 남궁두가 그만큼 현실 세계에 미련이 있다는 뜻이다.¹⁷⁾ 신선이 되려고 하면서도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은 허균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허균은 자신의 내면적 갈등을 작품 속 인물에 투영함으로써,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 존재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특히 「남궁선생전」은 전통적인 전기 형식을 창의적으로 변용하여, 단순한 인물 기록을 넘어 인간의 한계와 좌절, 그리고 그 극복의 의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이 작품은 유교 사회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개인의 자유로운 재능, 그리고 이상 추구 간의 충돌을 사실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당시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았다. 허균은 이를 통해 도덕적 규범을 넘어선 새로운 문학적 표현을 시도했으며, 인간 삶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남궁선생전』은 조선 후기 문학에서 인간 내면과 사회 현실을 아우르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무오년 가을에 남궁두가 일이 있어 급히 시골로 돌아올 제 삼십리를 못 미처서 해가 저물었다. 하인들은 중간에 머물어 쉬게 하고는 홀로 말을 달려 집에 이르렀다. 이미 등불이 켜있고 종들은 모두 쉬는데 중문은 환하게 열려져 있다. 그의 침은 아리따운 화장과 옷차림으로 섬돌 위에 서 있다. 매마침 그의 당질이 동쪽의 낮은 담장을 넘어 발이 거의 땅에 닿자마자 침은 재빨리 그의 허리를 껴안아 내렸다. 그 광경을 본 남궁두는 노여움을 참고 짐짓 조용히 그들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말을 바깥 문기둥에다 매고는 몸을 가만히 틈 사이에 숨긴 채 엿보았다. 둘은 서로 농말을 붙이며 극도로 음탕하여 장차 옷을 벗고 취침하려 했다. 남궁두는 그들의 일이 궁극에 달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바람벽을 슬슬 만졌다. 걸린 활집 속에 활 하나 살 둘이 손에 잡혔다. 그제야 활을 쏘아 먼저 침의 가슴팍을 꿰어 담장에 쓰러뜨리니 그 사내놈은 놀라 일어나 북쪽창을 뛰어넘는다. 또 한 살을 쏘아서 그의 겨드랑이를 맞혀 죽였다.

- 「남궁선생전」 중에서¹⁸⁾

17)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42

18) 민족문화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저, (2012).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328

4. 「엄처사전」

「엄처사전」은 처사의 전형을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입전한 것이라 여겨진다. 여기서 ‘처사’는 국가를 경영할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를 난세로 인식하여 출사를 단념하고 초야에 은둔한 선비들을 지칭한다.¹⁹⁾ 따라서 엄처사의 삶에는 성리학적 세계관과 함께 그들이 처한 16세기 시대상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방향 등이 함축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허균은 엄처사를 통해 진정한 유학자의 삶을 구현하고자 했다.

첫째, 엄처사는 출처관이 뚜렷하다. 처사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처사는 출보다는 처에 치중한 학자이다. 그는 『주역』과 『중용』을 깊이 이해하여 저술한 글들이 모두 하도와 낙서에 서로 부합하였으나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²⁰⁾ 다만 엄처사는 『효경』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서 자신의 도를 행하고, 후세에 이름을 드날려서 부모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구절을 몸소 실천하려고 했던 듯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과거에 나갔던 것이며, 처사는 출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주된 목적은 산림에 처해서 학문·도덕을 수양하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과거에 응시하였다. ²¹⁾ 허균은 이를 통해 출처관의 뚜렷함과 더불어 부모를 핑계로 한 일시적 출사 뒤에는 반드시 분명한 퇴거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김종직이나 남효온 등의 사례와 대비되며, 허균이 엄처사에게 주목한 핵심 이유였다.²²⁾

19)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25

20)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26

21)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27

22)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28

둘째, 엄처사는 효와 경을 실천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그는 집안에 들어가선 효도하고, 밖에 나와선 공손하며, 행실은 삼가고, 말은 미덥게 하며, 널리 대중을 사랑하면서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해야 한다고 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도 충효를 으뜸으로 삼고 명리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사서를 읽으며 성패, 치란, 군자, 소인의 구별을 명확히 하였으며, 무목이나 문산의 죽음을 접하고는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역사적 사실에 강렬히 반응하였다.²³⁾

셋째, 허균은 엄처사가 역사 인식이 뚜렷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엄처사는 제자를 가르칠 때 군자와 소인의 구별을 명확히하고 현실 정치의 시비를 직시하였다고 한다. 엄처사는 제자를 가르칠 때 명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충효만을 가르쳤다. 또 사서를 읽으면 성패, 치란, 군자, 소인을 구별함에 있어서 명확히 판단하고 막힘이 없었다. 이는 모두 국가 차원의 성패와 치란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만들어 가는 것은 군자와 소인이다. 엄처사는 이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비분강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허균은 이러한 엄처사의 역사인식을 높이 평가했다.²⁴⁾

넷째, 허균은 비판하는 글에서 엄처사는 비범한 인물이었음으로 입전한다고 밝히고 있다. 엄처사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단정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또한, 문장으로도 세상에 알려져 조정에서 두 번이나 참봉의 벼슬을 내릴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처사였다. 그가 사망했을 때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면식이 있든 없든 수많은 선비들이 와서 조상하였다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엄처사의 도덕적 수양과 실천이 당대 지식인 사회로부터 널리 인정받았음을 방증한다. 결국, 허균은 「엄처사전」을 통해 엄처사와 같은 인물상을 제시함으로써 참된 儒者의 삶을 구현하고자 하였다.²⁵⁾ 이는 단순한 개인의 전기 서술

23)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28-129

24)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31

25)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31

을 넘어, 당대 현실의 병폐를 비판하고 유학적 이상을 제시하려는 허균의 작가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손곡산인전」

「손곡산인전」은 허균에게 시를 가르친 스승 이달(1539-1618)에 대한 인물전이다. 먼저 허균은 손곡의 시풍을 극찬한다. 그의 시는 이백에 근본을 두고, 왕유·유장경의 풍격을 겸비하였으며, 그 기운은 다사롭고 지취가 뛰어났다. 표현은 온화하고 맑으며, 음악적 조화가 뛰어나 신선의 경지에 비유될 정도였다. 허균은 이를 풍부한 미사여구로 묘사하며, 손곡의 시가 당풍을 계승한 독자적 미학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손곡이 허균의 시를 평하는 것은 매우 매섭게 평했던 것 같다.²⁶⁾ 이는 조선 시단의 일반적 경향과는 차별화된 점이었다. 그러나 사제 관계 안에서 시에 대한 평가가 항상 일치했던 것은 아니다. 허균의 척독에 따르면, 손곡은 허균의 고시는 예스럽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밖의 문장이나 시는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허균은 이를 수긍하지 않았다. 허균은 “저는 나의 시가 당시나 송시와 같다는 평보다는 남들이 허균의 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다.”라고 하며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허균이 작사하는 안목과 손곡의 시평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 문학적 견해에서 큰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손곡산인전」의 입전의식을 정리하자면 첫째, 학문에 대한 노력과 그 결실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손곡은 당시에 몰두하며 날을 새거나 온종일 무릎을 꿇지 않는 노력으로 당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또 지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²⁷⁾

한문고전연구, 21(0), 131-132

26)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33

둘째, 허균은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의 송고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이달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그의 남다른 재주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곡은 남다른 재주 때문에 시기나 질투는 당할지언정 명성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손곡이 지닌 시인의 송고미였으며 허균은 이를 입전하고자 했던 것이다.²⁸⁾

셋째, 손곡은 세속을 초탈한 삶을 살면서 불후의 명작을 남겼으므로 입전한 것이다. 손곡은 도연명(365-427)이 입전한 오류선생전과 같이 형해에 얽매이지 않고 유유자적하며 살았다. 또한, 손곡은 뛰어난 시적 재능을 지녔다. 외사사의 평론자료를 분석해 보면 허균은 손곡의 뛰어난 시적 재능과 노력, 시인으로서의 송고미, 현세를 초탈한 시인의 삶을 입전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²⁹⁾

결국, 허균은 「손곡산인전」을 통해 손곡의 탁월한 시적 재능과 학문적 노력, 시인으로서의 송고한 정신, 세속을 넘어선 초탈적 삶을 입전하였다. 이는 단순히 한 인물을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허균 자신이 지향한 시적 이상과 문학관을 반영한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³⁰⁾

V. 허균의 문학사적 위치

허균은 기존의 유교적 예교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 대표적 문인이었다. 그는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성장기에 아버지, 형 허봉, 누이 허난설헌, 아내와 아들까지 잃으며 비극을 겪었다.

27)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34

28)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35-136

29)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36-137

30)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37

이러한 개인적 상처는 그가 사회 규범을 벗어난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는 배경이 되었다. 관직에 올랐으나 여러 차례 파직을 당한 것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감정 해방을 긍정하며 기존 질서에 저항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분과 계층을 초월해 불우한 서얼들과 교류했고, 늘 약자의 편에 서려했다. 결국, 50세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했으나, 그의 삶은 끝까지 '사대부 울타리' 밖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 아웃사이드적 행보였다. 그가 영향을 받은 인물로는 서얼 출신 시인 손곡 이달, 불우한 문인 전오자·후오자 등이 있으며, 역사적 인물 중에는 이태백·도연명·소동파 같은 자유정신의 시인들을 존경했다. 허균이 남긴 저작들 『성소부부고』, 『성수시화』, 『학산초담』, 『국조시산』, 『홍길동전』 등은 모두 당대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리학자들이 문학을 도덕과 이법 실현의 도구로 여긴 반면, 허균은 문학을 개성과 정감을 드러내는 통로로 보았다. 그는 일상어 사용을 강조하며, 낡은 표현을 답습하는 것을 거부했다. 따라서 “옛 누구와 같다”는 칭찬보다 “허균다운 시”라는 평가를 선호했다. 허균은 공정하고 개방적인 비평가였다. 신분이나 친소 관계와 무관하게 작품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시격이 떨어진다고 본 송대 시를 배격하는 대신 민중이나 하층 계급의 시에도 주목했다. 그의 시화집 『학산초담』, 『성수시화』, 시선집 『국조시산』은 중국과 한국의 시를 두루 평론한 귀중한 자료다. 특히 그는 “개성적 창의성”을 중시하는 근대 지향 문학관을 펼쳐 보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전환을 이끌었다.

시가 송에 이르러서는 가히 망했다 하겠다. 송대의 작가들은 모두 의를 다 하기를 좋아해서 용사를 이끌어 쓰는 데 힘쓰고 어렵게 운자를 맞추느라 애써서 스스로 시격을 상하게 하였다.

- 「송오가시초서」

박운의 시가 비록 정성은 아니지만 엄밀하고 굳세다. ‘봄그늘에 비가 오려 하니 새가 서로 말하고 늙은 나무는 바람이 불지 않아 스스로 슬퍼한다’ 라는 시구는 당시의 섬세함을 배운 자인들 어찌 감히 그 보루를 깎아 내리겠는가.

- 「성수시화」

허균은 광해군 시대에 역적으로 처형되었지만, 그를 역적으로 규정할 근거는 단순하지 않다. 허균의 글과 시는 죽은 후 대부분 사라지거나 감춰졌고, 남아 있는 자료도 이름이나 성을 바꿔 전해졌다. 예를 들어, 『국조시산』, 『한정록』, 『홍길동전』만이 온전히 전하며, 다른 작품들은 부록 형태로 전해졌거나 저자 표기를 조작하였다. 또한, 야사나 민간 기록에서 허균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비방적이었으며, 그의 시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이었다.

허균은 성리학 규범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고, 유교적 질서를 벗어난 행동 때문에 비난받았다. 그러나 이는 당대 사회 규범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동이었으며, 오늘날 시각에서 보면 단순한 죄목으로 환원하기 어렵다. 그는 기생과 동침한 사실,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실 등으로 경망하다고 평가되었으나, 이는 사회적 규범을 위반했을 뿐, 도덕적 죄악과 동일시할 수 없다.

허균은 사회 구조의 불합리와 서얼 등 소외 계층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상 사회를 꿈꾸며 개혁적 시도를 했다. 광해군 시기 폐비론을 내세우고 서얼과 무사, 승군까지 동원하여 권력 구조를 개혁하려 한 계획은 불완전하나, 그의 목적은 사회 정의 실현과 민중 주도 변혁에 있었다. 따라서 허균을 단순히 역적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당시 사회와 맞서고 시대를 앞서간 혁명가적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허균은 현실의 모순과 인간의 한계를 문학을 통해 생생하게 드러내고, 이를 초월하려는 의지를 작품에 담아냈다. 『장생전』은 몰락한 양반 자체 장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사회 구조의 부조리와 소외 계층의 삶을 고발한 작품이다. 장생은 비렁뱅이로 전락한 후에도 탁월한 재주와 의협심으로 거지들 사이의 지도자가 되며, 경복궁을 도적의 소굴로 설정하는 대목은 당대 권력 구조에 대한 통렬한 풍자를 담고 있다. 그는 현실 속에서는 죽음을 맞지만, 신선이 되어 이상국가를 찾아가는 결말은 허균이 꿈꾸던 유토피아적 사회 개혁의 문학적 표현으로 읽힌다. 또한 『남궁선생전』에서는 현실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인물 남궁두가 인간의 숙명적 한계를 절감하고, 결국 지상선으로 만족해야 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는다. 이는 유교 질서 속에서 능력보다 신분이 중시되던 시대의 모순을 비판하며, 동시에 인간이 현실을 넘어 이상을 지향할 때 부딪히는 한계를 드러낸다.

남궁두의 고난은 허균 자신이 체험한 삶의 부조리와 이상 사이의 갈등을 투영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비판적 시각은 스승 속곡 이달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깊어졌다. 서얼 출신으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이달의 삶은 허균에게 신분제의 모순을 직시하게 했으며, 허균은 이를 바탕으로 『손곡산인전』을 집필하였다. 이 작품은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서얼 문인의 현실을 보여주며, 허균 자신의 사회적 문제의식과 문학적 관점을 대변한다. 허균은 이달과의 교류를 통해 단순한 신분 비판을 넘어, 사회의 본질적 개혁에 대한 사유를 문학으로 확장시켰다.

이처럼 허균의 전기 소설들은 단순한 허구를 넘어,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 인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아낸 기록이다. 그가 문학을 통해 드러낸 현실 고발과 이상 추구는, 서얼 문인으로서의 정체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결국 ‘역적’이라는 낙인이 아닌, 시대를 앞선 사상가이자 실천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허균의 한문단편은 전반적으로 도교적인 사상이 가미되어 허구성도 강화되어 있다.³¹⁾ 또한, 재도지기의 문학을 지향했던 대부분의 문인과 달리, 자유로운 정감의 발산을 중시하는 개성적 문학 시대를 열었다. 그의 문학적 성취 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의 창작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일상어를 문학 언어로 사용하고 우리말 문학에 대한 애정을 담으며, 소설 문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비록 구체적인 현실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민중을 역사 발전의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허균은 전통적인 한문학의 산물인 ‘전’을 소설화했다는 점에서도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여주었다. 그가 남긴 다섯 편의 전 대부분은 소설적 표현과 문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상적 지향과 자아 및 세계의 갈등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그의 시화

31) 김진영. (2021). 허균의 한문단편에 나타난 죽음의 서사기법적 연구 - <장생전> 과 <장산인전>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60(4), 151-177.

와 시선집에는 당시 민중들의 시도 다수 포함되었으며, 이들의 시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허균의 민중 지향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으로, 그는 ‘지독적이고 창의적인 시’를 우선적으로 평가하며 신분이나 인간적 친소 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허균은 뛰어난 소설가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시인이자 시 비평가였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는 개성과 창의를 중시하는 시를 창작하고 평가했으며, 그 과정에서 민중들의 시도 관심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허균은 조선 전기의 도학주의적 문학에서 벗어나 자기의 개성과 변화하는 시대 현실을 문학에 담으려 노력하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를 조선 전기 문학을 마감하고 조선 후기의 개성적이고 사실적인 무학의 개막을 알린 문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³²⁾

VI. 맺는 말

허균은 조선 중기라는 유교 중심의 사회 속에서, 당대 질서에 순응하기보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비판한 인물이었다. 그는 사대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분제의 모순과 인간에 대한 억압을 지적하며, 서열·민중·이인(異人) 등 소외된 존재들에게 문학적 목소리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그의 전기 작품들과 「홍길동전」을 비롯한 창작물에 두루 나타나며, 허균이 단지 파격적인 사상가에 그치지 않고 문학을 통해 새로운 사회와 인간상을 꿈꾸었던 이상주의자였음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를 통해 허균의 생애와 사상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의 주요 전기 작품들을 분석함으로써, 허균 문학의 핵심적 특징인 ‘현실 비판과 이상 추구의 이중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장생전」, 「장산인전」, 「남궁선생전」, 「엄처사전」, 「손곡산인전」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당대 질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사

32) 민족문화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저. (2012).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382

는 단순한 문인 전기를 넘어 조선 후기 사회의 모순을 직시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비전을 담은 실험적 작품들로 평가할 수 있다. 허균의 문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그것은 체제 밖에서 진리를 탐색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에서 세계를 다시 구성하려는 실천적 지식인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은 과거 조선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의 교육과 문학, 나아가 민주주의적 가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허균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문학사적 위치를 넘어,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성찰과 비판, 그리고 상상력의 모델로서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VII. 참고 문헌

1. 허경진, (2002), 『허균평전』, 돌베개, 21-309.
2. 이규운, (2010). 허균(許筠)이 지향하는 삶 -허균(許筠) 「전(傳)」을 중심으로 -. 한문고전연구, 21(0), 125-142.
3. 민족문화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저. (2012). 한국 고전문학 작가론. 소명출판, 328-332.
4. 민족문화사연구소, (2017), 『한국 고전문학 작품론 1 한문소설』, 휴머니스트, 207-211.
5. 김진영, (2021). 허균의 한문단편에 나타난 죽음의 서사기법적 연구 -〈장생전〉과 〈장산인전〉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60(4), 157-177.
6. 김창규, (2022). 李贄와 許筠 사상의 횡단적 보편성. 역사학연구, 236-248.

R코딩 텍스트마이닝과 생성형 AI 텍스트마이닝의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 연구논문 초록 텍스트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

한국어데이터분석연구반(지도: 박선우 교수님)
안재은, 이유진('23)
김도이, 이다현('24)

1. 머리말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최근 ChatGPT, Gemini와 같은 생성형 AI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AI가 기존에 있는 분석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의 주요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의 텍스트 분석 능력을 코딩을 통한 텍스트마이닝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가운데 '문법교육'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논문 653편의 국문 초록 텍스트를 대상으로, R프로그래밍 코딩을 통한 텍스트마이닝과 생성형 AI 모델의 프롬프트 입력을 통한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R코딩을 통해 국문 초록에서 명사를 추출한 후 각 단어의 출현빈도를 산출한 결과, 생성형 AI가 전처리된 데이터 프레임과 원시텍스트를 각각 분석하여 단어의 출현빈도를 산출한 결과를 비교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했을 경우 상위 20개 명사 추출과 시각화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원시텍스트를 입력했을 경우 AI가 형태소 분석과 불용어 처리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AI가 데이터 형태와 입력 조건에 따라 보이는 분석 정확도와 한계를 확인하고, 전통적 R코딩 기반 텍스트마이닝과의 차이를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초록에 함께 등장하는 명사들 사이의 파이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R코딩과 생성형 AI의 텍스트 네트워크 소시오그램 작성 능력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이후 R코딩을 통해 텍스트 파일을 대상으로 한 LDA 토픽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성형 AI가 실제 텍스트마이닝 과정에서 어느 수준의 분석 능력을 보이는지, 전통적 코딩 기반 분석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1.2. 연구 방법

‘문법교육’과 관련된 논문 초록을 대상으로 R프로그래밍 기반 텍스트마이닝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의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였다. 먼저, R프로그래밍을 통해서는 빈도분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토픽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빈도분석에서는 자연어처리 라이브러리를 통해 초록 텍스트에 대한 형태소를 자동 분석하고, 그 중 일반 명사와 고유명사를 추출한 후 출현빈도가 높은 명사를 도출하였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동일한 초록에 동시 등장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들의 출현빈도를 바탕으로 파이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단어 간 연관성을 시각화한 파이계수 네트워크 소시오그램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을 진행하고,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추출된 토픽 관련 명사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동일한 초록 데이터에 대해 두 가지 방

식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입력하였다. 첫째, 텍스트 파일의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 프레임 파일을 생성형 AI(ChatGPT 5, Gemini 2.5, Claude 4.5)에 제공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R코딩을 통하여 추출한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를 입력하여 빈도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처리된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하여 파이계수 네트워크 작성 또한 진행하였다.

둘째, 전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초록 원문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세 가지의 생성형 AI에 입력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초록 원문과 불용어 목록을 제공하여 생성형 AI가 자체적으로 형태소 분석, 불용어 처리, 명사 추출 및 빈도분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명사, 동사, 형용사 간의 공출현빈도를 측정하고 파이계수 네트워크 소시오그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생성형 AI의 텍스트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길완제 외(2024), 심유리(2025)를 참고하였다. 이들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길완제 외(2024)는 ‘기업교육과 인제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와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시기별 연구 동향과 주요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OpenAI API를 활용하여 한글 초록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추출하였으며, HRD 분류 및 연구 방법 분류를 수행하였다. 또한, KoNLPy와 sklearn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연대별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후 한글 논문 제목과 초록을 추출하여 LDA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생성형 AI 답변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요약 품질에 대해 공동 저자 2인이 토론을 통해 5점 리커드 척도로 평가하였다. ‘GPT-3.5-turbo’ 모델의 API를 사용해 연구논문들의 초록을 분류 기준에 맞게 요약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대부분 5점을 기록하여 생성형 AI의 답변 품질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토픽모델링이 기존의 전통적인 연구 방법과 결합되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주

었다. AI 기반 분석의 강점은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지만, 연구자의 프롬프트 설계와 데이터 품질에 크게 의존하며, 결과 해석에는 여전히 연구자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AI와 인간 연구자의 협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심유리(2025)는 고객의 숨겨진 니즈, 표현,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실험은 감정의 기복이 큰 40-50대 기혼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클로바노트를 활용하여 텍스트 파일로 생성하였다. 다양한 프롬프트를 적용할 경우에 어휘 검출 정확도가 더 높고, 어휘를 더 많이 찾아낼 가능성이 있는 쿼리를 생성형 AI 실험 도구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데이터에서 감정 어휘를 추출하고 긍정, 부정, 중립으로 분류하여 빈도와 감정 유발 요인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프롬프트 설계는 감정 어휘 유형(제1유형: 단일어, 제2유형: 복합어, 제3유형: 신체·색채 연관 표현)을 구분하고 긍정과 부정을 나누어 요청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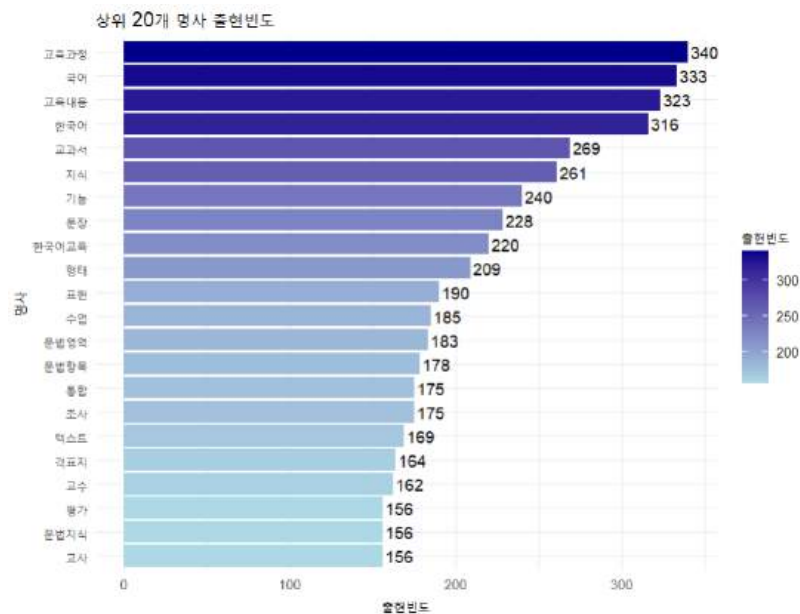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생성형 AI는 심층 인터뷰 데이터의 감정 어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부정적 감정의 탐지와 원인 추출에 강점을 보여 고객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거나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반면, 긍정적 감정과 복합 감정 어휘를 세밀하게 인식하는 능력은 아직 미흡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I 분석과 평가자의 검토를 병행하는 협업형 프로세스(Human-in-the-Loop)를 제안하였다.

3. R코딩 vs. 생성형 AI

3.1. 빈도분석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위 20개 명사의 출현빈도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빈도를 기록한 단어는 ‘교육과정’(340회)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법 교육 연구가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어 ‘국어’(333회)가 2위를 차지하여 문법 교육의 본질적 탐구 대상을 알려주고 3위인 ‘교육내용’(323회)은 문법 지식을 넘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한국어’(316회)가 상위권에 위치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교과서’(269회)가 그 뒤를 이어 교육 내용 전달의 핵심 매체로서 교과서 분석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1]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R코딩)

앞서 도출한 R코딩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생성형 AI 모델, Claude(4.5), ChatGPT(5), Gemini(2.5)의 텍스트마이닝 수행 능력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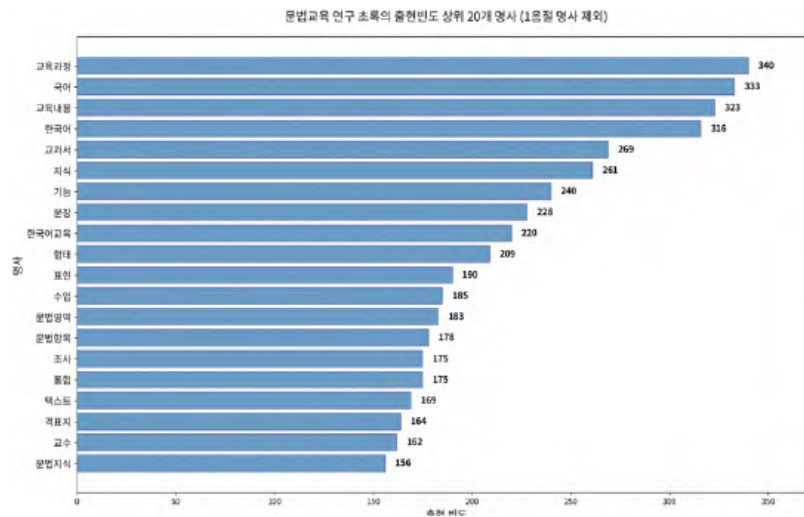
분석해 보았다. 연구는 전처리된 데이터 분석, 원본 텍스트 분석, 불용어 처리 프롬프트 적용의 3단계로 진행되었다.

R코딩을 통해 형태소 분석과 정제가 완료된 데이터 파일(term_nn_filtered.csv)을 세 가지 생성형 AI 모델에게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빈도분석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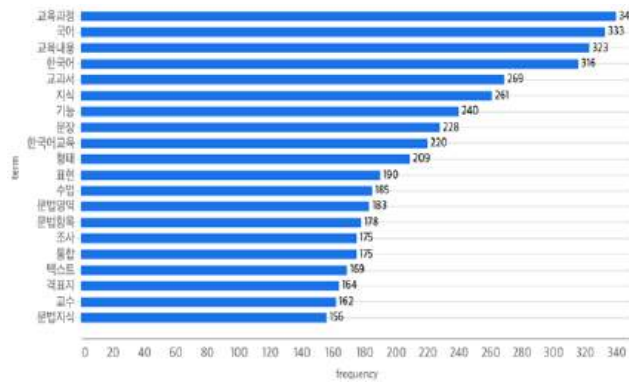
(1) 빈도분석 요청 프롬프트 (데이터 프레임 파일 업로드)

“첨부된 파일(term_nn_filtered.csv)은 653편의 초록으로부터 일반명사와 고유명사를 추출한 csv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포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20위 단어들의 막대그래프를 작성해 주세요. 막대그래프를 작성할 때에는 빈도를 레이블링해 주세요. 다만 1음절 명사는 제거해 주세요.”

Claude AI, Gemini는 별다른 오류 없이 R코딩 결과와 동일한 상위 20개 단어를 추출하고, 빈도수까지 정확하게 시각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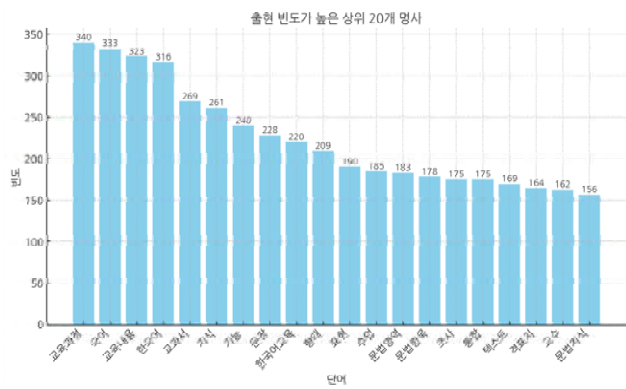


[그림-2]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Claude 4.5)



[그림-3]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Gemini 2.5)

다음으로 ChatGPT의 경우 데이터 분석 자체는 정확하게 수행하였으나 시각화 과정에서 한글 폰트 깨짐 현상이 발생하였다. ChatGPT는 내부 환경에 한글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외부 라이브러리 검색 및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직접 한글 폰트 지원 라이브러리인(koreanize_matplotlib-0.1.1-py3-none-any.whl)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를 설치하여 실행하도록 코드를 유도함으로써 시각화 오류를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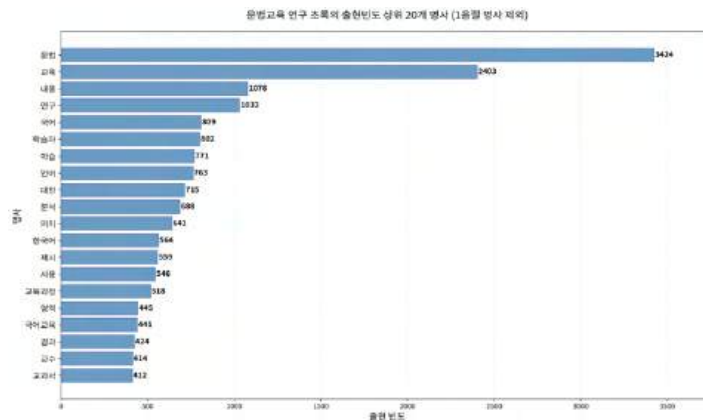
[그림-4]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ChatGPT 5)

AI의 자체적인 데이터 정제 및 형태소 분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전처리를 거치지 않은 653편의 국문 초록 원본 텍스트 파일(clean_text.txt)을 제공하고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분석을 요청하였다.

(2) 빈도분석 요청 프롬프트 (원시텍스트 파일 업로드)

“첨부된 파일(clean_text.txt)은 653편의 초록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20위 단어들의 막대그래프를 작성해 주세요. 막대그래프를 작성할 때에는 빈도를 레이블링해 주세요. 다만 1음절 명사는 제거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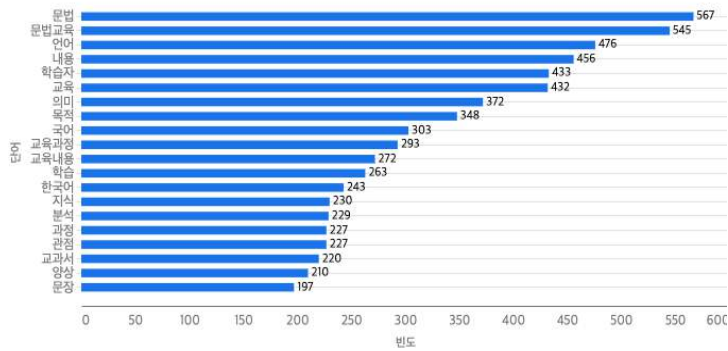
Claude AI는 특별한 기술적 오류 없이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R코딩과 같은 정교한 형태소 분석보다는 단순 빈도 추출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



[그림-5]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Claude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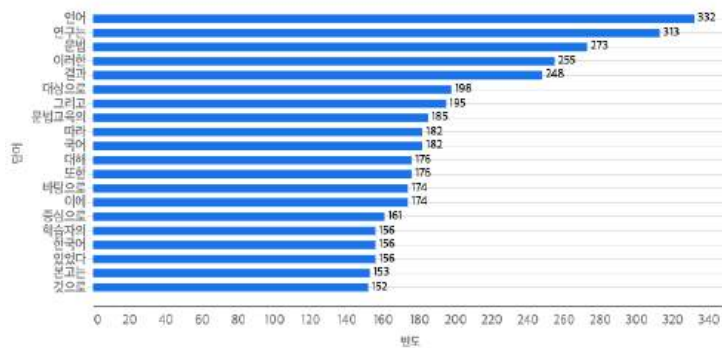
다음으로 Gemini는 처음에는 Gemini 내부 환경에 형태소 분석기가 없어 요구한 프롬프트를 수행할 수 없다 해서 형태소 라이브러리를 제공했지만, 외부 라이브러리 다운로드가 불가능하여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며 질문하자 자체적인 텍스트 처리 알고리즘을 가동해 프롬프트를 수행해냈다.

출현빈도 상위 20개 단어 (1음절 및 불용어 제외)



[그림-6]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Gemini 2.5)

출현빈도 상위 20개 단어 (1음절 명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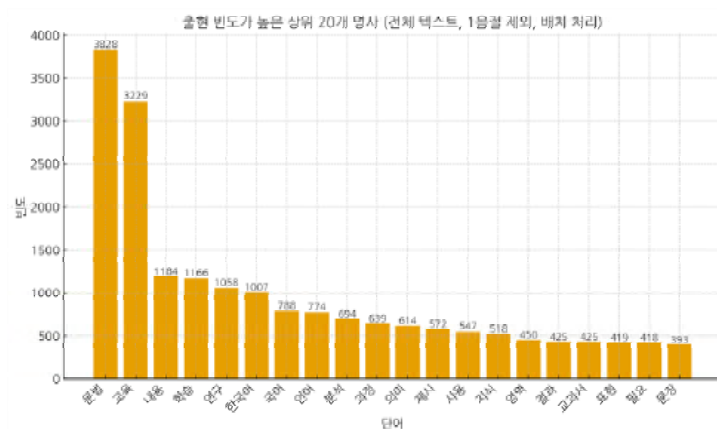


[그림-7]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Gemini 2.5)

Gemini는 프롬프트에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자체적으로 판단해 ‘은/는/이/가’와 같은 조사와 ‘하다’, ‘있다’, ‘것’ 등 일반적인 기능어를 불용어로 분리해 제외한 막대그래프를 함께 제공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ChatGPT는 원본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기술적 한계를 드러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단계의 조치가 필요

하였다. 우선 한국어 텍스트 분석에 필수적인 KoNLPy 또는 Kiwi 라이브러리가 기본 환경에 탑재되어 있지 않아 분석을 시작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ChatGPT에 kiwipiepy 라이브러리 파일과 학습 모델인 'kiwipiepy_model'을 업로드해 주었다. 또한, 653편의 초록 텍스트 분량이 많아서 한 번에 형태소 분석을 시도할 경우 메모리 초과나 시간제한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텍스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대신 kiwi.tokenize 함수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문단 단위로 분할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였다.



[그림-8]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ChatGP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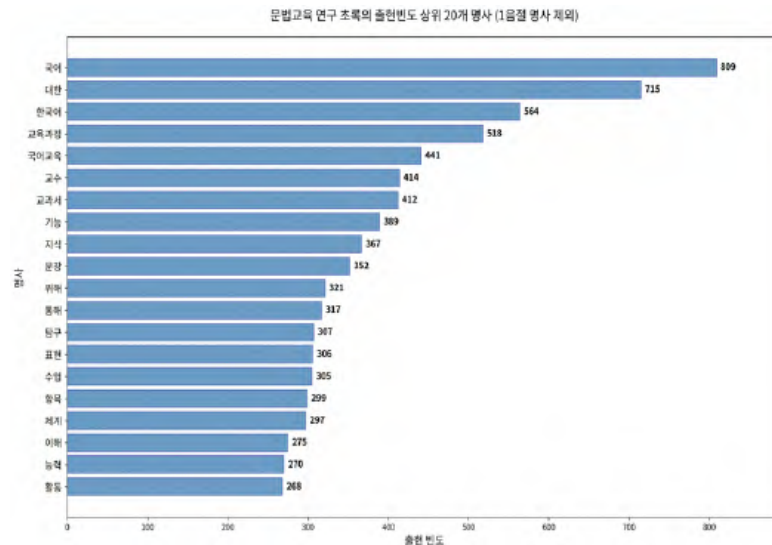
위의 초록 원본 텍스트 빈도분석 결과에 R코딩 과정에서 사용한 불용어 목록을 더하여 재분석을 요청하였다.

(3) 다음의 불용어 단어들은 제외하고 그래프를 다시 작성해 주세요.

반면, 마지막, 까지, 경우, 동안, 고려, 첫째, 둘째, 셋째, 활용, 선행, 정도, 다양, 방식, 관심, 주요, 지적, 성과, 참고, 기대, 개별, 관여, 구성, 중요, 토대, 요구, 쟁점, 결론, 근거, 주장, 인식, 학습, 방안, 자료, 양상, 구체, 개념, 확인, 영역, 양상, 언어, 학습자, 과정, 대상, 본고,

목적, 중심, 필요, 문법, 문법교육, 연구, 교육, 내용, 의미, 사용, 결과, 분석, 제시, 관련, 논의, 수정, 제안, 수용, 제언, 절차, 시간, 적극, 자체, 작성, 대응, 연구자, 선택, 관점, 검토, 수준, 가치, 현, 위상, 인간, 적극, 생산, 유사, 보완, 동일, 대안, 의도, 실제, 의의, 적용,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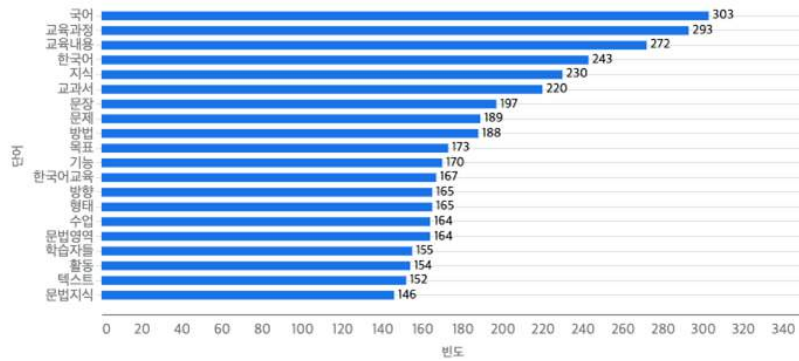
Claude AI는 주어진 불용어 목록을 제외한 빈도분석 결과를 수행해냈다. 다만 불용어로 처리될 만한 ‘대한’, ‘위해’, ‘통해’ 등의 단어가 막대그래프에 반영되어 있었다.



[그림-9]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Claude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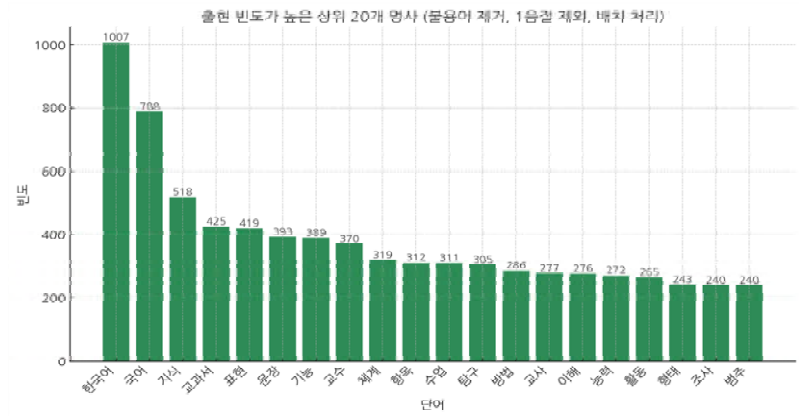
다음으로 Gemini는 사용자가 입력한 불용어 목록을 반영함과 동시에 모델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불용어까지 합쳐서 처리 해내는 양상을 보였다. R 코딩 결과(‘교육과정’ 1위)와 달리 출현빈도가 높은 단어는 ‘국어’ 1위, ‘교육과정’ 2위로 바뀌었다.

출현빈도 상위 20개 단어 (사용자 불용어 제외)



[그림-10]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Gemini 2.5)

마지막으로 ChatGPT는 주어진 불용어 목록을 제외한 빈도분석 결과를 수행해 내었다. 다만 Claude AI와 동일하게 불용어로 처리될 만한 ‘항목’, ‘형태’, ‘범주’ 등의 단어가 막대그래프에 반영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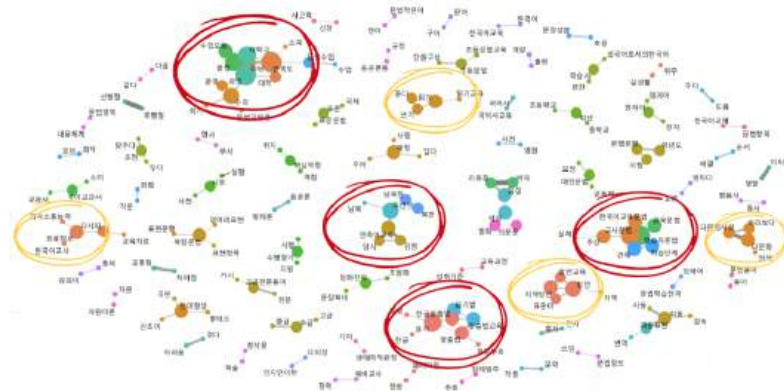


[그림-11] 출현빈도가 높은 상위 20개 단어 (ChatGPT 5)

총 3단계의 빈도분석 비교 결과 생성형 AI는 전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를 다룰 때는 R코딩을 대체할 만큼 정확한 분석과 시각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다음으로 R코딩을 통해 653개 초록에서 추출한 명사, 동사, 형용사의 파이계수 네트워크를 살펴보겠다. 네트워크가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파이계수 임계값을 0.35로 설정하였다. 공출현빈도 데이터를 네트워크 그래프 데이터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12] 명사, 동사, 형용사 파이계수 네트워크 (R코딩)



[그림-13] ‘대학교-문법수업(강의)-수업모형-플립드러닝’ 네트워크

연결 중심성이 높은 주요 단어들인 사용된 원문을 통해 단어들인 어떤 맥락에서 함께 사용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대학교-문법수업(강의)-수업모형-플립드러닝’이 연결된 군집이다. 대학 문법교육에서 플립드러닝 수업 설계라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4) ‘대학교-문법수업(강의)-수업모형-플립드러닝’ 네트워크 관련 텍스트 원문

대학 문법교육에서 플립드러닝 수업 설계라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 단어들인 쓰인 원문을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 불리는 세대를 교육함에 있어 전통적인 강의 방식을 더 이상 고수할 수는 없다는 자각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몇 년 전부터 교육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플립드러닝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본고의 목적은 대학 학부 전공 과정의 국어문법론 수업에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교수법을 적용하여 이 교수법이 학습자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문법수업의 예를 보여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대학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정확성을 기반으로 한 유창한 문법사용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학습자 중심의 출력 활동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플립드러닝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실험하여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교 학부에 개설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문법수업에 있어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교수법을 접목한 교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등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강의 중심 수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대안으로 학습자 중심의 플립드러닝 수업 모형을 적용하는 연구를 반영되어 있다. 또한, 한국어 초급 학습자나,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14] ‘남북한-조선어-민족어교육’ 네트워크

두 번째로 ‘남북한-조선어-민족어교육’이 밀집된 군집이다. 남북한 문법교육 비교로 요약할 수 있다.

(5) ‘남북한-조선어-민족어교육’ 네트워크 관련 텍스트 원문

‘이 논문에서는 조선어문 선택 교과로서의 [문법] 교과서와 남북한 문법교과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조선어 문법교과서에 나타난 남북한의 국어문법의 영향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목적은 남북한의 최신 교육과정을 토대로 남북한 초등학교문법교육내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옛 소련에서 1939년 민족어교육이 금지되고 1940년대 말 민족어교육이 다시 부활되면서...’, ‘문법교육에서의 어문규범 교육은 규범 언어를 잘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규범 언어의 변화 가능성을 인지하고... 남북한맞춤법이 지닌 각각의 가치를 이

에서의 어문규범은 문법교육의 통합적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문규범에서 한글맞춤법으로 대표되는 표기의 원칙은 규범적인 문법과 사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이 연구의 목표는 한글맞춤법과 관련하여 문법교육에서 학습자에게 길러주어야 할 능력을 ‘한글맞춤법 이해력’으로 설정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맞춤법을 지식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내용, 맞춤법을 탐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 맞춤법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되어야 함을 규명하였다.’,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맞춤법교육은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교과서에서도 매 단원마다 문법과 어휘력, 맞춤법 능력 확장을 위한 익힘문제 활동을 배려하여 평소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 암기를 지양하고 귀납적 발견으로서의 맞춤법교육을 지향하며, 셋째, 표기법을 넘어 어휘력 신장에까지 맞춤법교육의 지평을 확장할 것과...’, “원형을 밝히어 적어야 할 경우’에 대한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으며...올바른 표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사고할 수 있고, 나아가 현재의 한글맞춤법 규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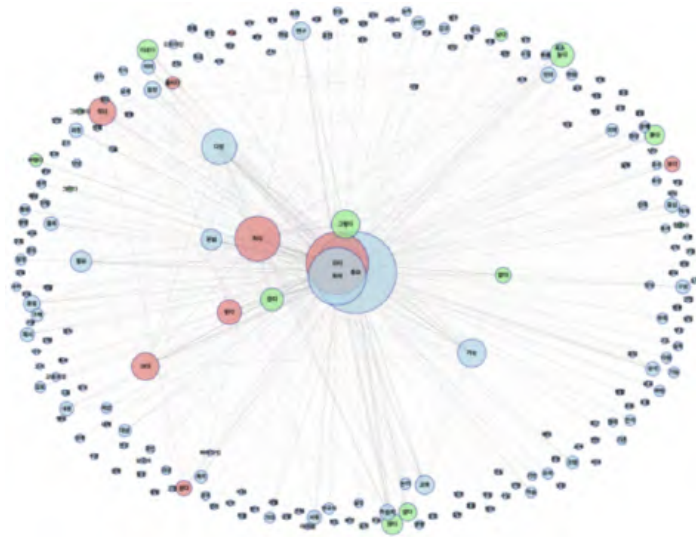
이 단어들에 함께 등장하는 초록들을 보면 단순한 규칙이나 암기 중심교육을 넘어, 학습자가 규범 지식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 방향이 드러난다. 즉, 맞춤법과 문법 지식을 통합하고 표기와 발음의 관계를 고려한 학습 활동을 구성하여, 학습자가 올바른 표기와 문법을 실제 글쓰기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통하여 텍스트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단어의 공출현빈도를 분석한 데이터를 첨부하여 세 가지 AI에게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였다.

(7)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요청 프롬프트(데이터 프레임 파일 업로드)
 ‘첨부된 파일(pair_abstract.csv)은 653편의 초록을 분석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은 동일한 초록 텍스트 안에서 짝지어진 두 개의 단어(item1, item2)가 함께 등장하는 빈도(n)를 측정한 csv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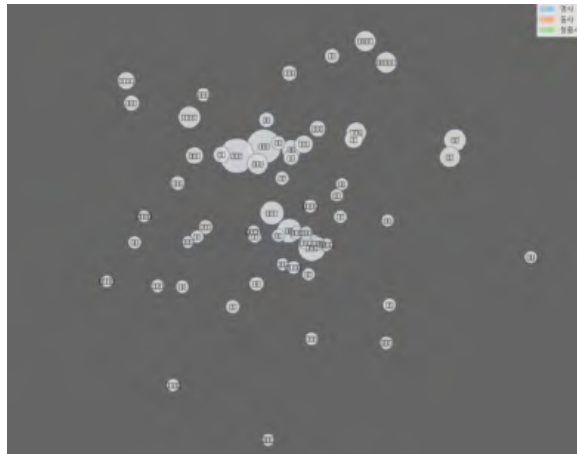
일입니다. 이 파일에 포함된 명사, 동사, 형용사 단어의 공출현빈도를 바탕으로 ‘파이계수 네트워크’ 소시오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참고로 파이계수가 0.35 이상인 단어들만 포함시켜서 소시오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실행 결과, 세 가지 AI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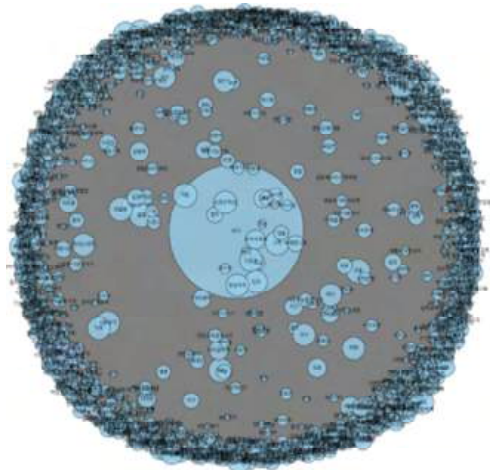
[그림-16] 명사, 동사, 형용사 파이계수 네트워크 (Claude 4.5)

Claude AI의 경우, 중앙 영역에 노드들이 겹쳐 구분하기 어려웠다. 연결선이 혼잡하고 노드가 테두리에 밀집되어 있어 핵심 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분석하는데 불필요한 고빈도 단어 ‘되다’, ‘하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17] 명사, 동사, 형용사 파이계수 네트워크 (ChatGPT 5)

ChatGPT의 경우, 우측 상단 범례를 보면 명사, 동사, 형용사 별로 색을 구분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동일한 회색빛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노드 글꼴이 깨져 어떤 단어인지 알아볼 수 없었고 연결선이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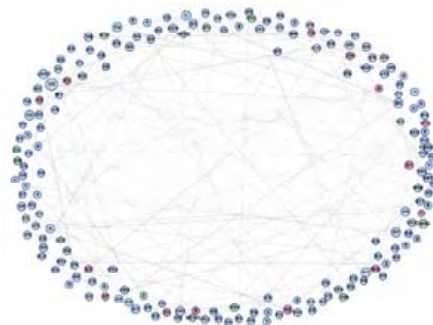
[그림-18] 명사, 동사, 형용사 파이계수 네트워크 (Gemini 2.5)

Gemini의 경우,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두 가지를 이유로 프롬프트를 자체적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로 명사, 동사, 형용사의 파이계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각 단어의 개별 출현빈도가 필요하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도분석에 사용되었던 명사의 개별 빈도 파일을 바탕으로 명사들 사이의 파이계수만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파이계수 임계값을 0.75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임계값을 상향 조정했음에도 노드 수가 많아 핵심 구조를 파악할 수 없었다. 또한 명사만 분석하겠다고 했음에도 동사인 ‘되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653편의 초록 텍스트 파일을 첨부하여 AI 3종이 분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동일하게 입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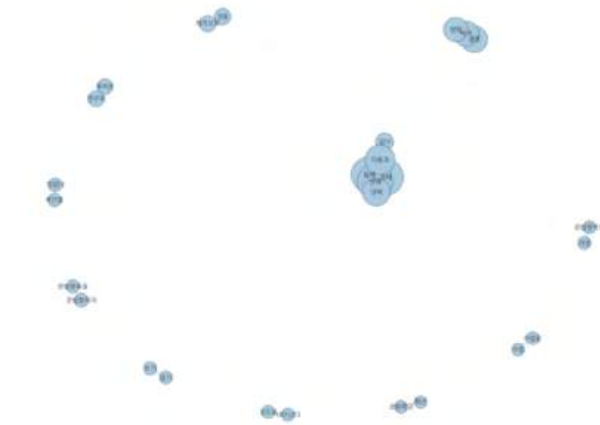
(8)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요청 프롬프트 (원시텍스트 파일 업로드)
 ‘첨부된 파일(clean_text.txt)은 653편의 초록 텍스트 파일입니다. 이 파일에 포함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일한 초록 텍스트 안에서 함께 출현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 가운데 두 개의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공출현빈도를 측정하고, 공출현빈도를 바탕으로 ‘파이계수 네트워크’ 소시오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참고로 파이계수가 0.35 이상인 단어 들만 포함시켜서 소시오그램을 작성해 주세요.’

세 가지 AI 모두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그림-19] 명사, 동사, 형용사 파이계수 네트워크 (Claude 4.5)

Claude AI의 경우, 노드들이 무의미하게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연결선이 혼잡하여 텍스트의 내용과 연관된 단어들의 다발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그림-20] 명사, 동사, 형용사 파이계수 네트워크_653개 초록 텍스트 제공 (ChatGPT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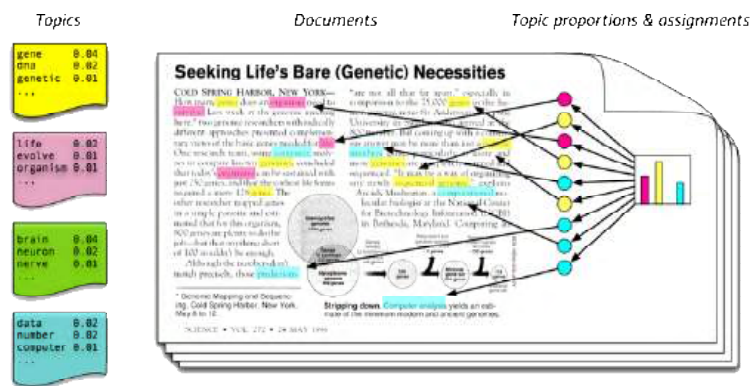
ChatGPT의 경우, 노드가 2~3개 정도로만 연결되어 노드 간 연결성이 지나치게 약했다. ‘다음과’, ‘둘째’, ‘셋째’, ‘있었다’ 등 내용과 무관한 서술 패턴 중심의 연결을 보였다.

Gemini의 경우, 두 가지를 이유로 프롬프트를 실행하지 못하였다. 첫째로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설치가 불안정하여 초록 텍스트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둘째로 빈도분석과 달리 653개의 초록에서 추출한 모든 단어를 계산하기에 실행 환경의 시간과 메모리 제한을 초과하여 작업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3.3. 토픽모델링

생성형 AI 모델의 텍스트 분석 능력을 테스트하는 세 번째 분석 방법으

로서는 ‘토픽모델링’(Topic Modeling)을 적용해 보았다. 토픽모델링은 기계 학습의 기법 가운데 ‘비지도 학습’ 방식의 분석 방법으로서 주로 대용량 텍스트 자료로부터 특정 분야에 대한 동향을 분석할 때 적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초록에 포함된 단어들의 출현 확률을 분석하여 초록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가 자동으로 분류된 토픽 가운데 어떠한 것에 등장할 확률이 더 높은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21] LDA 토픽모델링 도식 (Blei 201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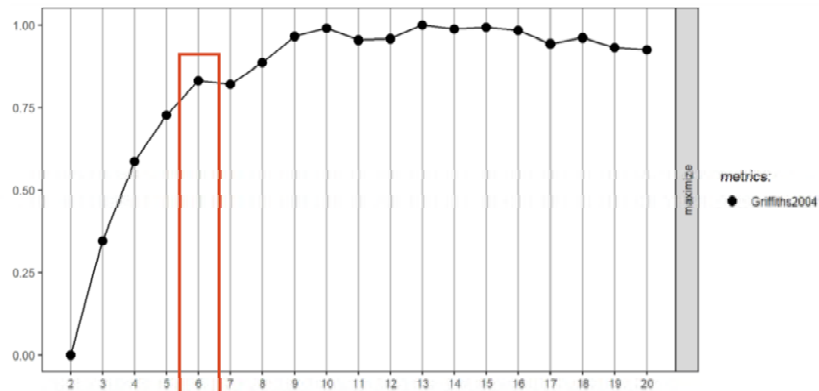
R코딩을 통하여 토픽모델링을 진행하면 특정 토픽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토픽의 주제나 요약된 내용은 자동으로 구할 수 없다. 토픽에 포함된 단어의 목록이나 단어가 사용된 텍스트를 살펴보면서 분석자가 직접 토픽의 주제와 내용을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토픽과 단어의 관계를 추정한다.

(9) LDA 토픽모델링의 가정 (Blei 2012)

- 가. 토픽은 여러 단어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 나. 하나의 토픽에 여러 단어가 서로 다른 확률로 포함된다.
- 다. 같은 단어가 여러 가지 토픽에 서로 다른 확률로 포함된다.

- 라. 문서는 여러 가지 토픽의 혼합으로 구성된다.
- 마. 문서에는 여러 토픽의 단어가 서로 다른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
- 바. 같은 단어가 여러 토픽에 포함될 경우에는 단어가 출현할 확률이 더 높은 토픽으로 문서를 분류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초록 텍스트 안에서 함께 나타나는 단어들을 살펴보고 각 단어를 토픽에 할당하였다. 토픽의 주제와 내용은 같은 토픽으로 분류된 문장들을 보고 직접 설정하였다. 일단 ldatuning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모든 초록을 몇 개의 토픽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확인하였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대략 토픽이 9개로 늘어나는 경우까지 성능 지표가 올라가지만 토픽이 6개로 늘어난 이후에는 지표가 증가하는 비율이 둔화되므로 6가지 토픽을 최적의 토픽 개수로 결정하였다.



[그림-22] 토픽의 개수와 성능 지표

6개의 토픽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진행하면서 초록들을 분류하고,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를 분석한 추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아래의 막대도표는 토픽으로 분류된 초록들의 개수가 가장 많은 5번 토픽부터 초록들의 개수가 가장 적은 2번까지 토픽별 초록의 개수와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

들을 분류한 결과이다. 분류된 초록의 개수는 총 781개로서 분석된 653편의 초록보다 많은데, 일부의 초록들은 복수의 토픽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반면, LDA 토픽모델링의 결과 각각의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오직 하나의 토픽에만 할당된다. 예를 들어 ‘한국어교육’은 5번 토픽에만 포함되어 있으며 ‘국어교육’이라는 단어는 오직 1번 토픽에만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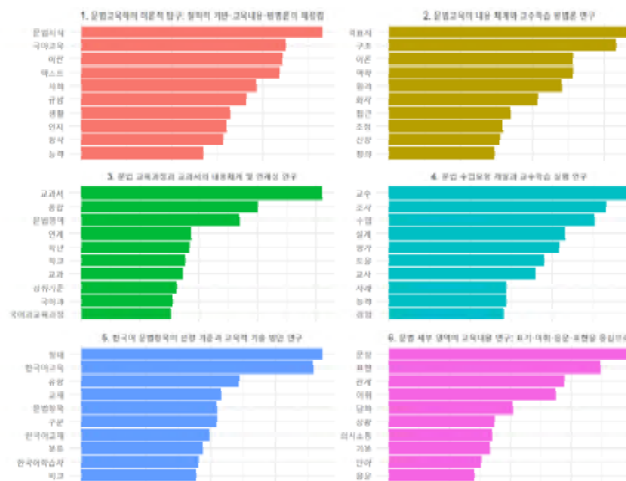
[그림-23] 토픽별 초록의 개수와 주요 단어

6가지 토픽과 관련된 초록들의 제목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초록의 분량이 많은 편이므로 직접 읽어보고 주제를 판단하기보다는 동일한 토픽으로 분류된 초록들을 Claude AI에 입력한 후에 주어진 토픽들을 포괄하는 주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 (10) LDA 토픽모델링에 의하여 분류된 6가지 토픽의 주제 (Claude AI 작성)
 - 가. 문법교육학의 이론적 탐구: 철학적 기반, 교육내용, 방법론의 재정립

- 나. 문법교육의 내용 체계와 교수학습 방법론 연구
- 다. 문법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체계 및 연계성 연구
- 라. 문법 수업모형 개발과 교수학습 실행 연구
- 마. 한국어 문법항목의 선정 기준과 교육적 기술 방안 연구
- 바. 문법 세부 영역의 교육내용 연구: 표기, 어휘, 음운, 표현을 중심으로

아래의 막대 도표는 각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 가운데, 해당 토픽에 출현할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들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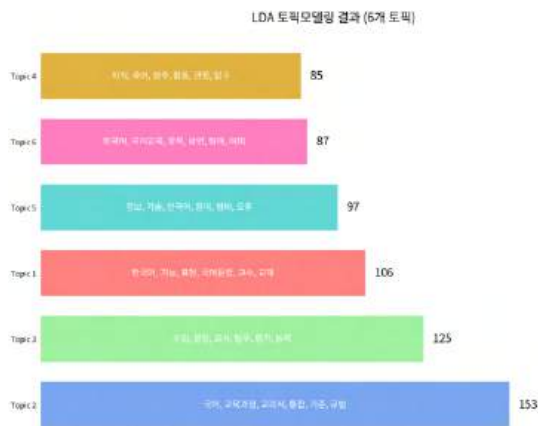
[그림-24] 토픽별 주제와 주요 단어의 출현 확률

생성형 AI 모델에 의한 토픽모델링은 Claude AI로만 진행하였다. 나머지 모델들도 시도는 하였으나 R코딩 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하였다. 토픽모델링은 형태소의 분석, 명사의 추출, 초록 내 중복 명사의 제거, 문서별 단어 빈도의 측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종합적인 분석 과정이므로 전처리된 데이터 프레임에 첨부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방식도 시도하지 못하였다.

(11) '토픽모델링' 분석을 위한 Claude AI 입력 프롬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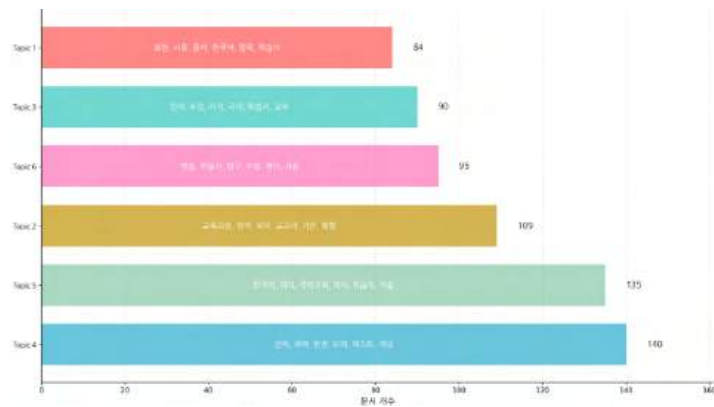
- 가. 첨부된 텍스트 파일(clean_text.txt)은 653편의 초록 텍스트 파일입니다. 각각의 초록은 문단 단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에 포함된 초록들을 'LDA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6가지 토픽으로 분류해 주세요.
- 나. 각각의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이 표시된 막대 그래프를 작성해 주세요.
- 다. 막대의 안쪽에는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표시하고 막대의 바깥 쪽에는 토픽에 포함된 초록을 개수를 표시해 주세요.
- 라. 막대 그래프는 첨부된 그림 파일(LDA_topic.jpg)을 참고하여 유사한 모습으로 그려주세요.

Claude AI에는 위와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토픽모델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불용어를 제거한 초록 텍스트 파일과 R코딩 토픽모델링의 결과를 보여주는 막대 도표를 첨부하고 전체 텍스트들을 LDA 토픽모델링을 통하여 6개의 토픽으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토픽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로서 [그림-23]과 유사한 막대 도표를 두 번 받았는데, 첫째 도표와 둘째 도표는 그 모습이 전혀 달랐다.



[그림-25] Claude AI 토픽모델링 결과 (1번째 분석)

생성형 AI를 통한 토픽모델링의 첫 번째 분석 결과는 R코딩의 토픽모델링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토픽의 개수를 제외하면 공통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결정적으로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가 여러 토픽에 중복되어 토픽이 제대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한국어’는 6번, 5번, 1번 토픽에 중복하여 등장하였으며, ‘국어’는 4번, 2번 토픽에 중복되었고, ‘탐구’도 1번, 4번, 3번 토픽에 중복하여 등장하였다.



[그림-26] Claude AI 토픽모델링 결과 (2번째 분석)

(12) 6개 토픽별 주제, 문서 개수, 주요 키워드 (Claude AI의 2번째 분석 결과)

- 가. 4번: 언어학적 문법 이론 및 개념 연구 (140개)
언어, 국어, 문장, 의미, 텍스트, 개념
- 나. 5번: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 교수법 (135개)
한국어, 의미, 국어교육, 제시, 학습자, 기술
- 다. 2번: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109개)
교육과정, 영역, 국어, 교과서, 기준, 통합
- 라. 6번: 학습 방법론 및 평가 (95개)
학습, 학습자, 탐구, 수업, 평가, 사용
- 마. 3번: 수업 설계 및 교수 방법 (90개)

언어, 수업, 지식, 국어, 학습자, 교수
바. 1번: 표현 및 문법 항목 교육 (84개)
표현, 사용, 용어, 한국어, 항목, 학습자

생성형 AI를 통한 토픽모델링의 두 번째 분석 결과는 R코딩의 토픽모델링 결과는 물론 첫 번째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도 어떠한 공통점이나 관련성을 찾기 어려웠다.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들을 고려한다면 첫 번째 분석의 2번 토픽(국어, 교육과정, 교과서, 통합, 기준, 규범)이 두 번째 분석의 2번 토픽(교육과정, 영역, 국어, 교과서, 기준, 통합)과 유사하였으나, 그 외에 눈에 띄는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웠다. 또한, 첫 번째 분석과 마찬가지로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가 여러 토픽에 중복되어 토픽이 제대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한국어’는 1번, 5번 토픽에, ‘수업’은 3번, 6번 토픽에, ‘국어’는 2번, 4번 토픽에 중복하여 등장하였다. 토픽을 구성하는 단어가 여러 토픽에 중복되었으므로 토픽이 제대로 분류되었다고 볼 수 없었다. 요약하자면 생성형 AI를 통한 토픽모델링은 시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서 재현성과 일반성이 확인되는 과학적 분석으로 보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를 통한 한글 텍스트의 토픽모델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4. 텍스트마이닝 결과에 대한 논의

4.1. 데이터 전처리 수준에 따른 성능 차이

본 연구는 R프로그래밍 기반 텍스트마이닝과 생성형 AI 모델(Claude 4.5, ChatGPT 5, Gemini 2.5)의 분석 능력을 빈도분석, 파이계수 네트워크, LDA 토픽모델링의 세 가지 방법론을 통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생성형 AI 모델의 텍스트마이닝 수행 능력은 분석의 복잡도와 데이터 전처리 수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정제된 데이터를 다룰 때, Claude AI와 Gemini는 R코딩 결과와 완전히 동일한 상위 20개 단어를 추

출하고 빈도수를 정확하게 시각화하였다. 이는 생성형 AI가 구조화된 데이터 프레임 처리와 기본적인 통계 분석에서는 R코딩을 대체할 만큼 정확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ChatGPT의 경우 분석 자체는 정확했으나 한글 폰트 환경 문제로 시각화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는 외부 라이브러리 설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였다.

반면, 원본 텍스트에 대한 자체적인 형태소 분석과 데이터 정제 능력에서는 모든 모델이 R코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성능을 보였다. Claude AI는 정교한 형태소 분석보다는 단순 빈도 추출 수준에 그쳤다. Gemini는 스스로 불용어를 제거하는 등 능동적인 처리를 시도했으나, 이로 인해 R코딩 결과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ChatGPT는 가장 많은 기술적 한계를 보였으며, 한국어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 부재, 메모리 초과 오류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가 한국어 형태소 분석과 같은 복잡한 전처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4.2. 분석 복잡도에 따른 성능 저하

파이계수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모든 AI 모델이 전처리된 데이터 프레임과 원본 텍스트 분석에서 모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Claude AI는 노드가 중앙에 겹치고 연결선이 혼잡하여 핵심 구조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ChatGPT는 노드 글꼴 깨짐, 연결선 미표시, 명사, 동사, 형용사 색상 구분 실패 등의 문제를 보였다. Gemini는 프롬프트를 자체 수정하여 명사만 분석하고 임계값을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가독성이 부족한 편이었다. 원본 텍스트 기반 분석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Claude AI는 무의미한 원형 배열을 보였고, ChatGPT는 내용과 무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도 하였으며, Gemini는 한국어의 형태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메모리 제한으로 분석 작업의 실행이 불가능하였다.

토크모델링은 가장 복잡한 분석 과정으로, Claude AI만이 결과를 산출하였으나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재현성(reproducibility)이 결여되어 동일한 프롬프트와 데이터로 두 번 분석했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

가 도출되었다. 둘째, LDA의 핵심 가정인 ‘각 단어는 하나의 토픽에 주로 할당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4.3. 생성형 AI 텍스트마이닝의 한계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형태소 단위 분석이 필수적이거나, 생성형 AI는 KoNLPy, Kiwi 등 전문 라이브러리에 의존하지 않고는 정교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Gemini와 ChatGPT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탑재 및 설치에서 근본적인 제약을 보였다. 파이계수 계산과 LDA 토픽모델링은 여러 단계의 노이즈 필터링과 반복적인 최적화를 요구하는데, 단순 프롬프트만으로 생성형 AI가 복잡한 작업을 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LDA 토픽모델링의 경우 복잡한 통계적 절차를 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653개 초록 전체에 대한 형태소 분석과 명사 추출, 빈도의 계산 등은 상당한 시간과 메모리 자원을 요구한다. Gemini가 명시적으로 시간-메모리 제한 초과를 언급한 것처럼, 생성형 AI의 실행 환경은 대규모 말뭉치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4. 코딩과 AI의 상호 보완적 활용

본 연구 결과는 생성형 AI가 텍스트마이닝의 모든 단계를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생성형 AI의 효과적인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적합한 영역으로는 정제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단순 빈도분석 및 시각화, 분석 결과 해석, 토픽별로 분류된 초록들에 대한 주제 명명 등이 있다. 반면 원본 텍스트의 형태소 분석 및 전처리, 복잡한 통계적 알고리즘 구현(파이계수, LDA), 재현성이 요구되는 학술 연구 등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의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길완제 외(2024)와 심유리(2025)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AI 분석과 연구자 검토를 병행하는 협업형 프로세스

(Human-in-the-Loop)가 필요하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형태소 분석, 불용어 처리, 데이터 정제’ 등은 R이나 Python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텍스트 네트워크나 토픽모델링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분석도 코딩을 통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다. 반면 ‘텍스트 요약, 토픽 주제의 이름짓기, 결과의 해석, 패턴 발견’ 등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과 요약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다만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분석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설계, 데이터 전처리 수준, 재현성 검증 절차’ 등을 검토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가 전처리된 정제 데이터에 대한 단순 분석에서는 코딩을 대체할 수 있으나, 원본 텍스트 처리, 복잡한 통계 분석, 재현 가능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하는 분석을 대체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어와 같은 교착어의 형태소 분석, 파이계수 네트워크와 같은 복잡한 통계적 알고리즘 구현, LDA 토픽모델링의 재현성 확보 등에서 생성형 AI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 AI의 텍스트마이닝 능력이 분석의 복잡도와 데이터 전처리 수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특히 복잡한 자연언어의 분석에서 아직은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텍스트마이닝 연구에서는 핵심 분석은 R/Python 기반 프로그래밍으로 수행하고, 생성형 AI는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결과 해석, 시각화 보완, 텍스트 요약 등에 활용하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데이터 전처리 수준을 명시하여 분석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하여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자의 전문성과 AI의 효율성을 결합하는 것이 생성형 AI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6. 참고문헌

- 곽기영. 2023. 『R을 이용한 머신러닝과 텍스트마이닝』 도서출판 청람.
- 길완제·장환영·신인수. 2024. “생성형 AI와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기업교육 연구 동향 분석”,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6(3), 153-179.
- 김영우. 2021. 『Do it! 쉽게 배우는 R 텍스트마이닝』 이지스퍼블리싱.
- 심유리. 2025. “심층 인터뷰의 감정 어휘 분석 도구로서 생성형 AI의 가능성”, 『디자인학연구』 155, 349-371.
- Anthropic. 2024. Claude 4 (Sonnet 4.5) [Large language model]. <https://claude.ai>.
- Blei, Davi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Surveying a suite of algorithms that offer a solution to managing large document archive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 Google DeepMind. 2025. Gemini 2.5: Our most intelligent AI model [Large language model]. <https://blog.google/technology/google-deepmind/gemini-model-thinking-updates-march-2025/>
- OpenAI. 2025. GPT-5 [Large language model]. <https://openai.com/gpt-5/>

생태소설을 활용한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현대문학교육연구반(지도: 윤호경 교수님)

김진성('22)

남하연, 오가연('24)

도원경, 안제이, 이정연, 최소혜('25)

I. 들어가는 말¹⁾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손실, 대기와 수질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우리는 지구 생태계 전반과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문제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성찰하게 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한다. UN은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발표하며, 지속가능발전과 세계시민의식 증진을 위해 교육을 통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²⁾ 이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1) 김형태. (2025).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생태시 교육 연구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pp.4-15.

이해와 책임 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2021년에 교육부, 환경부, 시도교육청이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 환경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환경공동선언을 맺었으며, 대한민국 국회 역시 교육기본법 제22조의2에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신설하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목표로 하는 생태전환교육을 명시화했다.³⁾ 또한,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중 하나로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⁴⁾ 국어과는 이에 따라 성취기준 “[12문학01-11]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여러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를 통해 우리가 직면해 있는 공동체 문제 중 ‘생태적 위기’를 포함하여 이를 다루는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⁵⁾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환경 위기에 비해 생태 교육과 관련된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보완할 점이 많다. 특히 앞으로 닥칠 생태 위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풀 비린내에 대하여’, ‘세상 끝의 세상’,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 ‘지구의 근황’과 같은 작품들은 공동체 문제를 다루는 단원 중에서 생태 문제를 다루는 작품이다.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문학 교과서 7종을 살펴보면 문학 교과서 본문 체제로 생태소설이 다루어지는 경우는 7종 중 3종에 불과

2) 환경부, (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69개 세부목표 및 지표』.

3)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4) 교육부(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5) 교육부(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하다. 이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생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부족한 수이다. 따라서 다섯 편의 생태 소설을 활용한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문학에서의 생태 교육을 더 강조해 보고자 한다.

II. 고등 문학 교과서의 생태 소설 분석

1.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⁶⁾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문학이 반영된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12문학01-11]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 성취기준은 학습자가 문학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생태적 위기, 사회적 불평등 및 차별의 문제 등 여러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위의 표를 보면 공동체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 중 생태적 위기를 언급하며 생태문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반영한 학습 목표를 통해 단순히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여 생태적 시민을 길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교육부(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2. 고등 문학 교과서 학습목표 분석⁷⁾

출판사 (대표 저자)	소단원명	작품 및 학습목표
해냄에듀 (조정래)	4-1. 문학과 공동체	· 「세상 끝의 세상」(루이스 세폴베다) · 문학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한다.
창비 (최원식)	5-2. 문학과 공동체	· 「묘씨생」(황정은) ·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미래엔 (방민호)	4-2. 공동체 참여와 문학의 생활화	·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조세희) · 문학을 통해 공동체가 처한 여러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교과서에 수록된 생태 문학 작품 중 소설만 발췌해서 정리한 표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반영한 문학 교과서 7종 중 문학 교과서 본문 제재로 생태소설이 다루어지는 경우가 3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심화되고 있는 생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태 감수성을 함양하기엔 부족한 수이다. 따라서 총 5차시로 이루어진 생태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생태소설을 활용한 문학교육 프로그램

1.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이란 생태문학 작품을 통해 환경 위기 현실을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적 감수성과 실천 의식을 기르는 문학교육 프로그램이다. 「잔인한 도시」,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7) 교육부(2022),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도요새에 관한 명상」, 「내 여자의 열매」, 「채식주의자」 총 다섯 작품을 활용하여 생태문학 교육 학습 활동을 구성한다. 학습자는 프로그램 시작 전 해당 작품을 읽은 채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프로그램은 총 다섯 차시로 이루어지며 두 차시 동안 생태 위기의 현실을 인식하고 한 차시 동안 생태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며 마지막 남은 두 차시는 생태 문제 대응 및 지속 가능성을 모색한다.

차시	작품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	학습목표
1차시	잔인한 도시	생태 위기의 현실 인식	인간 중심주의를 파악할 수 있다.
2차시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사회 생태주의를 파악할 수 있다.
3차시	도요새에 관한 명상	생태 문제의 원인 탐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4차시	내 여자의 열매	생태 문제 대응 및 지속 가능성 모색	생태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
5차시	채식주의자		공동체적 실천 방안 모색할 수 있다.

2. 생태 위기의 현실 인식

2.1. 1차시: 「잔인한 도시」를 통한 인간 중심주의 비판

1) 도입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는 산업화 이후 발전과 효율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회 속에서 자연은 점차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그 과정에서 생명과 환경에 대한 감수성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어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잔인한 도시」를 활용한 생태문학 교육을 통해 현

대 사회의 환경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이를 자신의 생활 속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육을 지향한다.

2) 본론

① 작품의 문제의식과 작가 의도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1978)는 인간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속에 내재된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와 생태적 폭력성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방생’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모습을 통해, 자연을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인간의 이기심을 고발한다.

새 장수는 방생을 명목으로 새를 가두고 팔며, 새가 다시 잡히도록 속깃을 자르는 등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오로지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한다. 또한, 책 속에서 새를 가두어 돈을 받고 방생해주는 행위 자체에 대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러한 모습들은 자연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인간 중심주의의 단면이며, 작품은 이를 통해 인간의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생태적 윤리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② 작품 속에서 나타난 환경 문제

작품 속에서 인간 중심주의, 생명 경시와 폭력성을 문제로 볼 수 있다. 새 장수는 새를 인간의 이익 즉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는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를 보여준다. 또한, 그는 새의 속깃을 잘라 다시 잡을 수 있게 만드는 등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지켜보는 사람들 중 누구도 그 부조리를 문제 삼지 않으며,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하는 방생이라는 행위가 부조리에 동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처럼 작품은 인간이 자연과 생명을 단순히 소비하고 조작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며, 환경운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저조한 현대 사회의 생태 인식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현대 사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들이 ‘그린워싱(Greenwashing)’을 통해 드러난다. ‘그린워싱(Greenwashing)’이란 환경(Green)과 속임수(Whitewashing)의 합성어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위해 겉으로만 친환경인 것처럼 마케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모습은 「잔인한 도시」 속 새 장수의 방생 행위와 유사한 위선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일상에서 분리수거가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난다. 분리수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굉장히 저조하다. 매일경제 뉴스 보도에⁸⁾ 따르면 2015년 43만 3,686톤이었던 플라스틱 제품 발생량이 2019년 기준 57만 7,478톤으로 증가한 반면, 재활용 대상으로 선별된 양은 25만 1,431톤에서 23만 4,629톤으로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비닐도 마찬가지다. 이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실천의 한계를 보여준다.

3)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

① 수업 개요

- 대상 : 고등학교 문학 교과
- 차시 : 1차시
- 주제 :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적으로 성찰 및 환경 보호 활동에 대한 인식 향상
- 핵심 개념: 인간 중심적 사고, 생태 윤리, 환경 보호 활동

② 학습 목표

- 작품 속 인간 중심주의와 환경 문제를 이해한다.
- 현실 속 ‘그린워싱’과 분리수거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학습하고 실천 의지를 다진다.

8) 차창희 기자, “[단독] 분리수거된 플라스틱 1년 57만톤…34만톤은 그냥 버려져”, 매일경제뉴스, 2020년 11월 01일.

③ 학습 활동

단계	활동내용	실천 방법
도입	작품 내용 회상 및 문제 의식 환기	「잔인한 도시」 속 새 장수의 행위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윤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개1	현실 문제 탐구	‘그린워싱’ 사례 영상 또는 기사 자료, 재활용 현황과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 현실의 위선적 친환경 행위 탐구하기
전개2	분리수거 실습	실제 쓰레기 예시들(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캔 등)을 분류해보기
전개3	잘못된 분리수거 사례 분석	잘못된 분리수거의 사례 제시 후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익히기
정리	성찰 및 발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성찰 후 앞으로의 다짐 발표하기

* 준비물: 학습지(분리수거 실습 위한 쓰레기 예시들과 분리수거 통 그려진), 필기도구, PPT

④ 기대 효과

- 문학 작품을 통해 환경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생태윤리의식을 향상시킨다.
- 현실의 환경 문제를 자신의 생활과 연결하여 성찰한다.
- 올바른 환경 보호 습관을 기를 수 있다.

4) 결론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 수업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폭력성과 환경 파괴를 되돌아보고 생태 윤리 의식을 기르는 계기가 된다. 작품 속 새 장수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위선과 자연 착취는,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학생들은 문학을 단순히 읽고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과 행동을 성찰하고, 실천의 출발점으로 경험하게 된다. 결국 문학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지속 가능한 생태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2.2. 2차시: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에 나타난 사회 생태주의 파악

1) 도입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급격한 산업화가 빚어낸 도시와 공장의 풍경을 배경으로, 자본의 이윤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희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단순히 가난한 노동자의 비극을 다루는 것을 넘어, 자본의 무한 증식 욕망이 자연환경과 노동자 계층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반생태적인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활용한 생태문학 교육을 통해 반생태적 가치관과 생명 경시가 어떻게 환경파괴 및 인간소외, 사회 불평등을 불러일으키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생태적 윤리를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2) 본론

① 작품의 문제의식과 작가 의도

작가 조세희는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의 가치가 무참히 희생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연작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포함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작가는 인간의 노동 환경과 자연 상태 환경을 별개가 아닌, 자본의 폭력 앞에 함께 파괴되는 하나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인간의 자연 정복은 결국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류 사회에서 계층구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의 자연 지배와 착취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나타낸다.⁹⁾ 즉 기업가가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착취하는 방식이 곧 자연을 소모 대상으로 대하는 방식과 동일하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9) 이평전. (2014). 1970년대 사회생태론적 사유와 정치의식 연구. 문학과환경, 13(1), p.164.

② 작품 속에서 나타난 환경 문제

첫째, 산업화로 인한 공간의 계층 분리. 산업화 시대 형성된 도시 노동자 계급인 난쟁이 가족은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집을 철거당한다. 새롭게 지을 아파트의 공사비, 내부 시설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해 자연환경이 파괴된 도시뿐이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본주의 도시 공간이 수동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넘어, 공간의 분할을 통해 계급을 분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¹⁰⁾

둘째, 공해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 해당 연작의 다른 작품이나 전체적인 배경을 통해 심각한 자연환경 오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난쟁이의 죽음 이후 그의 가족들이 이주한 은강 공업 도시에서는 이미 공해로 인한 결과가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장지대의 매연을 바다 혹은 내륙으로 실어 나르던 바람은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향한다. 호흡 장애를 일으키거나, 심한 악취, 눈과 목의 통증을 겪는 등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¹¹⁾ 이는 빈민들이 내몰려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셋째,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산업 재해. 이들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 저임금, 고용 불안정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 특히 공장에서 산업 재해를 당해 손가락이 잘려나가거나 건강을 잃는 노동자의 모습은 그들의 생명이 기업의 이윤보다 하찮게 취급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경제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인간의 생존 환경이 근본적으로 파괴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우리나라는 1961년 이래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사업에 따라 산업구조에

10) 이평전, 위의 논문, pp.165-166.

11) 허선애. (2024).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환경 위기 인식의 (불)가능성. 어문학, 166, pp.317-318.

큰 변화를 불러왔다. 환경자원을 대량 소비하고 생산 활동에서 생기는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산업이 급속히 늘어났으며 착취 수단이 되었던 자연 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 국가 간에 자원을 독점하려는 경향이 심한 경쟁으로 나타나 생태계 평형은 한층 파괴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¹²⁾

3)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

① 수업 개요

- 대상 : 고등학교 문학 교과
- 차시 : 2차시
- 주제 :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통한 사회생태주의 이해 및 지속 가능한 사회 생태계 모색
- 핵심 개념 : 사회 생태주의, 인간 소외, 사회 불평등, 지속 가능한 생태 윤리

② 학습 목표

-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의 배경 및 등장인물을 분석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 문학 작품의 비유와 상징을 현대 사회 문제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소외된 이웃과 자연 환경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없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③ 학습 활동

12) 이은하. (2011). 산업근대화로 인한 생태 파괴와 생명의 존엄성 상실 - 이준연 작품론. 한국문예창작, 10(1), pp.91-114.

단계	활동내용	실천 방법
도입	작품 내용 회상 및 문제 의식 환기	시대적 배경과 감정적 몰입 유도 - 1970년대 도시 재개발, 공장 노동 환경에 대한 사진이나 짧은 영상 제공
전개1	작품 분석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를 읽은 뒤 1. 작품 속 인물의 시선 비교 - 작품 속에서 자본가 계층인 '나'와 노동자 계층인 '영수'를 비교 2. 문학 작품 속 비유와 상징 이해 - '그물'과 '가시고기'의 의미 및 둘의 관계를 이해
전개2	생태적 연결고리 확립	노동 착취와 환경 착취의 공통점 찾기 - 노동자를 단순히 값싼 생산 수단으로 보는 관점과 자연을 무한한 자원으로 보는 관점이 생명 경시라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짐을 이해
전개3	토론	현대 사회의 '병든 생태계' 사례 찾기 - 주인공 '나'의 시선과 유사한 현대 사회의 사례를 조사하고, 이것이 사회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토론
정리	생태 윤리 보고서 작성	지속 가능한 '나의 생태 윤리' 보고서 작성하기

④ 기대 효과

- 작품의 배경, 서술자의 의도, 비유와 상징을 분석하며 비판적 문학 해석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 문학, 사회학, 생태학 등 경계를 허무는 학습을 통해 다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4) 결론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는 자본의 무한 증식 욕망이 1970년대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보여주며, 인간 사회의 비극과 자연 착취가 생명 경시라는 동일한 반생태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고발하는 사회 생태주의적 문학 작품이다. 생태환경의 문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의식과 실천에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전히 부와 학력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 그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 불평등의 기울어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생태문학 교육은 '생태적 감수성'과 '생태문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동시에,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이다.¹³⁾ 생태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 작품 속 사회 구조적 모순을 현대의 환경 정의 문제와 연결하는 비판적 융합 사고를 함양하고,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윤리적 시민 의식과 실천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3. 원인 탐구

3.1. 3차시: 「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관계 파악

1) 도입

김원일의 「도요새에 관한 명상」(1976)은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1970년대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인간과 자연의 단절과 회복을 생태적 시선에서 탐구한 작품이다. 작가는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인간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며 본래의 생명성과 자연과의 유대를 잃어가는 현실을 고발한다.

병식, 병국, 아버지로 이어지는 인물 구조는 세대별 환경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며, 인간이 자연과 맺어야 할 관계를 다층적으로 드러낸다. 도요새는 단순한 새가 아니라 인간이 되찾고자 하는 순수한 생명성과 조화의 상징으로 기능한다.

이처럼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산업화의 그늘 아래서 파괴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작가의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작품을 생태문학교육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3) 김정우. (2020). 생태문학교육의 방향과 내용 - 통합적 운영과 융합과목으로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 169(0), pp.1-27.

2) 본론

① 작품의 문제의식과 작가 의도

김원일은 산업화의 발전 속에서 인간이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태도를 비판하며, 생태적 윤리의 회복을 문학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인간 중심적 가치관의 붕괴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했다.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이러한 작가의 생태철학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작품으로 평가된다.¹⁴⁾

② 작품 속에서 나타난 환경 문제

작품 속 병식은 환경을 경제적 수단으로 인식하며, 자연을 훼손하는 산업화 세대의 전형이다. 반면 병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하지만, 현실적 한계 앞에서 좌절한다. 아버지는 자연에 대한 애착과 향수를 지니지만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처럼 인물 간의 세대 갈등은 단순한 가족 내 문제를 넘어, 산업화 시대의 생태윤리 붕괴를 드러낸다. 또한, 오염된 강, 사라지는 도요새의 이미지 등은 생태계의 파괴와 생명 순환의 단절을 상징하며, 인간이 만든 문명 사회가 스스로를 위협하는 역설적 상황을 형상화한다.

③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현대 사회 역시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구조 속에서 기후 위기,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도요새에 관한 명상』이 제기한 산업화의 그림자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 세대는 환경 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체험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문학 교육을 통한 생태 감수성 함양이 필요하다.

14) 김인경·이문성·염경순(2020),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환경'과 '인물' 연구 - 『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중심으로 -」, 『인문사회21』 제11권 3호, pp.901-910.

3)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

① 수업 개요

- 대상 : 고등학교 2~3학년 문학 교과
- 차시 : 3차시
- 주제 : 『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성찰하기
- 핵심 개념 : 산업화, 생태윤리, 인간소외, 생명 회복

② 학습 목표

- 작품 속 인물과 상징을 통해 환경 파괴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
- 세대별 환경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며 생태윤리의 의미를 탐색한다.
- 현실의 환경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기른다.
- 문학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실천적으로 모색한다.

③ 학습 활동

단계	활동내용	실천 방법
도입	학습 회고	앞 차시 내용 요약 및 연결하기
전개1	현실 문제 탐구	1970년대 사회·경제 변화와 환경 문제 조사하기
전개2	인물별 환경 인식 탐구	병식·병국·아버지의 시점 분석 및 토론하기
전개3	상징 해석 및 토론	‘도요새’의 상징 의미 탐색 및 토의하기
정리	성찰 및 발표	현재 환경 문제와 연계해 실천 방안 모색하기

④ 기대 효과

- 문학을 통해 환경 문제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인간의 삶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다.
- 생명 존중의 가치와 생태적 감수성을 내면화하고, 현실 속 환경 문제에 대한 윤리적 실천 의지를 기를 수 있다.

4) 결론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인간성과 자연의 관계가

어떻게 훼손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회복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이다. 인간의 탐욕이 초래한 환경 파괴를 비판하며, 생태적 윤리의 회복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운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생태문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문학이 단순히 환경 문제를 배경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사유하게 하는 생태적 텍스트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도요새에 관한 명상」은 생태 위기의 시대에 문학이 수행할 수 있는 윤리적·교육적 역할을 확인하게 하는 중요한 교육 자료라 할 수 있다.

4. 대응 및 지속가능성 모색

4.1. 4차시: 「내 여자의 열매」를 통한 생태 감수성 함양

1) 도입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환경 문제를 단순한 과학·사회적 이슈가 아닌 삶의 가치와 윤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이 환경 문제를 자기 삶과 연결 지어 성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식 전달을 넘어 감정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학 교육이 필요하다.

「내 여자의 열매」는 이러한 교육적 전환에 적합한 작품으로, 인간과 자연, 타자와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상징과 서사를 지닌다. 본 보고서는 이 작품을 바탕으로 생태적 감수성과 윤리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학이 현실의 환경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천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본론

① 작품의 문제의식과 작가 의도

오늘날 기후 위기와 생태 파괴는 인간의 삶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학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고 새로운 공존의 가치를 탐색하는 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국어교육은 문학을 통

해 학습자의 윤리적·생태적 감수성을 길러 줘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¹⁵⁾

한강의 「내 여자의 열매」는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한 비판과 생명 중심적 전환의 가능성을 탐구한 작품이다. 작가는 여성의 몸에 ‘열매’가 맺히는 초현실적 사건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타자를 지배하려는 욕망의 폭력성을 드러내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라는 생태문학적 문제의식을 제시한다.

② 작품 속에서 나타난 환경 문제

「내 여자의 열매」는 인간 중심적 폭력과 자연의 응답이라는 서사를 통해, 인간이 타자를 지배하고 소유하려는 욕망이 초래한 생태적 파괴를 드러낸다. 남성 화자는 여성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지만, 여성의 몸은 그 폭력에 저항하며 식물로 변한다.¹⁶⁾ 이는 자연이 인간의 폭력적 개입에 대응하는 복원력의 은유로 해석된다. 또한, 여성의 식물 변신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다른 존재 방식으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이는 인간 중심주의에 갇힌 존재가 새로운 생태적 존재로 회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⁷⁾ 즉, 한강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공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자연을 지배의 대상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한다.

③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현대 사회는 여전히 인간 중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다. 개발, 소비, 경쟁 중심의 산업구조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인간의 편의를 위해 자연을 도구화하는 사고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는 생태적 관점이 충분히 반영

15) 이미연·노상우·엄진경, 「생태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의 비판적 고찰 -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종합연구』, 2020, p.94.

16) 김진희, 「여성 변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내 여자의 열매」의 교재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1, p.34.

17) 최성운, 「유폐된 생명, 초월 욕망의 좌절 - 「내 여자의 열매」에 나타난 ‘식물적 상상력」,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2020, p.144.

되지 못하고 있다. 핵심역량에서 인간과 타인, 세계와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은 생태학적 관점과 일부 접목될 수 있으나, 여전히 인간 중심적 사고를 전제하며, 자연과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생태 관련 문학 텍스트가 제한적이고 편차가 커, 학습자가 생태적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부족하다.¹⁸⁾

3)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

① 수업 개요

- 대상 : 고등학교 문학 교과
- 차시 : 4차시
- 주제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해결 방안 모색
- 핵심 개념 : 인간 중심주의, 생태윤리, 관계 회복, 공존

② 학습 목표

- 「내 여자의 열매」 속 생태적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 인간 중심적 사고의 한계 인식하고 생태윤리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 문학 속 서사적 상상력을 현실적 해결 방안으로 확장한다.

③ 학습 활동

단계	활동내용	실천 방법
도입	학습 회고	앞 차시 내용 요약 및 연결하기
전개1	작품 속 생태 문제 분석	남성 화자의 태도와 여성 변화를 중심으로 인간 중심주의 비판, 인물-자연 상호작용 분석하기
전개2	해결 방안 탐색	‘인간과 자연 관계 회복’을 주제로 모둠 토론, 현실적 해결 방안 제안서 작성하기
전개3	잘못된 분리수거 사례 분석	제안된 해결 방안을 시각화(포스터, 발표, 카드뉴스 등), 발표 및 상호 피드백해보기
정리	성찰 및 발표	모둠별 발표 후 종합 토의, 삶에서 가능한 공존 실천 성찰하기

18) 이미연·노상우·엄진경, 위의 글, p.99.

④ 기대 효과

- 학습자는 「내 여자의 열매」 속 생태적 문제를 단순한 비판이 아닌 해결의 관점에서 성찰하게 된다.
- 문학적 상상력을 현실의 생태 위기 해결로 연결시키며,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상상력을 함께 기를 수 있다.
-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공존과 관계 회복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생태 감수성을 형성한다.

4) 결론

「내 여자의 열매」를 활용한 이번 4차시 수업은 인간 중심적 사고와 폭력이 자연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작품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현실의 환경 문제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모둠 토론과 시각화 활동을 통해 공존과 관계 회복의 의미를 구체화하며, 단순한 감상 수준을 넘어 윤리적·생태적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다. 따라서 생태문학을 활용한 국어교육은 학생들의 문학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현실 문제 해결 능력과 삶의 태도를 함께 성찰하게 하는 교육적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2. 5차시: 「채식주의자」를 통한 공동체적 실천 방안 모색

1) 도입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산업사회 속 인간의 폭력성과 자연으로부터의 단절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생태소설이다. 본 작품에서 주인공 영혜의 '채식'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타자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한 근원적 저항으로 읽을 수 있다.¹⁹⁾ 김명훈(2025)은 「문학을 생태적

19) 김명훈, 「문학을 생태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 9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5, p.14.

으로 사유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문학을 ‘생태적 사유의 장’으로 확장해야 함을 주장하며, 인간·비인간의 경계를 해체하고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재인식하는 관점을 제시한다.²⁰⁾ 이에 따라 본 수업은 「채식주의자」를 통해 인간의 폭력성을 성찰하고, 생태적 자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교육적 실천을 목표로 한다.

2) 본론

① 작품의 문제의식과 작가 의도

「채식주의자」는 인간이 사회적 규범과 폭력적 욕망 속에서 타자와 자연을 억압해 온 구조적 폭력을 고발한다. 한강은 육식의 거부를 통해 문명화된 인간이 내면에 품은 폭력성을 드러내고, 생명과 공존하지 못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비판한다. 작가는 영혜의 채식에 인간과 비인간, 문명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로 제시하며, 존재의 근원적 평등성과 비폭력적 생존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② 작품 속에서 나타난 환경 문제

작품은 직접적인 환경오염이나 생태 파괴를 다루지는 않지만, 인간이 자연과 생명체를 도구화하고 소외시키는 근본적 태도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한다. 영혜의 가족과 사회는 육식 문화를 당연시하며, 개인의 몸과 의지를 통제하려 든다. 이러한 폭력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자원을 소모하는 산업 문명적 구조와 상통한다. 즉, 영혜의 몸은 인간 중심적 세계관 속에서 파괴된 생태적 질서의 상징으로 읽힌다.

③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

오늘날 산업사회에서도 인간은 여전히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자연과 타자를 소외시키고 있다. 환경오염, 기후위기, 생명경시 풍조는 「채식주의자」가 드러낸 폭력적 질서의 현실적 재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식

20) 같은 글, p.17.

량 산업과 동물 착취 구조는 인간의 폭력성과 생태 윤리의 결핍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현실 문제를 문학적 사유를 통해 인식함으로써, 학생들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넘어 ‘함께 살아가는 생태적 존재’로서의 자기 성찰을 수행할 수 있다.

3) 생태문학 교육 프로그램

① 수업 개요

- 대상: 고등학교 2학년 문학 교과
- 차시: 5차시
- 주제: 인간의 폭력성 극복과 생태적 자아의 각성
- 핵심 개념: 비폭력, 타자와의 공존, 식물적 자아, 생태윤리

② 학습 목표

- 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생태적 윤리를 탐색한다
- 개인적 성찰을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한다.

③ 학습 활동

단계	활동내용	실천 방법
도입	학습 회고	앞 차시 내용 요약 및 연결하기
전개1	조별프로젝트	“우리 사회의 생태 폭력 사례와 대응 방안” 탐구 (축산업, 패스트패션, 도시개발 등) → 기사·통계 자료 조사 후 포스터 제작하기
전개2	문학적 실천탐색	영혜의 저항은 오늘날 어떤 행동으로 가능할까?”를 주제로 브레인스토밍 후, 실천 아이디어 공유하기
전개3	감정적 공명활동	‘영혜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며, 나는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 문학적 공감의 확장하기
정리	생태실천선언문 작성	학생들이 작성한 문장을 모아 ‘우리 반 생태 실천선언문’ 작성 및 낭독하기

④ 기대 효과

- 문학적 정동이 윤리적 실천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학 교육의 순환 구조’를 경험한다.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실천하는 생태적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 문학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생태적 매개체’임을 자각한다.

4) 결론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본 4·5차시 수업은, 산업사회의 폭력성을 성찰하고 생태적 자아를 회복하는 문학적 사유의 장으로 기능한다.²¹⁾ 김명훈(2025)이 제시한 생태적 사유는 인간/비인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포용적 세계관을 교육적으로 실현하는 토대가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문학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변혁시키는 생태적 실천의 매개체로 경험하게 된다.²²⁾

IV. 맺는말

기후위기, 생물 다양성의 손실, 대기와 수질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오늘날,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성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책임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생태 교육이 공동체 문제의 하위 요소로만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교수학습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생태 교육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잔인한 도시」, 「내 그물로 오는 가

21) 같은 글, p. 33.

22) 같은 글, p. 35.

시고기], 「도요새에 관한 명상」, 「내 여자의 열매」, 「채식주의자」 등 총 다섯 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생태문학 교육 학습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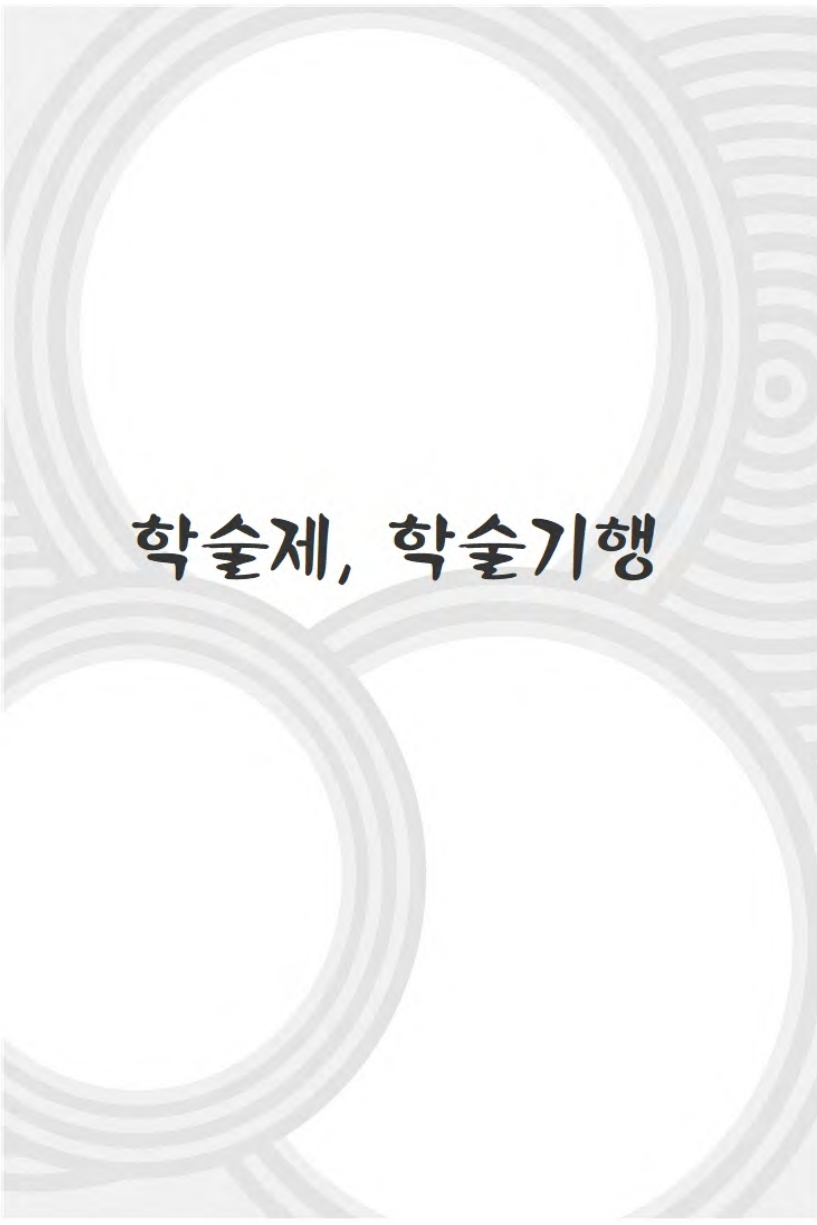
선정된 작품은 ① 생태 위기의 현실 인식, ② 생태 문제의 원인 탐구, ③ 생태 문제 대응 및 지속 가능성 모색의 세 범주로 분류하였으며, 각 단계에 따라 활동 내용을 구상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생태문학 프로그램 구상을 통해, 본 연구는 생태 교육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단순히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함양하여 생태적 시민을 길러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V. 참고 문헌

-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2022.
- 교육부,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2022.
- 환경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69개 세부목표 및 지표』, 2015.
- 김명훈, 「문학을 생태적으로 사유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9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25.
- 김인경·이문성·염경순, 「김원일 소설에 나타난 ‘환경’과 ‘인물’ 연구-『도요새에 관한 명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1권 3호, 2020.
- 김정우, 「생태문학교육의 방향과 내용 - 통합적 운영과 융합과목으로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국어교육, 2020.
- 김진희, 「여성 변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내 여자의 열매」의 교재화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1.
- 김형태, 「생태적 전환을 위한 생태시 교육 연구 -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2025.
- 이미연·노상우·엄진경, 「생태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과교육의 비판적 고찰 - 국어교과를 중심으로 -」, 교육종합연구원, 『교육종합연구』, 2025.
- 이은하, 「산업근대화로 인한 생태 파괴와 생명의 존엄성 상실 - 이준연 작

- 품론」, 한국문예창작, 10(1), 2020.
- 이평전, 「1970년대 사회생태론적 사유와 정치의식 연구」, 문학과환경, 13(1), 2014.
- 최성윤, 「유폐된 생명, 초월 욕망의 좌절 - 「내 여자의 열매」에 나타난 ‘식물적 상상력」,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2020.
- 허선애,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환경 위기 인식의 (불)가능성」, 어문학, 2024.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light gray square containing several overlapping circles. Each circle is composed of multiple concentric lines,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The circles are arranged in a way that they appear to be part of a larger, interconnected pattern.

학술제, 학술기행

한 해의 결실을 담은 학술제

김민경('23)



11월은 겨울이라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가을이라 하기에는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는 계절이다. 또 한 학기의 주요 행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후련하면서도 조금의 아쉬움이 남을 이 시기에 제13회 돈을별 학술제가 2025년 11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돈을별 학술제는 일 년간의 활동을 마무리 짓고, 학우들의 성과와 배움을 나누는 국어교육과의 전통적인 행사이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특히 학년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램으로 구성되어 학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의 아쉬움을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었다.

1일차에는 1-2학년 대상의 한 ‘도전! 국교 골든벨’과 전 학년 대상의 ‘90초 안에 톺아보기 영상제’, 그리고 3학년 대상의 ‘수업 설계 경연대회’가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에는 ‘학술동아리 발표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먼저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도전! 국교 골든벨’에서는 1-2학년 수강 과목인 국어교육학개론, 한국문학개론, 한국어학개론의 전공 지식을 비롯해 학교, 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교양적 요소를 담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생생한 현장감을 위해 실제 골든벨 프로그램처럼 모두 캡모자를 뒤집어쓰고 칠판을 머리 위로 흔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우들은 전공 강의에서 배운 내용의 기억을 되살려 신중하게 문제를 풀면서도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흥미를 가지고 전공 지식을 재점검할 수 있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90초 안에 톺아보기 영상제’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행사로, 국어교육과의 학문적 특성을 살린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 제작을 통해 언어와 문학의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고 전공에 대한 흥미와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기획하였다. 영상제에 참가한 학우들은 우리말의 가치와 문학적 상상력에 재미를 더하여 짧은 영상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솜뽕 콘텐츠가 일상화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교수님을 비롯한 학우들이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웃음과 공감이 오가는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영상 제작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영상제를 기획한 의도대로 제한된 90초 안에 교육적 가치와 재미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힘과 동시에 구성원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영상제는 주제 적합성, 창의성 및 독창성, 구성 및 전달력, 영상미, 교육적 가치 등의 꼼꼼한 평가 기준에 따라 교수님들께서 심사해 주셨다.

1일차의 마지막 행사였던 3학년 대상의 ‘수업 설계 경연대회’는 2-4명인 팀을 구성하여 AI, 줌보드, 패들렛 등의 다양한 에듀테크를 적용한 수업을 설계한 과정을 발표하는 대회이다. 참가자들은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예비 교사의 미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영역을 선정

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팀은 김지원 외 2인, 안재은 외 1인, 장윤아 외 1인으로 총 세 팀이었고, 첫 번째 순서로 장윤아, 김민경 팀은 고등학교 문학 영역을 선정하여 소설을 읽고,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현실과 인물의 내면을 이해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판적으로 활용하여 문학과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나를 연결하는 수업 설계를 발표하였다. 두 번째 안재은, 권현서 팀은 고등학교 문학 영역을 선정하여 특징이 두드러진 작품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워튼을 활용하여 AI 작가를 만들어 시를 창작해 보는 수업 설계를 발표하였다. 세 번째 김지원, 김유겸, 이병근 팀은 중학교 공통 국어 영역을 선정하여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자작자작'을 활용한 NIE 기반 쓰기 수업 설계를 발표하였다. 본 대회는 주제의 적합성 및 융합성, 수업 설계의 창의성 및 혁신성, 교수학습 방법 및 절차의 체계성, 기대 효과 및 발표 전달력을 기준으로 교수님께서 심사해 주셨다. 또한 교수님과 학우들의 피드백을 통해 수업 설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예비 교사로서 실제 수업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는 내년에 있을 교생 실습에 미리 대비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2일차에는 학술연구반 네 팀이 1년간 연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다. 고전문학교육연구반은 울리어나 코바코바 교수님 지도하에 한국 고전문학을 탐구하는 학술동아리로 김수민 외 9명의 학우가 '허균의 한문전 작품을 분석하여 허균이 살던 시대, 그의 사상과 전문학 파악하기'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발표하였다. 현대문학교육연구반은 윤호경 교수님 지도하에 문학 작품을 함께 읽으며 감상과 해석의 결과를 나누고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동아리로 오가연 외 6명의 학우가 '문학 교과서의 생태소설 분석을 통한 생태 문학 수업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발표하였다. 의사소통교육연구반은 이영호 교수님 지도하에 학교 현장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청소년 문학 도서를 선정하여 읽고 토론하는 동아리로 김주혁 외 8명의 학우가 '청소년 문학을 대상으로 한 독서토론 수업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데이터분석연구반은 박선우 교수님 지도하에 파이썬이나 R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탕으로 한

국어 말뭉치 자료에 대한 계량적 분석과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의 응용을 탐구하는 학술동아리로 이다현 외 3명의 학우가 ‘생성형 AI R 기반 노코딩 텍스트마이닝과 프로그래밍 텍스트마이닝의 한국어 분석 성능 비교’라는 주제로 연구하고 발표하였다. 발표를 들으며 각 동아리에서 1년간 진행해 온 연구의 깊이와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공 강의에서 다루지 않는 깊이 있는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전공 지식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매주 동아리에 참가하며 의견을 나누고 이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성과를 다른 학우들과 공유하기 위해 구성원끼리 역할을 분담하고 보고서로 정리하며 그 내용을 조리 있게 발표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깃들어있다. 특히 시험 기간과 준비 기간이 겹치면서 시간적 부담과 어려움이 컸을 테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협력한 끝에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교수님 피드백을 비롯해 학년과 상관없이 학우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단순한 동아리 활동을 넘어 선정한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다른 학우들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함께 고민한 시간은 학우들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다.

2025년 제13회 돌을별 학술제가 이렇듯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를 동안 회장단, 기획부와 함께 네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대감과 부담감이 공존했지만,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덕분에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를 위해 힘써 주신 교수님 그리고 14대 학생회 열:음과 학술제에 참여한 모든 학우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기대되는 2026년 제14회 돌을별 학술제를 응원한다.

골든벨, 국어교육의 열정을 올리다

정민지('25)

안녕하세요! 1학년 국어교육과 골든벨을 올린 25학번 정민지입니다. 돈을벌 학술제의 “돈을벌”은 해가 솟아오를 때의 햇볕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름처럼 따스한 햇살이 배움의 뜰을 비추는 듯한 '돈을벌 학술제'의 첫째 날, 우리 국어교육과 학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겨루었던 '국어교육과 골든벨'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쟁쟁한 실력을 갖춘 선배님들과 열정 넘치는 동기들 사이에서 운 좋게도 1등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승부의 장을 넘어, 우리 과의 발자취와 전공의 깊이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었던 그 뜨거웠던 시간의 소회를 기록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골든벨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함께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이정표였습니다. 퀴즈를 풀며 한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던 '한글 발자취' 행사에서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 탐방했던 기억과, 학술답사에서 땀 흘리며 목소리 높여 응원했던 특별한 체육대회의 순간들이 스크린 속 화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체육대회 당시 역전의 발판이 되었던 미션 이어달리기나 우리 팀의 단합력을 보여주었던 문장 만들기 행동지령 게임의 장면들을 다시 이야기 나눌 때, 강의실 안은 승부의 긴장감 대신 함께 웃고 즐겼던 그날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 자칫 잊힐 뻔했던 소중한 공동체의 기억을 퀴즈라는 형식을 통해 다

시금 추억할 수 있어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이번 골든벨은 1학년으로서 배우고 있는 전공 지식을 체계적으로 복기할 수 있는 최고의 학습 현장이었습니다. ‘국어교육학개론’에서 다루었던 교수 학습 방법론, ‘한국문학개론’ 시간에 깊이 있게 분석했던 고전 시가와 현대소설의 구절들, 그리고 ‘한국어학개론’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던 형태소와 음운 규칙들이 퀴즈로 마주하니 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강의실에서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들으며 여백에 꼭꼭 눌러쥔 필기 내용이 정답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올 때, 비로소 그 지식이 온전히 저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하는 1학년 시기에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전공의 핵심 내용을 이토록 즐겁게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학술제라는 행사의 틀을 깨고, 모든 학우가 다 함께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학생회의 센스 넘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올해 학생회가 몇 기인지, 우리 학과의 소중한 보물창고인 자료실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묻는 문제들은 우리가 매일 머무는 공간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국어교육과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은 현재 몇 개인가?”라는 돌발 퀴즈가 나왔을 때, 모든 학우가 약속이라도 한 듯 스마트폰을 꺼내 찾아보고 싶어 웅성거리던 그 유쾌한 진풍경은 이번 골든벨의 백미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거나 짚어도 맞출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활력소가 되어 행사가 끝날 때까지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골든벨의 열기는 이후 이어진 학술 행사들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선배님들의 노련함과 열정이 돋보였던 “AI 에듀테크 창의 융합 수업 설계 경연대회”를 보며 칠관 앞에 선 미래의 제 모습을 그려보았고, 학술동아리의 깊이 있는 발표를 통해서도 예비 국어 교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선배님들이 직접 제작한 국어교육과 영상제는 우리 학과의 재기발랄한 끼와 예술적 감각을 확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1학년인 저에게 이러한 시간은 단순한 참관을 넘어, ‘교사’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더욱 단단히 다잡게 해준 유익하고 귀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골든벨 우승은 저에게 자만심보다는 앞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학술제를 준비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신 학생회 여러분과 교수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호흡하며 즐겨주신 모든 학우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돋을별’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국어교육과가 앞으로도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저 또한 학업과 학과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올해의 뜨거웠던 열기를 이어받아 내년에 15대로 우리 국어교육과를 이끌어갈 학생회 ‘설화’의 행보 또한 무척 기대됩니다. ‘설화’가 준비할, 다채롭고 참신한 행사를 통해 우리 학우들의 이야기가 더욱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를 응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뜻깊은 상과 추억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감문을 마칩니다.

시와 함께하는 문학수업을 고민하며

안재은('23)

11월 5일, 3학년 권현서('23) 학우와 함께 학술제의 다양한 행사 중 'AI 및 에듀테크 창의융합 수업설계 경진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AI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특히 국어교육과 AI 및 에듀테크의 접목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예비 국어교사로서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참여하였습니다.

수업 주제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논의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중에는 AI로 시 창작하기, AI를 활용하여 시에 드러나 있는 표현 방법 분석하기, 음운변동 규칙 파악해 보기, 단어 사용 빈도 및 주요 키워드 분석을 통해 작가의 문학적 경향과 특성 파악하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중 최종적으로 'AI로 시 창작하기'를 선택하여 수업을 구상해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모둠원들과 특정 작가를 선정하여 그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어조와 표현 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AI 작가를 만들어 시를 창작하는 수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윤동주 시인의 시를 네 평가량을 분석하고, 주요 특징을 AI에 입력한 뒤, 가상의 '윤동주 AI 작가'를 만들어 새롭게 시를 창작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창작'과 관련한 성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문학' 중 성취기준 '[12문학01-07] 작품을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창작한다.’를 선정하였고, 이에 더하여 ‘[12문학01-08]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한 작가의 시 네 편을 분석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수행하기에 난이도가 높을 수 있으며, 작품 경향이 달라지는 작가들도 많이 있어 뚜렷한 특징을 도출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특징이 두드러진 작가의 작품들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워튼을 활용하여 AI 작가를 만들어 시 창작하기’로 주제를 수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모듈별로 특징이 두드러지는 작품 한 편을 분석하여 그 작품의 특성을 반영한 AI작가를 만들어 시를 창작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선정한 AI 및 에듀테크 도구는 멘티미터(mentimeter), 워튼(wrtn), 패들렛(padlet)이었습니다. 멘티미터는 워드클라우드, 객관식 설문, 퀴즈 등 다양한 질문 유형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는 도구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워튼은 GPT-4.5, Claude 3.7, Gemini 2 등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과 실시간 검색 결과 등을 통합 활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AI 도구입니다. 특히 워튼은 ChatGPT가 만 18세 이상부터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에 비해, 만 14세 이상 사용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수업에서 활용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패들렛은 온라인 포스트잇 게시판으로, 온라인 공간에 글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를 포스트잇처럼 남기고 공유할 수 있어 활동을 공유하는 부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하여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내용을 소개하는 PPT를 제작하여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교과서 선정 이유, 수업 전반에 대한 설명, 수업 목표, 차시별 수업 소개, 에듀테크 도구 활용 방안, 본시 소개, 수업에서의 평가와 피드백, 교육적 효과 분석, 활동지 등 설계한 수업의 모든 것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국어교육과를 대표하여 사범대학에서 주최하는 ‘예비교사를 위한 AI·에듀테크 창의융합 수업설계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국어 교과 외의 다른 전공의 수업을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범대학의 행사에 참여하여 교육학과, 영어교육과, 한문교육과, 유아교육과가 준비한 발표들을 들으며 수업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처음 접하는 에듀테크를 직접 경험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준비한 발표를 듣고 나눈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수업 설계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어 교육과 AI를 융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AI가 지은 시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등의 윤리적인 문제 또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AI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국어 교육에 AI를 적용하는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성찰을 통해 예비 국어교사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국어교육과가 가까워지는 시간

김태훈('25)



2025년 3월 28일, 국어교육과의 춘계학술세미나가 시작되었다. 학우들과 교수님들은 가방보다 설렘을 먼저 안고 포항으로 출발했다. 첫 번째 방문지였던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의 약 100여 년 전에 일본이 체결한 조일통상장정 이후 일본인이 조선으로 와서 살았던 곳이다. 일본식 목조 건물과 생활의 흔적이 남은 배치에서 과거의 일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조별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드라마의 장면을 따라 하는 사진을 찍거나 개성 있는 솜뿔을 제작하는 등 학생회가 준비한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다. 재

미있는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거리를 거닐며 역사를 느낄 수 있었다.

이후 숙소로 이동하여 잠시 휴식을 가진 뒤 강당에 모여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신문지를 접어 점점 좁아지는 공간에 올라가는 게임, 찰나의 노래를 듣고 맞추는 음악 퀴즈 등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 있었다. 처음엔 어색해하며 조심스럽게 참여하는 학우들도 많았다. 하지만 게임이 진행될수록 예상치 못한 실수에서 나오는 웃음과 승부 앞에서의 열정으로 강당의 공기는 빠르게 데워졌다. 한 공간에서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의 온도를 높여갔다.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은 요리대회였다. 각 조별로 구상한 메뉴를 시간 안에 만들어 교수님들께 심사를 받는 방식이었다. 파스타, 부침개 등 각 조의 개성만큼 음식의 종류도 다양했다. 불 조절에 실패하기도 하고 서툰 손놀림을 보여주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웃음이 먼저 나왔다. 완성된 음식은 전문적이지 않았고 맛도 보장할 수 없었지만 함께 만든 과정이 그 의미를 대신했다. 대회를 매개로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의 생활적인 모습을 보며 구성원 간의 거리가 눈에 띄게 가까워졌다. 요리대회는 이번 춘계학술세미나에서 국어교육과가 가까워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숙소에서 나와 마지막 일정으로 호미곶에 방문했다. 부드러운 햇살이 내려앉은 바다와 넓게 트인 풍경이 우리를 맞이했다.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공간에서 학우들은 삼삼오오 바다를 바라보거나 사진을 찍으며 잠시의 여유를 즐겼다. 일정을 마친 후 올라탄 버스 안은 편안한 분위기였다. 전날의 웃음과 대화가 남은 듯 굳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어색함이 없었다.

포항에서의 춘계학술세미나는 국어교육과 구성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쌓는 과정이었다. 같은 장소를 함께 걷고, 같은 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은 학우들 사이의 거리를 자연스럽게 좁혀주었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편안함으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일정이 끝날 무렵에 분명하게 느껴졌다. 이후의 학과 생활에서도 구성원 간의 유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들의 짧은 일정 속에서 국어교육과가 가까워진 경험이 모두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

국어교육과로서 함께 느낀 순간들

최지윤('25)



이번 추계학술답사는 정호승 문학관과 소수서원, 소수박물관, 권정생 어린이 문학관 등 다양한 답사지를 함께 방문하며, 문학과 교육이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삶과 공간 속에 살아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다. 각 장소는 저마다 다른 분위기와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그 속을 함께 걸으며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졌다. 그동안 책이나 수업에서 접했던 문학과 교육

이 실제 공간 속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추계학술답사는 단순히 여러 장소를 방문하는 일정이 아니라, 국어교육과 구성원으로서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오래 기억에 남을 경험이다. 답사지를 이동하는 중이나 답사지 내에서 함께 느꼈던 감정들은 국어교육과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만약 각 장소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은 혼자였다면 지나쳤을지도 모를 생각들을 남겼다.

작가의 삶이 묻어있는 전시를 보며 품을 다시 떠올리기도 했고, 오래된 공간에 머물며 ‘교육’이라는 것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답사라는 형식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선을 얻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체육대회와 레크리에이션 시간 또한 웃음과 응원이 이어지며 학우들 간의 거리를 한층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다. 이번 추계학술답사는 학문적인 배움과 함께 사람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진 시간이었다. 같은 전공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을 걸으며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었다는 점에서, 이번 답사는 국어교육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 준 경험이었다.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 답사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함께했기에 의미 있었던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답사는 학문적인 배움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경험이었다.



공모전 활동

토론 앞에서의 첫걸음

- 계명토론대회 참가 소감문 -

김진성('22)



계명토론대회는 국어교육에서도 중요한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력,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2010년부터 꾸준히 개최중인 행사입니다. 이영호 교수님의 권유로 들어가게 된 토론학습동아리에서 계명토론대회를 처음 접했을 때는 12월 6일이라는 날짜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 활동과 행사, 과제 등이 겹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 보니 대회 2주 전에서

야 참가인원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고지된 주제인 ‘조력준엄사를 합법화해야 한다.’와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를 토론학습동아리 부원들과 연습을 해보긴 하였으나 토론대회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어떤 점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인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찬성과 반대 입장이 대회 당일에 정해진다는 점은 준비 과정에서 부담으로 다가왔고, 제한된 시간 안에 논리를 구성하고 상대의 주장을 즉각적으로 파악해 반박해야 한다는 점에서 토론의 난이도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원들과 함께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예상 논거와 반박을 정리하며 모의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은 토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제의 개념과 해외 사례, 관련 법·윤리적 쟁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며 논거를 정리하였고, 실제 토론 상황을 가정해 찬성과 반대를 번갈아 말아 모의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닌 근거 중심의 논리 전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대회 당일 조 추첨을 통해 찬반 입장이 정해졌고, 저희 팀은 조력준엄사 합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짧은 준비 시간 동안 팀원들과 함께 핵심 논지를 다시 정리하고 발언 순서를 조율하며 토론에 임하였으나, 실제 토론이 시작되자 예상보다 훨씬 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상대 팀의 주장을 경청하며 반박할 지점을 찾으려 했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생각을 정리해 명확한 발언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확인 질문 과정에서도 상대의 논지를 충분히 파고들지 못한 채 준비해온 논거를 중심으로 발언하게 되었고, 이는 토론 전반에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저희 팀은 첫 토론에서 탈락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첫 토론에서 탈락했다는 결과만 놓고 보자면 아쉬움이 컸지만, 이번 계명토론대회는 토론이라는 활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조력준엄사와 같이 사회적·윤리적 논쟁이 첨예한 주제일수록 자료의 양이나 주장 자체보다도, 상대의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안의 전제와 한계를 짚어내는 비판적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발언의 명료함과 태도 역시 중요한 요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도전으로 끝났지만, 토론학습동아리 활동과 계명토론대회 준비 과정은 국어교육과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비판적 읽기와 말하기, 그리고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드러난 부족한 점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토론 학습과 수업 활동에서는 보다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토론을 준비하며 서로에게 자극이 되어준 동아리 부원들과, 토론대회 참가를 권유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이영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뤼튼을 활용한 시 창작 수업

- 사범대학 시·에듀테크 창의융합 수업설계 경연대회 최우수상

권현서·안재은('23)

1. 교과서 선정과 그 이유

해냄에듀의 문학 교과서를 선정하였다. 시 창작을 목표로 한 활동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현대 시를 제재로 다루는 교과서를 우선하여 검토하였다. 현대시를 제재로 한 교과서 중 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다루는 해냄에듀의 문학 교과서를 채택하였다. 이 교과서에서는 창작의 과정을 '소재 정하기 → 연상하여 주제 정하기 → 표현하고 다듬기 → 성찰하기'로 직관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막연하게 느끼는 창작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도움말이 된다.

본문 학습에 들어가기 전 '감상의 초점' 부분에서 작품 감상 전 학습자의 태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문 제재에 '영상 시'를 제공하여 문자 텍스트 외에 영상과 청각 자료를 통해 복합 양식 텍스트를 제공한다는 점이 학습자의 작품 감상과 수용 능력을 풍부하게 해준다.

2. 수업 전반에 대한 설명

2.1. 수업 배경설정

학급의 인원은 총 24명으로 4명씩 6모둠을 만들었다고 가정했다. 학생들은 멘티미터와 패들렛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학생 한 명당 노트북이 하나씩 제공되는 환경이라고 가정한다. 학생들은 표현 방법, 어조, 정서, 시의 구조, 작가 의식에 대한 선행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2.2. 적용한 교수·학습 모형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통해서 ‘시 분석’, ‘시 창작’, ‘시 검토와 수정’이라는 문제 상황을 개인·모둠별로 해결할 수 있다. PBL을 바탕으로 설계한 수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본 개념 설명 및 동기 유발-문제 제시-개인별 과제 해결-협동 학습-발표 및 정리’ 순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기본 개념 설명 및 동기 유발 단계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본문 제재, 시를 창작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그리고 ‘AI와 함께하는 창작’이라는 활동은 교과서 학습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 제시 단계에서는 시 분석, 시 창작이라는 문제를 인식한다. 세 번째, 개인별 과제 해결 단계에서는 개인별로 시를 분석한다. 네 번째, 협동 학습 단계에서는 개인별 과제를 토대로 모둠원과 협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개인별로 시를 창작하고 AI와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시를 완성하고 모둠원들과 공유한다. 다섯 번째, 발표 및 정리 단계에서는 모둠별 활동 과정과 결과를 학급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고 교사가 이를 정리한다.

3. 수업 목표

성취 기준은 ‘[12문학01-08] 작품을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창작한다.’, ‘[12문학01-07]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교과서의 대단원 학습 목표는 ‘작품을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창작한다.’이며, 소단원 학습 목표는 ‘새로운 시각에서 일상을 살펴보고 문학 작품을 창작하며, 자신의 관점으로 작품을 재구성해 본다.’이다.

본시의 학습 목표는 ‘1.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고 작품에 드러난 형식·표현법 등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하고 AI 도구를 활용하여 창작한 시를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다.

3.1. 수업 목표 설정 이유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국어과 핵심 역량인 디지털·미디어 역량,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문화 향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작품을 스스로 분석하고 이를 ‘AI와 함께하는 시 창작’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은 국어 교과와 AI를 융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학생들은 작품을 분석하며 문학적 이해를 심화하고, 이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프롬프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기초 소양(언어, 수리, 디지털)을 함양하고, 특히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I의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AI가 생성한 시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학생이 창작한 시를 수정한 결과를 토대로 작품의 특징과 시적 상황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창의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동시에 증진할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문해력(이해력)을 고양하며, AI 시대에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

4. 차시별 수업 소개

4.1. 1차시 : 교과서 학습

전체적으로 직접 교수법으로 진행한다. 교과서를 120쪽부터 124쪽까지 학습한다. 이때 교사는 본문 『여섯 결레 양말』에 사용된 표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짚는다. 이후 학생은 124쪽부터 126쪽을 참고하여 창작의 과정을 학습한다.

4.2. 2차시 : 활동 예고

3차시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교사는 AI와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가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프롬프트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어서, 3차시 활동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모듈 편성을 하고 교사가 미리 선정한 작품 3개를 각 모듈에서 선택(활동지①)하도록 한다. 작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육사의 「청포도」, 윤동주의 「서시」를 제시하였다. 「진달래꽃」은 역설법, 슬픔의 정서, 수미상관의 구조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청포도」는 색채 대비, 음성상징어 활용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마지막 「서시」는 과거-미래-현재의

구성, 종결어미 ‘-다’의 반복이 나타나며 의지를 강조한다는 주된 특징을 갖고 있다. 남은 시간에 학생들은 개별로 시를 분석한다. 수업 시간 내에 수행하지 못한 학생에게 3차시까지 과제(활동지②)로 해 올 것을 지시한다.

4.3. 3차시(본시) : 활동

멘티미터를 활용한 동기 유발을 진행한다. 교사는 개인별 과제(활동지②)를 수행했는지 확인한다. 학생들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원들과 모여 합의의 과정을 거쳐 시의 특징을 완성(활동지③)한다. 시의 특징을 반영하여 대주제 ‘학교생활’ 중에서 소주제를 정하고, 시적 상황을 설정(활동지④)하고 이에 맞는 시를 창작(활동지⑤)한다. 학생들은 시의 특징과 상황, 창작한 시를 워튼에 입력하여 평가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완성한 시는 패들렛에 게시한다. 학생들은 활동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개인별로 작성(활동지⑦)하고 발표한다.

4.4. 4차시 : 발표 및 논의, 교사의 정리

모둠에서 창작 결과물을 공유하고 동료평가(학습지⑧)를 진행한다. 각 모둠에서 선정된 학생은 학급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다. 학생은 창작한 시와 AI와의 수정 과정을 공유한다. 교사는 학생이 시를 분석한 결과와 시 초안,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시를 수정한 과정을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발표가 끝난 후에 교사는 발표를 요약하고 피드백하며 정리한다. 마무리 단계로 교사는 ‘AI와 창작’을 주제로 한 생각거리를 제시(활동지⑨)하여 학생이 사고를 확장하도록 유도한다.

5. 에듀테크 도구

5.1. 멘티미터 (mentimeter)

멘티미터는 발표나 수업에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워드클라우드, 객관식 설문, 퀴즈 등 다양한 질문 유형으로 학생들의 생각을 모을 수 있다.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이 큰 화면에 즉각적으로 눈에 띄는 형태로 나타나 모두의 의견을 한눈에 확인하고, 더 활발한 토론이나 흥미로운 수업을 만들 수 있다.

수업 도입부에 학습자가 '학교생활'이라는 대주제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단어들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시각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익명 기반의 실시간 참여는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도록 독려하며,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시각화된 결과는 구체적인 소주제를 선정하는 데 영감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학습의 시작부터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AI 활용 수업에 대한 흥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

5.2. 뤼튼 (wrtn)

뤼튼은 GPT-4.5, Claude 3.7, Gemini 2 등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과 실시간 검색 결과 등을 통합 활용하여 답변을 생성하는 AI 도구이다. 답변 왼쪽 아래 답변의 출처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뤼튼은 작품의 특징을 프롬프트 형태로 입력했을 때, 이를 학습하여 새로운 시를 피드백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프롬프트 입력과 결과물 산출을 여러 번 수행하며 학습자는 프롬프트 작성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경험 학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는 AI가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성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시가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체험하며 AI의 잠재와 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더 나아가 AI 활용 능력까지 함양할 수 있다.

특히 뤼튼은 ChatGPT가 만 18세 이상부터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

에 비해, 만 14세 이상 사용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수업에서 활용의 편리성이 있다.

5.3. 패들렛 (padlet)

패들렛은 온라인 포스트잇 게시판으로, 온라인 공간에 글이나 사진과 같은 자료를 포스트잇처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도구이다. 학생들은 패들렛을 통해 결과물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결과물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사용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6. 본시 소개

교과명	문학		학년/학기	11학년/2학기
교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해냄에듀		지도교사	권현서, 안재은
일시	2025. 11. 14		대상 학급	2-5
단원	대단원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차시	3/4
	소단원	(3) 문학의 재구성 과 창작		
성취 기준	[12문학01-08] 작품을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창작한다. [12문학01-07]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감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에 대해 비평한다.			
학습 목표	대단원	작품을 읽고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창작한다.		
	소단원	새로운 시각에서 일상을 살펴보고 문학 작품을 창작하며, 자신의 관점으로 작품을 재구성해 본다.		
	본시	1.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고 작품에 드러난 형식·표현법 등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하고 AI 도구를 활용하여 창작한 시를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모형)		PBL(Problem Based Learning) 모형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시간	학습 자료 및 유의점
과정	단계	교사	학생		
도입	학습 분위기 조성	▶학생들과 인사하며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사의 말에 답하며 학습할 준비를 한다.	30'	
	전시 학습 확인 및 학습 동기 유발	▶부과한 과제를 잘 수행했는가를 확인한다. ▶멘티미터에 접속하여 창작할 시의 대주제인 ‘학교생활’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를 자유롭게 입력하도록 지도한다. ▶멘티미터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단어들을 보면서 몇 가지 단어를 선정하여 그 단어를 활용한 시적 상황의 예시를 든다. 예) 여러분들이 친구랑 선생님을 많이 입력했는데, 친구랑 같이 쉬는 시간에 수다를 떨었다거나, 선생님에게 혼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상황을 설정해서 시를 창작해 보면 좋겠조?	▷개인별로 수행한 과제를 물을 꺼낸다. ▶멘티미터에 접속하여 ‘학교생활’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를 자유롭게 입력한다. ▷교사가 제시한 예시를 듣고 소주제를 생각한다.	7'	-전자기기, 멘티미터 활용 -전자기기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가 산만해 지지 않도록 한다.
	학습 목표 제시	▶학습 목표를 함께 읽도록 안내한다. ▶이번 차시의 활동 내용을 간단히 설명한다.	▷학습 목표를 함께 읽으며 목표를 확인한다. ▷이번 차시의 활동 내용을 이해한다.	1' 30"	

전개	활동1 (모둠 활동)	<p><활동지 ③></p> <p>▶개인별로 분석한 작품의 특징을 모둠원들과 종합하도록 지도한다.</p> <p>▶순회 지도를 하며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돕는다.</p>	<p><활동지 ③></p> <p>▷개인별로 분석한 작품의 특징을 모둠원들과 종합한다.</p> <p>▷모둠원 간의 의견 차이를 잘 조율하며 종합한다.</p>	3'	<p>활동지, 전자기기, 워튼 AI, 패들렛 활용</p> <p>- 전자기기 사용으로 수업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한다.</p>
	활동2 (개별활동)	<p><활동지 ④></p> <p>▶도입 활동을 상기하여 대주제 '학교생활' 중 분석한 작품의 특징에 어울리는 상황을 소주제로 설정하도록 지도한다.</p> <p>▶순회 지도를 하며 작품 특징에 적합한 소주제를 선정했는지 확인한다.</p>	<p><활동지 ④></p> <p>▷도입 활동을 상기하여 대주제 '학교생활' 중 분석한 작품의 특징에 어울리는 상황을 소주제로 설정한다.</p> <p>▷주제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p>	3'	
		<p><활동지 ⑤></p> <p>▶모둠별로 합의한 작품 분석 결과와 소주제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하도록 안내한다.</p> <p>▶순회 지도를 하며 시 창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다.</p>	<p><활동지 ⑤></p> <p>▷모둠별로 합의한 작품 분석 결과와 소주제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한다.</p> <p>▷시 창작에 어려움이 있을 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p>	15'	
	활동3 (개별 활동)	<p><학습지 ⑥></p> <p>▶워튼에 창작한 시를 입력하고 의도한 시의 특징과 상황이 잘 드러나는 지 물어보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도록 한다.</p> <p>-교사는 학생들이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학습지에 프롬프트의 예시를 첨부한다.</p> <p>▶워튼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요청</p>	<p><학습지 ⑥></p> <p>▷학생들은 활동지의 예시를 참고하여 워튼에 자신이 창작한 시를 입력하고, 의도한 시의 특징과 상황이 잘 드러나는 지 물어보는 프롬프트를 입력한다.</p> <p>-AI 챗봇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어로 AI 프롬프트를 작성한다.</p> <p>▷워튼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싶은 부</p>	7'	

		<p>하도록 한다.</p> <p>▶AI의 결과물에 학생이 의도한 바가 잘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p> <p>-분석한 작품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가, 설정한 시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가 등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p> <p><패들렛 활동></p> <p>▶모둠별로 완성한 시를 패들렛 게시판에 업로드하도록 지도한다.</p>	<p>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요청한다.</p> <p>▷결과물과 자신이 의도한 바를 확인하며 프롬프트를 추가적으로 입력하여 시를 수정해나간다.</p> <p><패들렛 활동></p> <p>▷모둠별로 완성한 시를 패들렛 게시판에 업로드한다.</p>		
정리 및 평가	활동 결과 확인 및 정리	<p><활동지⑦></p> <p>▶이번 차시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개인별로 활동지에 작성하도록 지도한다.</p> <p>▶남은 수업 시간을 고려하며 1~2명 정도의 학생에게 작성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지도한다.</p>	<p><활동지⑦></p> <p>▷이번 차시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을 개인별로 활동지에 작성한다.</p> <p>▷작성한 내용을 발표한다.</p>	8'	활동지를 활용한다.
	다음 차시 예고	<p>▶다음 차시에 대해 예고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p> <p>- 결과물 발표</p>	<p>▷다음 차시 내용을 확인한다.</p>		

7. 평가와 피드백

7.1.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활동지 7번 ‘나와 모둠원들이 창작한 시를 평가해보자’에서는 ‘학교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잘 선정하였는가?’, ‘작품을 분석한 내용이 작품에 잘 드러났는

가?', '수정을 위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였는가?'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여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자기평가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시를 조건에 맞춰 잘 창작하고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시에 시의 특징과 시적 상황을 더 잘 드러나게 수정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워튼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확인·검토하고 프롬프트를 추가하며 시를 수정해가는 과정은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점검·수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모둠 학생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과 자신의 모둠의 활동을 비교하며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학습하고 자신의 방식을 성찰할 수 있다. 수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는 학생들의 메타인지를 돕는 역할을 한다.

7.2. 교사 평가

교사는 학생이 활동지를 작성하고, 시를 창작하고 워튼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수정하는 전 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수행 능력 향상을 돕는다. 학생들은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 그 내용을 자신의 사전 지식과 연결하며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다.

다음은 평가 루브릭이다.

평가항목	상(25점)	중(20점)	하(15점)
1. 시의 특징 분석	선정한 시의 특징을 깊이 있게 다각도로 분석하고, 모둠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선정한 시의 특징을 대체로 잘 분석했으나, 깊이 있는 통찰이나 다각적인 접근이 부족함. 분석 내용이 다소 추상적임	선정 시의 특징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거나, 분석 내용이 부정확하고 불충분함.
2. 시의 특징 활용	분석한 시의 특징이 창작 시에 유기적으로,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작품의 완성도를 높임. 창작 의도와 분석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남.	분석한 시의 특징을 창작한 시에 반영하려 노력했으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드러남. 반영된 특징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분석한 시의 특징을 창작한 시에 거의 반영하지 못했거나, 반영된 내용이 부적절하여 작품의 흐름을 방해함. 시와 분석 내용 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움.

3. AI와의 수정 과정	<p>뤼튼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를 다각도로 수정하고 보완하였으며, 뤼튼과의 대화 과정에서 자신만의 창작 의도를 더욱 명확히 하고 발전시켰음. 구체적인 수정 이력과 과정에 대한 성찰이 돋보임.</p>	<p>뤼튼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시를 수정했으나, 피드백을 심도 있게 활용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수정에 그침. 수정 과정에 대한 자기 성찰이 다소 부족함.</p>	<p>뤼튼의 피드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거나, 수정 과정 없이 초고를 그대로 제출함. 뤼튼과의 상호작용이 없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침.</p>
4. 모둠원들 간의 공유와 협업	<p>자신의 창작물과 뤼튼과의 수정 과정을 모둠원들에게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공유하고, 다른 모둠원의 창작물에 대해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활발하게 협력함.</p>	<p>자신의 창작물과 수정 과정을 모둠원들에게 공유했으나, 내용 전달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극적인 피드백 교환이 부족했음. 협력 과정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p>	<p>자신의 창작물이나 수정 과정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거나, 모둠 활동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에 기여하지 못함.</p>

8. 교육적 효과

첫째, AI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다. 학생들은 본 수업을 통해 자신이 창작한 시가 의도한대로 창작되었는지 AI에게 평가받고, 조건을 추가하며 시를 수정해 나가는 활동을 수행한다. AI가 평가한 결과물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하는 절차는 학생이 AI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본 수업은 전문적인 작가 양성이 아닌 학생이 실제 창작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의 직접 경험을 통해 작품 이해와 감상 능력을 신장하는 것은 스스로 한 편의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 AI에게 작품을 평가받는 상황,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 또한 작품의 특징을 개별 분석하고 모둠원과 상의하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형식, 표현법 등 작품의 특징을 더욱 깊이 있게 파고들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문학적 감수성과 분석

능력을 극대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궁극적으로 이 수업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고유의 가치를 인지하고 AI와 협업하여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수업이 될 것이다.

<문학>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3) 문학의 재구성 과 창작	2학년 반 번 이름:
<학습 목표> 1. 작품을 공감적·비판적·창의적으로 감상하고 작품에 드러난 형식·표현법 등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2.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를 창작하고 AI 도구를 활용하여 창작한 시를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다.	

1. 아래의 세 작품 중 선정한 작가와 작품명을 써 보자.

(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영변 : 평안북도의 한 지명 *약산 : 영변 서쪽에 있는 산	(나)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이육사, 「청포도」
---	--

(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 윤동주, 「서시」

선정한 작품 :

2. 선정한 작품을 분석해보자.

- 표현 방법 예) 비유, 반어, 역설, 반복, 감각적 이미지, 도치법 등	
- 정서 예) 그리움, 슬픔, 외로움, 기쁨, 절망, 평화로움, 안정, 분노, 경외 등	
- 구조 예) 수미상관, 연과 행의 개수, 기승전결, 점층적, 선경 후정, 산문시 등	
주제 의식(중심 소재) 예) 사랑, 이별, 성찰, 자연 등	
- 기타:	

3. 분석한 작품의 특징을 모둠원들과 공유하고 종합해 보자.

4. 분석한 특징을 고려하여 시로 창작할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자.

예) 경어체 사용이 특징 -> 선생님, 부모님을 대상으로 설정하기

5. 분석한 시의 특징과 설정한 시적 상황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해 보자.

6. 다음 프롬프트 예시를 참고하여 AI에게 피드백을 받고 수정해 보자.

피드백 프롬프트 예시	수정 프롬프트 예시
<p>〈어두운 밤, 3층 자습실〉 스탠드 불빛만이 외로운 등대처럼 서 있다 카페인에 취한 심장은 불규칙적으로 뛰고 나는 달콤한 불면 속에 밝은 내일을 꿈꾼다</p> <p>이 시는 역설법, 4행의 구조의 특징을 사용하여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는 상황을 표현해봤어. 이 시에 특징과 상황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지 판단해줘.</p>	<p>역설법을 더 강조해보고 싶어. 4행이라는 특징을 더 살려보고 싶어. 주변이 어둡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p>

* AI과의 대화를 통해 완성된 시는 페들렛에 업로드해 보자.

7.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써 보자.

--

8. 나와 모둠원들이 창작한 시를 평가해 보자.

기준 이름	학교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잘 선정하였는가?	작품을 분석한 내용이 작품에 잘 드러났는가?	수정을 위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였는가?
나	☆☆☆☆☆	☆☆☆☆☆	☆☆☆☆☆
	☆☆☆☆☆	☆☆☆☆☆	☆☆☆☆☆
	☆☆☆☆☆	☆☆☆☆☆	☆☆☆☆☆
	☆☆☆☆☆	☆☆☆☆☆	☆☆☆☆☆
	☆☆☆☆☆	☆☆☆☆☆	☆☆☆☆☆

9. 더 생각해 보자.

<p>Q. AI가 만든 시는 누구의 것인가?</p> <p>Q. AI가 시를 배꼈다면 저작권 문제는?</p> <p>Q.</p>

함께 버티는 마음의 온도

- '책에 미친 비사야' 최우수상작

김슬기('22)

당신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모두 마음 속에 그런 충동을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바쁜 일상에서, 혹은 관계의 피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다, 문득 모든 걸 내려놓고 낯선 곳으로 멀리 떠나고픈 순간. 나는 이 책을 읽으며 그런 마음을 품은 '강하고'의 그림자를 보았다.

이름과는 다르게 자신을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으로 치부하며 현대사회의 압박에 무력함을 느끼고 있던 그는 누군가에 의해 지친 도시에서의 삶을 떠나 바닷가 마을에서 눈을 뜨게 된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얼굴, 세월이 새겨진 손등, 그리고 묵묵히 이어온 삶의 시간. 새로운 장소에서 눈을 뜬 그녀를 반기고 있던 건 세상의 중심에서 조금 비껴나 있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게 살아온 할머니들이었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며 '강하고'는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온기를 발견한다. 구절초리의 할머니들은 각자의 고된 세월을 안고 살아온 인물들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챙기고 웃으며 살아간다. 그 단순한 행위 속에는 자연스러운 '연대'가 깃들여 있었다.

오늘날의 사회는 개인의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한다. 일상이 되어버린 경쟁의 늪에서 우리는 타인을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비교의 대상'

으로 여긴다. SNS 속 ‘잘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인간관계는 얇은 연결로만 유지된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혼자’를 택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혹은 바쁘다는 이유로. 소셜 속 ‘강하고’가 느꼈던 고립과 무력감은 바로 현대인의 자화상이다. 그에게는 누군가의 위로와 시선이 절실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런데 구절초리의 할머니들은 달랐다. 그들이 내민 손에는 어떠한 조건도, 대가도 없다. 대신 ‘함께 하자’는 묵직한 체온이 담겨 있다. 여기서 나는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을 떠올렸다. 아플 때 누군가 내 옆에 조용히 곁을 지켜준 기억, 외로울 때 말없이 밥 한 끼를 함께 했던 따뜻한 순간들. 그건 거창한 위로나 조언이 아니었다. 힘든 순간 나를 혼자가 아니게 만들어 주었던 시간이었다.

작품을 읽으며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온 ‘강함’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었나 반문하게 되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신의 영역을 완벽하게 지켜내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은 한편으로 너무나 가혹한 고립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현대의 개인주의적 강함은 우리를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삶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인 노화, 질병, 상실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 작가는 결국 ‘내가 왜 강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끝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진짜 강함은 ‘혼자 견디는 힘’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며 다시 일어나는 힘’이라는 것을.

할머니들은 작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란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웃을 때 비로소 하루가 완성되는 거야.” 그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증명한 진실이다. 구절초리의 마을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곳의 일상은 정직하고 다정하다. 서로의 집을 오가고, 가끔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한다. 그들은 ‘함께’ 살아간다. ‘강하고’는 그들의 생활에서 인간의 온기를 배우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는다. 할머니들의 서로를 돌보는 행동에서 묻어나오는 ‘연대’는 조용하지만 단단하다. 그 힘이 바로 ‘강하고’를, 그리고 독자들을 일으켜 세운다. 이 책의 아름다움은 그 깨달음을 이상적인 말로만 그리지 않기 때문이다. 구절초리의 할머니들도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서로 싸우고, 짜증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함께 하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연대는 피어난다.

책을 덮은 뒤에도 구절초리 마을의 바닷바람 소리가 마음속에 남아있다. 세상은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고 외롭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그 외로움조차 견딜 만해진다. 세상이 조금 각박해졌다고 느낄 때마다,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내 안에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간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는 언젠가 누군가의 곁에 조용히 서서, 그 사람의 하루를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한다.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고, 세월에 닳아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 그렇게 나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

조급함의 뿌리를 찾아서: 느린 발걸음이 열어준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의 세계

- ‘책에 미친 비사야’ 우수상작

이호연('22)

지하철 도착 시간이 1분도 안 남았을 때,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천천히 내려가시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다. 순간, 내 안에서 솟아나는 조급함의 감정을 발견했다. 지금 오는 지하철을 놓치면 모든 일정이 뒤처지고, 틀어진다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발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이미 그 지하철은 지나갔고 놓쳐서 마음이 뒤숭숭하던 그 순간, 이제야 막 내려오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느린 발걸음은 곧 사회가 정의한 효율과 경쟁에서 밀려날 미래의 내 모습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다. 곧이어 나의 짜증은 지하철 때문이 아니라, 나이 들을 곧 비효율로 여기고 본능적으로 거부하려는 내 안의 불안이었던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할머니는 그저 자신만의 속도와 존엄을 지키며 하루를 살고 계셨을 뿐인데 말이다.

이러한 노년의 불안을 안고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를 펼쳤을 때, 책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주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열어주었다. 책 속의 할머니들은 타인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는 강함이 느껴졌다. 그녀들은 내게 나이 드는 것이 불안과 움츠러드는 약점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확고히 지키는 단단함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책 표지에는 3명의 강하고 힘센 근육질 할머니들이 등장한다. 책을 읽기 전, 이 책이 겉모습이나 외면의 '강함'과 '예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지 생각했다. 그러나 내 예상과 달리 책 속의 강함과 아름다움은 내가 생각한 외면적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다. 할머니들은 주름을 감추거나 세상의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세월의 흔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당당함을 보여준다.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강함이 책을 보는 내내 느껴졌다. 주인공 '강하고'에게 자신이 겪은 세월을 바탕으로 신세 한탄이나 훈계가 아닌, 삶의 경험과 지혜를 숨기지 않는 것과 이러한 지혜나 다정함을 타인과 나누려는 태도에서 진정한 아름다움과 강인함의 정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할머니들의 삶의 방식은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효율만을 추구하는 현실 속 경쟁에서 밀려나는 비극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중심과 가치관을 확고히 세울 수 있는 '단단함'을 완성하는 숭고한 과정임을 말이다. 이 책은 몸도 마음도 지친 청년 '강하고'가 어디서도 보기 힘든 강하고 힘센 근육질 할머니들과 바다 마을 '구절초리'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의 의지와 나아갈 용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다.

구절초리 할머니들은 완전히 지쳐 망가진 '강하고'를 단순히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다. '강하고'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존중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돌봄을 제공한 것이 큰 의의가 있다. 단순한 말의 위로가 아닌, 끼니를 챙겨주고, 체육대회에 함께 데려가고, 차를 제공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면들은 혈연을 뛰어넘는 강인한 연대와 돌봄의 공동체가 지친 현대인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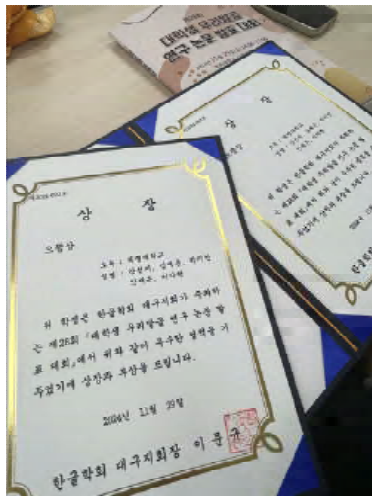
할머니들은 훈계가 아닌, 지쳐있는 '하고'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을 심어주고자 했다. 특히 복자 할머니의 “*아까도 말했잖아. 온통 쓴 것만 삼키는 인생이, 기다린다고 달콤해져? 쓴 건 콧 빨고, 얼른 단 걸 집어삼켜야지. 그래야 인생도 끈적해지지. 꼭 달고나 녹은 거처럼 놓고 싶지 않아진다.*”라는 말은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는 고통과 상처에만 머무르지 말고 삶의 즐거움을 적극적으로 움켜쥐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투박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이 말들은, 방황하던 나에게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주체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결국 『강하고 아름다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는 표지의 근육질 할머니들처럼 단 순히 외적인 강함이나 건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었다. 이 책은 타인의 속도와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사는 삶’의 가치를 묵직하게 전해주는 주체성 회복 의 이야기다. 책이 제시한 ‘강함’과 ‘아름다움’은 세월을 견뎌낸 존재의 존엄이며, 자신이 쌓은 경험과 지혜를 기꺼이 나누는 연대의 정신 그 자체였다.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만난 할머니의 느린 발걸음이 나에게 던졌던 불편한 생각들, 즉 ‘나이 들은 곧 사회의 비효율인가’에 대해 이 책은 ‘아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단단 함을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라고 명쾌하고 따뜻한 대답을 나에게 건네 주었다.

대학생 우리말글 논문발표대회 소감문

김도이('24)



2025년 11월 28일, 학술동아리 한국어데이터분석연구반에서 K-Circle 활동을 한 2학년 김도이, 이다현, 3학년 안재은, 이유진 총 4명의 학우와 지도교수 박선우 교수님이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대표해 제29회 한글학회 대구지회가 주최하는 ‘대학생 우리말글 논문 발표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대회에는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와 국어교육과 등 총 4팀이 참가하여 경합을 벌였습니다.

저희 KLE KoNLP팀은 1학기에 R프로그래밍을 사용하여 코딩의 기초를 학습하였고, 2학기에는 발표를 목적으로 “R코딩 텍스트마이닝과 생성형 AI 텍스트마이닝 결과에 대한 비교 분석 - ‘문법교육’ 관련 연구논문 초록 텍스트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중 ‘문법교육’을 키워드로 하는 논문 1,574편을 수집하였으며, 그중 국문 초록이 포함된 653편을 분류하

여 텍스트를 추출했습니다. 이후 추출된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기에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고 특수 부호를 제거하는 등 총 7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는 R 코딩의 엘버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형태소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정제된 데이터와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각각 생성형 AI인 클로드 4.5, 챗GPT 5, 제미니 2.5에게 제공하여 분석한 뒤, R 코딩 결과물과 AI의 결과물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팀원들은 형태소 분석기를 돌리기 전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는 작업과 띄어쓰기를 제거하는 작업등을 나누어 맡으며 협동심을 발휘했습니다. 논문 작성을 위해 파트를 나눠 보고서를 작성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한 후 함께 첨삭했습니다. 이를 통해 함께 진행한 연구가 한 눈에 정리되었고 결과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대회 당일 발표는 저와 2학년 이다현 학우가 맡았습니다. 발표에 앞서 국어교육과 돈을벌 학술제 당시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발표 시간, 자세, 말의 빠르기, 크기, 청중과의 눈맞춤 등을 개선하였고, 최종 발표문을 함께 검토하며 수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교수님과 팀원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기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긴장 속에서 발표를 시작했지만, 교수님과 팀원들의 응원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구 지역어의 어휘적 변화 양상 연구 - 2025년 대구 지역어 조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남북 연합 단계'를 대비한 고등학교 국어 통합 교과서 개발 연구 - 남·북한의 언어관과 언어적 이질성 관련 교과서 단위 개발 연구,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역사자료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독립신문』의 계량언어학적 연구 - 독립신문(1886~1889) 논설문의 명사 어휘를 중심으로의 발표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저희 팀은 으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문규 교수님께서 코딩의 어려운 부분을 소화해 새로운 영역을 탐구한 점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학기 동안 매주 만나 함께 고민하던 시간이 마무리되어 후련하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학문적 영역을 접하며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발언대



학생회 [열:음], 2025학년도의 기록

장윤아('23)



안녕하십니까. 제14대 국어교육과 부학회장 장윤아입니다. 어느덧 2025년 한 해가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번 2025년도는 그동안 견고히 내실을 다져온 우리 국어교육과의 도약의 해였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14대 국어교육과 학생회 [열:음]의 활동을 돌아보며 지나간 시간과 추억들을 회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14대 학생회의 경우, 이전까지 이어오던 학생회 연임제에서 벗어나 새로 개편된 각 부서에 적합한 학우를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따라 1월에는 면접을 통해 학생회 인원을 재결성하였습니다. 이후 2월에는 결성된 학생회 인원과 함께 춘계학술세미나를 준비하며 다양한 장소를 사전답사하여 정기 회의를 진행하는 등 행사의 질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월 25일에는 국어교육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학과에 대한 소개와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기소개서 및 미니게임을 준비하여 신입생 동기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을 계획하였습니다. 25학번 신입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이후 서로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로 OT를 언급하기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국교생활 길잡이>를 지속적으로 간행하여 수강신청, 졸업요건, 학술동아리 등 신입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따뜻한 봄, 3월에는 ‘국.친.바(국교야! 친해지길 바라)’ 행사를 필두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친.바’ 행사는 금전적인 부담과 다소 길다고 느낄 수 있는 행사 기간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3월 10일부터 3월 27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어교육과 과방에는 다양한 학년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남긴 사진과 추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이후 개강총회를 통해 1학기 주요 학사 일정 및 학과 활동에 대한 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3월부터 <열:음이 전하는 교육이슈> 게시물을 지속적

으로 간행하며 국어과 중등 임용, AI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를 넓혀 사범대학 학생으로서의 소양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3월 말에는 경상북도 포항시로 추계학술세미나를 진행하였으며,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탐방, 요리대회, 교수님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우들과 교수님들이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5월에는 평소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범대학 행사인 해오름제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고? 전국 사투리능력고사’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야간행사에서는 ‘홍부와 놀부’를 주제로 한 연극을 진행하여 국어교육과만의 특색을 뽐냈습니다.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6월에는 현직교사 임용 특강과 기말고사 응원 간식행사를 비롯하여 ‘공부인증챌린지’를 통해 학우들의 학업 매진을 응원하는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 개강총회를 시작으로 하여, 추계학술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계학술답사는 경상북도 영주시로 떠나 정호승 문학관,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 낙동강 박물관을 견학하며, 공간과 텍스트를 통해 문학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에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한글 발자취'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이유로 최근 몇 년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한글날 행사를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암관과 과방 등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여 한글과 관련된 미션을 직접 수행하고 도장판을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타과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

여, 한글날과 한글의 의미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타과생을 포함한 총 73명이 ‘한글 발자취’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11월에는 국어교육과의 전통 있는 행사, 돈을벌 학술제가 열렸습니다. 총 2일간 진행되었으며, 1일차에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도전! 국교 골든벨’ 행사를 통해, 전공 지식을 비롯한 다양한 교양적 요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제에서 처음으로 ‘90초안에 톨아보기!’ 영상제를 도입하여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언어와 문학이 가진 힘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3학년 학우들을 대상으로 ‘AI 및 교육공학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시연 설계대회’를 진행하여, 생성형 AI, 자작자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설계과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일차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하는 ‘학술동아리 발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학술제에서는 그간 도입되지 않았던 영상제를 언어와 문학과 결합해 선보이며 학술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후 12월에는 종강총회를 진행하여, 2학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행사를 돌아보고 학회비 사용 내역 및 홍보 활동 결과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제14대 국어교육과 학생회 [열:음]은 학우들의 학업과 교류를 지원하고 과 전체의 결성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운영해 왔습니다. 모든 행사는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의미 있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회 또한 많은 배움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본 활동 결산이 한 해의 기록이자 다음 활동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어질 국어교육과 학생회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을 비추는 국어교육과의 돈을별

김희원('22)

안녕하십니까. 제15대 국어교육과 학회장 김희원입니다. 먼저,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우들을 위해 훌륭한 강의를 제공해 주시며 막중한 업무와 연구로 바쁘신 와중에도 학과 행사에 참여하시어 국어교육과를 빛내주신 박선우 교수님, 이영호 교수님, 윤호경 교수님, 울리아나 코바코바 교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25년은 다양한 행사와 학우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학과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을 빛낸 제14대 국어교육과 학생회 임원과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우 여러분과 학과의 원활한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국어교육과 조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처음 우리 국어교육과에 들어왔을 때의 어리고, 철없던 제가 이제는 15대 학회장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우리 과 선배, 동기들과 함께한 시간이 아니었는지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성장치가 국어교육과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가능한 성장이었다 회상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여러분께 강조했던 것은 ‘함께 성장하기’입니다. 또 학회장에 당선이 되어서 저 스스로 다짐한 것 또한 ‘함께 성장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더 즐거운 학과 활동이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아닌 ‘우리’가 함께할 때 더 먼 곳으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2026년의 국어교육과가 빛나는 이야기

를 쓸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즐거울 수 있고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고심하는, 그리고 시도하고 실천하는 학회장이 되겠습니다.

2026년 국어교육과 학생회는 단순히 행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넘어, 학우 여러분이 학과 안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학생회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장점은 계승하되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활동을 기획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를 꿈꾸는 학우들이 학과 생활 속에서 교사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학생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모든 과정에서 학우 여러분의 의견을 운영의 기준으로 삼아, 참여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아닌 즐거움으로 남는 학생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으로, 대학이란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이제 처음 성인이 되어 오는 첫 장소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20대의 초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소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렘 가득한 공간에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활동을 꾸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을 우리 국어교육과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뢰가 선물이 되어 여러분들께 찾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2027년의 해가 밝기 전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2026년이 행복하고 그리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관은 힘이 세다

이영호 교수

작년 봄 무렵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업무 차 천안으로 1박2일 출장을 갔다가 몇 차례로 이어지는 술자리에 계속 동석을 하게 되었다. 체질적으로 술이 약하고 평소에 즐기지 않는 터라 대용품으로 탄산음료를 들이켰는데 3차 자리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고, 그 이후로 역류성식도염을 앓게 되었다. 병에 들기는 쉽지만, 낫기는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목에 이물감으로 불편한 느낌이 지속되어 문득 커피를 끊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다. 수십 년을 함께 해 온 기호품을 하루아침에 끊어내는 것이 어려우리라 예상했지만 실행해보니 차라는 대체품도 있고 금단현상도 잠깐이어서 생각보다 수월했다. 병이 마음만큼 호전되지 않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예전보다 숙면을 취하게 되는 등 좋은 점이 많이 생겼다.

커피를 끊은 일을 계기로 자신감이 생겨 올해 들어서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을 중단하기로 마음먹었다. 언젠가부터 업무에 시달리다 집으로 늦게 돌아오는 밤이면 멍하니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잦아졌다.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튜브 동영상을 보는 자체가 스트레스 거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유튜브 시청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지금까지 잘 지켜나가고 있다. (물론 유튜브 동영상 자체를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보 검색을 하다가 필요한 동영상이 있으면 시청하지만,

시간을 때울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저녁 시간이 한결 즐겁고 여유로워지는 장점이 생겼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자. 아마도 각자 삶의 지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가능할 것이다. 어떤 이는 돈 버는 일을, 어떤 이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일을 일컬을지 모른다. 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좋은 습관을 들이는 일’이라 말하고 싶다. 인생의 가치는 한 번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언가 남들이 해보지 못한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신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에서 좋은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배달음식에 의존하고,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거나 불규칙한 생활패턴에 물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된다. 걱정이 많이 된다.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건고한 일상 속에 행복이 깃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남들보다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삶의 지혜가 이 한 마디에 응축되어 있다고 여겨진다. 2026년 올 한해는 나를 포함해서 국어교육과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꿔 나가보면 어떨까? 습관은 힘이 무척 세서, 이런 노력이 우리를 더 좋은 ‘나’로 만들어 주리라 확신한다!

학교현장실습 후기 (1)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다렸던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

이호연('22)



나에게 학교현장실습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간인 동시에,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경험이었다. 4학년이 된 후로는 '이제 정말 교실에 서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늘 따라다녔다. 5월, 나는 나의 모교인 주문진고등학교에서 실습을 시작했다. 학생으로 3년을 보냈던 익숙한 교정이었지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달고 마주한 학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왔다.

고등학생이라는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은 처음부터 험사리 결을 내어주

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하게 목례를 나누거나, 교생이라는 존재를 신기한 듯 바라보면서도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했다.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나는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며 누구보다 밝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유행하는 말이나 관심사를 조심스레 물었다.



첫 주에 배부한 ‘선생님께 나를 소개해요’ 설문지는 아이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지도였다. MBTI부터 시작해 좋아하는 과목, 심지어는 말하기 힘든 고민까지 정성껏 적어 내려간 글자들을 보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가진 고유한 빛깔을 읽을 수 있었다. 상담 시간, 교사를 꿈꾸는 학생의 반짝이는 눈망울에 내 수험 생활의 노하우를 전하고, 성적 고민에 고개를 떨군 학생의 어깨를 토닥이며 깨달았다. 지식을 전달하기에 앞서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 즉 ‘관계의 형성’이 수업이라는 집을 짓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2주차, 지도교사로부터 배정받은 ‘주장하는 글’ 단원으로 첫 수업에 나섰다. 대학 강의실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실제 교실의 공기는 차가웠다. 내가 던진 질문은 교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돌아왔고, 아이들의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 나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긴장한 탓에 손바닥엔 땀이 맺혔고, 시계

초침 소리는 유독 크게 들렸다.

특히 ‘판서할 때 등 보이지 않기’라는 교직 이론을 지키려 애쓰다 보니, 정작 칠판에 적힌 글씨는 삐뚤삐뚤 엉망이 되어버렸다. 수업 후 텅 빈 교

실에 남아 반성했다. 형식에 얽매여 아이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후 나는 관서를 할 때는 잠시 등을 돌리더라도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돌아선 뒤에는 아이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핵심을 짚어주는 방식으로 나만의 리듬을 찾아갔다. 교과서 속 이론이 현장의 생동감과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수업이 완성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배운 시간이었다.

3주차에는 동료 실습생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일과 중 빈 시간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수업을 관찰하며 현장의 노하우를 배우는 데 집중했다. 같은 교과 수업이라도 교사의 발문 방식이나 학급 경영 스타일에 따라 교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으며, 이를 통해 나만의 수업 스타일은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다.

무엇보다 이 시간은 4주차에 예정된 연구 수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러 차례의 수업 참관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지점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지, 반대로 어떤 활동에서 눈을 반짝이며 반응하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관찰 결과, 학생들은 교사의 일방적인 설명보다 본인이 직접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에 훨씬 더 큰 흥미를 느낀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4주차 연구 수업을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 참여 중심의 활동형 수업으로 구성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4주차에는 실습의 하이라이트인 연구수업을 진행했다. 나는 매체 단원을 선택하여 '남북한 언어의 차이 이해와 통일어 만들기'를 주제로 수업을 구성했다. 단순히 남북한의 어휘 차이를 암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매체를 통해 변화된 언어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핵심 목표였다.

수업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과 전개 단계에서 실시간 퀴즈 플랫폼인 '잼퀴즈(ZEP QUIZ)'를 활용했다.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 기기로 접속해 북한 말의 뜻을 맞히는 서바이벌 퀴즈에 참여했다. 평소 수업 시간에 소극적이었던 학생들까지 화면에 집중하며 정답을 맞힐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고, 오답이 나올 때는 아쉬워하며 서로의 풀이를 공유하는 등 교실 열기가 대단했다. 게임 형식을 빌려 학습 문턱을 낮추니, 자연스럽게 남북한 언어 이질화 문제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퀴즈 이후에는 모듈별로 이질화된 단어를 다듬어 새로운 '통일어'를 제안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퀴즈에서 접한 생소한 단어들을 자신들만의 참신한 감각으로 재해석해 발표했다. 수업 도구 하나가 교실 전체의 공기를 얼마나 생동감 있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적절한 매체 활용이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얼마나 강력하게 끌어낼 수 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배움의 장을 설계하는 기획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다.

실습 마지막 날, 아이들은 나에게 꽃다발과 함께 손편지 봉치를 건넸다. “선생님, 가지 마세요”, “국어 시간이 기다려졌어요”라는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문장들을 읽으며 가슴 한구석이 벅차올랐다. 짧은 4주는 나에게 단순한 학점 이수 과정이 아니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치열한 성



찰의 시간이었다.

교단은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무대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고 도와주는 조력자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주문진고등학교의 교정을 나서며, 나는 더 이상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예비 교사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준비가 된 '진정한 교사'가 되고 싶다는 확신을 가슴에 새겼다. 이 소중한 경험은 앞으로 내가 마주할 수많은 교실에서 가장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학교현장실습 후기 (2)

칠판 앞에 서서 배우고 느낀 것들



김민준('22)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을 거치며 여러 진로탐색을 해본 결과, 막연하게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범대학에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막 입학했던 2022년 첫 대학 수업은 제 생각보다 크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없었기에 교직과정을 생각보다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기를 거듭하며 여러 세부 영역의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고, 교직과목 수업을 통해 교원으로서의 여러 면모들과 마음가짐 등을 노트에 한 자 한 자 옮겨 적으며 공부하면서 굳이 표현하자면 '책임감'이라는 것을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셨던 여러 선생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던 당신께서 행동들은 공부를 거듭하다 보니 개인 나름대로의 신념하에 정성 어린 지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4학년 1학기가 개강하였고 알게 모르게 우리 학년, 우리 사범대학이 살짝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분위기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교생을 내가 간다니..', '난 아직 배운 게 많지 않은데 벌써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는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고, 부족하더라도 소중한 한 달은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으리

라 다짐하며 매일 넥타이를 조였던 것 같습니다.

실습학교마다 상이하겠지만 제가 다녀왔던 학교의 굵직한 일정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며 저의 후기를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학교에서는 실습생들을 모아 학교의 역사와 시설 소개, 실습생들의 공간(교생실) 등 OT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교생실에서 딱히 정해지지 않은 자리에 하나둘 앉으며 어색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엔 살짝 가식이 섞인 웃음과 리액션이 쏟아지지만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을 곧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차례의 조·종례 참관 뒤, 담임선생님의 소개와 함께 담당 학급 아이들과 공식적으로 인사합니다. 사실 제일 떨렸던 순간은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조례, 종례들을 진행하며 공지와 함께 간단한 수준에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급 아이들과

빠르게 가까워지고 싶다면 이 시간들을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일정을 받고 첫 주 수업을 준비할 때 꼬박 이틀을 모조리 갈아 넣었습니다. 교수님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어느 수업실연 때보다 깔끔하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의 모든 수업실연을 이번 실습처럼 준비했다면 제 성적에도 변화가 있었을까요ㅎㅎ.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첫 주 수업의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집중력과 반응, 수업의 흐름, 교사와의 상호소통, 약간의 학습적 연출의 요소까지 모두 정상작동하며 매끄러운 수업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참관 오신 동료 교생들과 지도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피드백을 주시며 더 발전한 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후로는 한 달의 짧은 시간 동안에 한정에서, 이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여 출근부를 작성하고, 동료 교생선생님들과 아침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수업 스케줄을 공유하고 참관 허락을 구하는 등 하루하루를 바쁘고 기쁘게 보냈습니다. 수십 번의 수업을 진행하며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할 때의 긴장감은 처음과 비교하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했고 보다 여유로운 수업 진행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도 약간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주간이 다가왔고 학생들과의 시간을 정리하며 다시 대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학생들도 교생이 익숙한지 저희들을 보내주는 일조의 행사가 학급별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러한 행사를 끝으로 담당 선생님들과, 교생선생님들과 학교 곳곳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후 마

지막 퇴근을 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은 여운이 깊게 남습니다. 정말 생생한 꿈을 꾸다 상쾌하게 깨어난 듯합니다. 괜히 학교 수업을 더 잘 들으리라 하는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물론 시간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기에 졸업을 앞둔 지금으로서는 아른아른하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교생실습을 다녀온 후 행사에서 말씀드렸듯, 저의 성격상 이 글을 보는 후배, 동기들에게 걱정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질 이 한 달간의 시간은 각자의 경험담이 모두 다를 만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수업과 참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AI와 공존하는 미래 교실

- AIEDAP 현직교사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후기

권현서('23)

나는 기존에 학교 현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의 본질인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AI 중심 교육이 학습의 깊이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AIDT가 적극적으로 도입·활용되는 교육 환경을 직접 접하며, 변화하는 교육 흐름을 외면한 채 기존의 관점만을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 현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AIDT의 실제 운영 방식과 수업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과 전략, 그리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학습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안재은 학우와 함께 AIEDAP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아가 기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거나 배제하는 태도가 아닌, 교육적 가치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AI 기반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비 교사로 성장하는 것을 본 멘토링 참여의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에서는 이론 중심의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 현장과 연계된 실행 중심 활동이 진행되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AI 융합

수업을 주제로 한 지도안 설계 활동과 이에 대한 현직 교사의 피드백 과정, 그리고 멘토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는 현장 연계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예비 교사로서 AI 기반 수업 설계 역량을 점검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방식과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먼저 AI 융합 수업 지도안 설계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이 활동은 단순히 제공된 양식에 내용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수업 아이디어 구상 단계부터 성취기준 선정, AI 도구 활용 방식까지 전 과정을 나 스스로 설계했다. 지도안 작성에 앞서 멘토 교사는 다양한 AI 도구를 활용한 실제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각 도구가 지닌 기능적 특성과 교육적 강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사전 안내는 이후 지도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도구 선택의 기준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지도안 피드백 방식이었다. 멘토 교사는 일방적으로 수정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이 활동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구상한 것은 AI 활용에 그치지 않을까?”와 같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 방향을 찾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질문 중심의 피드백 과정은 나의 수업 설계를 보다 구체화하고 논리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학생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교사의 화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이 경험을 통해 단순한 정보 전달형 지도 방식이 아닌, 학습자의 성찰과 참여를 촉진하는 교사의 발문 전략을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멘토 교사의 근무 학교인 경신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수업을 참관하였다. 해당 수업에서는 구글 클래스룸, 피그잼(FigJam), AI 튜터 등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가 활용되고 있었다. 실제 수업 현장에서 여러 디지털 도구가 학습 자료 제공, 협업 활동, 개별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AI 기반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한편, 수업을 참관하며 에듀테크 활용의 장점뿐 아니라 한계 또한 함께 인식하게 되었다. 여러 도구가 동시에 사용되면서 일부 학생들이 도구 조작에 집중하거나 수업 흐름이 분절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기술 활용이 오히려 학습 몰입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는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업 목표와 학습 활동의 특성에 맞게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교사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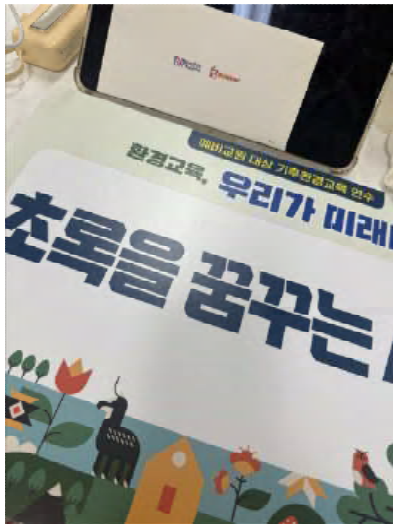
또한 교생실습 이전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직접 참관할 수 있었다는 점 자체도 큰 의미로 다가왔다. 교과서 중심의 모의 수업이나 이론 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교실 환경과 학생 반응, 수업 운영 방식을 현장에서 체감함으로써 앞으로의 교생실습과 예비 교사로서의 수업 준비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AI 기반 교육에 대한 나의 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도안 설계와 피드백 과정, 실제 수업 참관 경험을 통해 에듀테크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수업 설계 역량이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앞으로 예비 교사로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기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성장과 언어 활동을 중심에 두는 수업을 설계하는 교사로 성장하고자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공존하는 미래 교실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지켜 나가는 교사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준비해 나갈 것이다.

방학을 채운 3박 4일

- 2025 예비교원 기후환경교육 연수 참여 후기

박소연('24)



방학에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찾던 중 '2025 예비 교원 기후 환경 교육 연수'가 눈에 들어왔다. 3박 4일의 일정 안에서 환경을 주제로 다루면서도,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교직 생활과 밀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주요 활동은 조별로 '기후와 관련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조는 사전에 편성되어 있었고, 다양한 교과가 섞여 있어 타 교과와 협력하며 수업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교수·학습 지도안 초안을 완성할 무렵, 장학사님께서 각 조의 활동에 대해 피드백을 주셨다. 그런데 우리 조가 기획한 '옷 리폼을 통해 패스트패션을 경계하기'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셔서, 하루를 남기고 수업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까지 줄여 가며 새롭게 수업을 구성하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단순히 활동을 만드는 것을 넘어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더 본질적인 교육적 고민을 할 수 있었다.

모든 일정이 종료된 후에는 타 학교 학생들과 교류할 시간이 마련되었다. 공통된 관심사와 진로가 분명했기에, 초반의 짧은 어색함만 넘기면 누구와도 금세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다. 3박 4일이라는 시간이 분명 짧았음에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이어질 만큼 충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연수였다.

새로운 경험은 신선한 시각을 제공하고 삶을 환기한다. 어느 순간 눈앞에 도래한 '임용'이란 시험이 너무나 거대해 보여, 교사로서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잠시 잊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통해 나의 시선을 시험에서 교실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었다.

꼭 해봐야 하는 경험

김수민('24)



국외봉사를 다녀온 이후로 나는 만나는 친구마다 국외봉사를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 단순히 “좋았다”는 감상 때문이 아니라, 그 경험이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나 자신을 믿는 마음까지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국외봉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일상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해외에 나가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들과 어울리고 가르치는 경험은 평소의 생활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처음에는 언어의 벽이 높게만 느껴져 아이들 앞에 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간단한 설명 하나를 전달

하는 데에도 여러 번의 몸짓과 표정이 필요했고, 내가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가 전부인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웃음, 손짓,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오갈 수 있었고, 아이들 역시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글자와 뜻을 연결하고, 서툴지만 스스로 소리를 내어 발음해 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의 뿌듯함은 아직도 선명하다. 그 작은 성취 앞에서 아이들이 보여 주던 환한 표정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주었다. 특히 '우우린토야'라는 한 아이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며, 봉사자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낯선 환경 속에서의 매 순간은 나의 시야를 넓혀주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한층 더 깊고 유연하게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 이유는 국외봉사가 나에게 자기 발전의 계단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봉사활동 기간 동안 맡았던 비품 관리, 영상 촬영, 취사, 교육, 벽화 작업은 대부분 익숙하지 않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일들이었다. 하루 일정이 끝난 뒤에도 늦게까지 함께 비품을 정리하고, 영상 회의를 하며 다음날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른 아침에는 취사 준비를 위해 서둘러 일어나야 했고, 한낮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모두가 붓을 들고 묵묵히 벽화를 완성해 나갔다.

제한된 시간과 자원 속에서 이 모든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팀원들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고,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서로를 믿고 역할을 나누며 끝까지 해냈을 때의 성취감은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몸으로 배웠고, 행복은 나누면 커지고 고통은 나누면 줄어든다는 말을 실제 경험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구보는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평소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던 나에게 달리기란 부담스러운 과제였지만, 팀원들과 함께 혹은 혼자서 꾸준히 연습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몽골에 도착해서는 스스로도 놀랄 만

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었고, 이 경험은 나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노력과 꾸준함,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화합이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러한 작은 깨달음들이 차곡 차곡 쌓여 하나의 성장의 계단을 이룬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세 번째 이유는 국외봉사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함께한 봉사단원들은 전공도, 성격도, 생각도 모두 달랐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었다. 취사를 하며 나눈 소소한 농담, 벽화 작업 중 자연스럽게 이어진 대화, 영상 속에 담긴 웃음들은 단순한 추억을 넘어 깊은 유대감으로 남았다.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먼저 걱정하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모습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 속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은 거의 없었다. 낯선 환경과 고된 일정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인연들을 오래 곁에 두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도 언젠가 같은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처럼 국외봉사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나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고 평생 기억에 남을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들어 준 값진 경험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국외봉사를 적극 추천할 것이다. 그곳에서 느끼고 배우는 감정과 깨달음은 책이나 영상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외봉사는 나에게 ‘꼭 해봐야 하는 경험’이었고, 누군가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외봉사 후기 (2)



언어의 벽 너머에서 시작된 배움

김가림('24)

국외봉사는 계명대학교의 교육이념인 '진리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위하여'를 구현하고 교육목표인 진리를 탐구하는 창의적 전문가 양성, 정의를 구현하는 윤리적 지성인 육성,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지도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위 목적에 깊이 공감하며, 저는 교육이 지닌 가치가 국경을 넘어 실천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해 보고자 2025년도 동계 국외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계 국외봉사를 다녀온 동기가 들려준 경험담

속에는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낯선 환경 속에서도 교육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비 교사로서 교육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저 역시 교실을 넘어 국경 너머에서 교육에 종사해 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면접을 통해 서로 다른 학과와 각기 다른 색을 지닌 학생 32명이 모여 노력봉사, 문화 및 교육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어색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조심스러운 호기심을 안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본격적인 국외봉사에 앞서, 저희는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체육대회와 20km 걷기 대회와 같은 다양한 사전 교육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전 교육은 각기 다른 색을 가진 서로가 하나의 색이 되기 위한 과정이 아닌 각기 다른 색을 가진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완주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팀으로서의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각자가 선택한 문화공연 및 교육봉사를 준비하며 국외봉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구체화해 나갔습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 도전하며 색다른 경험을 해보고자 부채를 활용한 문화공연을 선택했습니다. 부채를 연습하며, 부채가 지닌 한국적 미와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부채는 혼자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호흡을 맞추어야만 하나의 완성된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움직임보다 팀 전체의 조화가 중요했기에, 부채 문화공연은 국외봉사를 준비하는 저희의 과정과도 닮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전공과 배경을 지닌 구성원들이 함께 연습하며 타인의 속도와 표현을 이해해 나가는 경험은, 공동체 속에서 협력의 의미를 몸소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교육봉사 활동으로는 한글교육을 맡아, 국어 교육이라는 전공을 살려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역할을 수행해 보고자 하는 개인적인 목표에서 비롯된 선택을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 경험했던 교육봉사와는 다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교육의 방식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직접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했습

니다. 현지에서 가서 직접 경험하며 교육의 방식은 달랐지만,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과 배움을 전하고자 하는 진심은 같았기에, 언어적 소통의 한계로 인해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교육이 지향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이해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뿌듯함 또한 한국에서의 교육봉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교육이란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전해질 수 있는 가치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 학생들과 어울리며 봉사를 시작했을 때, 저는 출발 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국외봉사에 참여할 당시에는 제가 학생들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이며, 가르치는 입장이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사 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 배운 것이 더 많았던 나날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이 국외봉사에 참여한 선배와 동기들과 함께 땀 흘리며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공동체 안에서의 배려와 책임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성향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법,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은 교실 안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는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이번 국외봉사 활동은 저에게 교육이란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고 답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경과 언어, 문화는 달랐지만, 아이들을 향한 마음과 배움을 전하고자 하는 진심은 같았고, 그 속에서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한 선배와 동기들과의 공동체 경험은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교사가 되기 위한 길 위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 앞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교육자가 되고자 합니다. 국외봉사를 통해 얻은 배움과 성찰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예비 교사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낮선 환경에서 마주한 가르침의 떨림



도원경('25)

국외봉사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알았을 때만 해도, 그저 막연히 ‘졸업 전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경험’ 정도로만 인식하고, 언젠가의 목표처럼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2학기 가두모집을 구경하던 중 국외봉사 부스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계 국외봉사의 일정과 준비 과정, 그리고 면접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이번에 한 번 도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번 지원한 경험이 이후 지원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에 큰 기대 없이 지원했지만, 감사하게도 1학년인 나에게 소중한 기회가 주어졌다.

두 달간의 준비 과정과 약 2주간의 현지 봉사 활동은 나의 대학 생활에서 첫 번째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한 학년 인원이 적은 소수과에 소속되어 있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나에게 국외봉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사

람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함께 한 단원들의 따뜻함 덕분에 점차 그 속에 스며들 수 있었다. 또한 라오스 팀의 막내였기에 학교 선배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도움이 되는 조언들도 많이 해주셨고, 덕분에 국외봉사 활동 자체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앞으로의 학교생활에서도 많은 좋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국외봉사에서 내가 맡은 역할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라오스 푸딘텅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교육 활동이었다. 국어교육과라는 전공을 가지고 있기에 담당 선생님께서 나에게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기셨다. 외국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경험은 처음이었고, 국어를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일은 언젠가 교사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일이라고만 생각해 왔기에, 막상 그 상황이 주어지자 시작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컸다. 어떤 난이도로 수업을 구성해야 할지, 어떤 활동을 통해 한글을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수업 준비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현지에서 교육 활동을 진행하며, 매 수업의 시작과 끝에 아이들과 함께 라오스의 인사말인 “짜바이디”, 그리고 “안녕하세요”, “잘 가요”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따라 하던 아이들이 수업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또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느낀 감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짧은 표현,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봉사 기간의 힘들음을 지워주는 따뜻함과 헤어짐의 아쉬움까지 담겨 있었고, 그 순간만큼은 언어 한마디가 국경을 넘어 마음을 연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외봉사가 끝난 뒤 귀국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준비 과정부터 현지에서의 모든 시간이 일상과는 분리된 하나의 긴 꿈처럼 느껴져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그 시간을 다시 마주해 보아도 현실감이 쉽게 들지 않았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완전히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언젠가 다시 푸딘텅 초등학교를 찾게 된다면 그때의 기억은 분명 생생하게 떠오를 것이라 생각한다.

국외봉사 지원서에 ‘이 활동을 시작으로 더 많은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다짐을 썼었는데, 정말로 국외봉사활동이 그 시작이 된 것 같다. 한글을 가르치며, 또 현지에서 봉사하며 느꼈던 많은 것들은 국어교육과 학생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배움과 교육을 마주해야 할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어주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뜻깊고 행복한 일인지 몸소 느끼게 해준 경험이었고, 진로에 대해 아직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나에게 ‘그래도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준 시간이었다. 이번 국외봉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배움과 도전에 있어 주저하지 않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나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계명전공글로벌체험학습 후기

세계 속에서 배우는 교육의 가치

권현서('23)

나는 교사의 꿈을 가진 국어교육과 학생으로서, 언어 교육의 본질은 학습자의 언어 활동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학

교 현장에서의 언어 활동과 소통은 여러 교육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학습자 주도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해외 교육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AI 기반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적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미래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비 교원으로 성장하고자 이번 전공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2026년 1월 16일부터 1월 28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옥스퍼드 대학교, 대영 박물관, University College London, 영국 국립 도서관, 킹스턴 대학교, 케임브리지 대학교, BETT Show, Ragged School Museum 등 다양한 교육·문화 기관을 방문하였다.

여러 방문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BETT Show였다. 처음으로 참가한 교육 기술 박람회였으며, 다양한 교육 기업과 정부 부처의 부스를 직접 체험하며 최신 교육 기술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얻고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탐방 계획을 세웠고, 특히 국어과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듣기·말하기 교육 영역에서 AI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탐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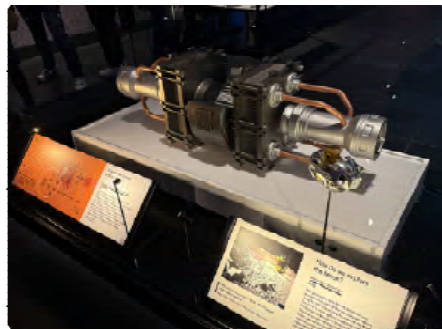
그중 HUMMINGo의 작문 및 말하기 자동 평가 시스템은 큰 흥미를 끌었다. 이 시스템은 형식적 요소와 내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체 루브릭을 기반으로 자동 피드백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교사가 직접 루브릭을 입력하여 평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제시된 피드백은 평가 근거가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학습자가 수정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교사의 재검토와 수정도 가능하였다. 작문 영역에서는 내용 구성과 논리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였고, 말하기 영역에서는 발화 내용뿐 아니라 제스처, 말하기 속도 등 비언어적 요소까지 분석하였다. 다만 반복 수정 기능이나 실제 수업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개발 단계라는 답변을 받아, 향후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성을 느꼈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빠른 피드백 제공과 반복 학습을 통한 학습 효과 증진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교사의 업무 효율성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학습자의 성장과 정서적 안

정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떠올랐다. AI가 객관적 평가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교사의 개별적 피드백과 상호작용에서 학습 동기와 안정감을 얻는다는 점에서 실제 교육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1월 23일에는 킹스틴 대학교를 방문하여 세 분의 교수님으로부터 캠퍼스 투어와 영국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반적인 교육 환경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 주체적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높은 몰입도를 보이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이에 대해 고민한 결과, 교육의 방향성과 학습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문화’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사회·문화적 맥락이 교육 제도의 운영 방식과 학습자의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체감하며, 향후 교육 문제를 바라볼 때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배경까지 함께 고려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의 교사 양성 경로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유연하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이를 통해 영국 사회가 요구하는 교사상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한국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역량이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1월 26일에 방문한 Ragged School Museum에서는 영국 교육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과거 영국의 교육은 제도적 장치라기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했다. 1층 전시 공간에서는 “어떤 아이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신념 아래 소외된 아동을 포용했던 토마스 바나도의 실천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이를 통해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힘으로 작용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층에서는 당시 교실 환경이 재현되어 있었는데, 교육과 노동이 병행되던 흔적을 통해 배움이 생존의 문제 속에서 어렵게 확보되던 현실을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학교의 공공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이번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대학과 교육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교육 기술 박람회를 참관하며 이론으로만 접하던 교육 담론을 실제 현장 속에서 체험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또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며 느낀 점과 배운 점, 실천 다짐을 공유한 성찰 활동 역시 매우 의미 있었다. 단순한 해외 탐방을 넘어, 서로 다른 관점을 교류하며 교육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경험은 앞으로 교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어과 교사로 가는 길

이병근('21)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총 1박 2일간 '예비 국어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문화 통합 견학 프로그램'이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선우 교수님, 윤호경 교수님 그리고 14명의 국어교육과 학우가 함께하였다. 이틀 동안 서울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예비 교사로서의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모두가 설레는 마음을 안고 도착한 서울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제23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견학이었다. 코엑스 건물에서 진행되었고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규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조를 이루어 각종 부스를 구경 및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러보니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맞추어 미래의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듯하였다. 국어, 사회, 과학, 수학 등 과목에 따라 그 내용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공통된 테마는 AI였다. AI가 인간의 행동을 인식, 감지하여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감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분석 및 작성하여 교사의 수고를 덜기도 하였다.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과와 학생의 특성을 모두 분석할 수 있는 AI가 곳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AI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만큼 교육 분야 역시 AI의 도입이 당연해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AI도 있었고 아직은 시행되지 않은 시험 단계인 AI

도 많았다. 교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만감이 교차하였다.

우선, 보는 내내 감탄했던 것 같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교육 분야도 충분히 그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공 공부만 하다 보니 이러한 교육 분야의 현실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과 함께 성찰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번 견학의 취지가 어떠한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이든 직접 보고 느끼는 것만큼 확실한 경험은 없는 것 같다.

반면,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AI는 장단점이 너무나 분명하다 보니 거기서 오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놀라울 정도로 모든 부스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었고, 이것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만큼 교사에게는 다른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오히려 그렇기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박람회 만으로도 첫째 날의 일정은 충분했다. 시간이 금방 흘러갔고 둘째 날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었다. 이 역시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다. 그동안 학교에서 우리말, 특히 중세국어 배

우며 ‘어렵다, 난해하다’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있었지만, 동상을 직접 마주한 순간 가슴속에 생겨난 웅장함과 벽참이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당시 학우들이 추운 날씨에 지쳐있었지만 동상을 마주하자 모두 입을 모아 감탄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만큼 국어를 전공하는 우리에게 남다른 경험이었다.

이후 바로 근처에 있는 세종문화회관과 전시관을 견학하고 경복궁의 곳곳을 돌아보는 것으로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우리의 역사를 알아가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어는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어가 만들어지고 변화해가는 모든 과정은 역사의 흐름과도 같기 때문이다. 책으로는 역사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이번 견학은 우리의 역사를 생동감 있게 직접 눈에 담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해진 틀에서 정해진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틀에서 벗어나 하나하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얻어간 지식은 이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서울의 강추위도 우리의 열정을 막지 못했다. ‘예비 국어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문화 통합 견학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에 맞게 교사의 꿈을 더욱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고 걱

정이 될 때가 많다. 실제로 교생 실습, 중등 임용 시험 등 많은 것을 앞둔 올해 많은 걱정에 시달리고 있었다. 스스로의 선택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지던 요즘, 이번 프로그램은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다.

내가 교육이라는 분야에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이 맞았고,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이 맞았다. 우리의 역사, 우리의 말에 대해 깊이 알아갈수록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고, 몰랐던 사실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커졌다. 프로그램을 기획, 지원해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힘든 날씨와 일정이었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틀간 크게 애쓰신 것을 알기에 이번에 느낀 점들을 잊지 않고 예비 교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나’를 믿고 묵묵히 걸어간 시간

오형은('14)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4학번 오형은입니다. 저는 총 4번의 시험을 치른 끝에 합격하였습니다.

연도	시험 응시 여부	비고
2017	×	자신감과 진로에 대한 확신 부족
2018	○	울인 독학
2019	○	울인 독학
2020	×	기간제 교사 및 학원 강사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2021	×	
2022	×	
2023	×	
2024	○	주 1회 학원 강사, 대학원 박사과정 다시 임용 준비
2025	○	주 4회 학원 강사 임용 합격

2020년, 기약이 없는 공부를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 두려워 임용시험을 포기하고 다른 진로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교원에 관심이 생겨

도전을 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어교육 관련 진로를 넓히
고자 대학원에 입학했으나, 코딩과 영어 등 새로운 영역의 공부를 시작해
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깨닫고, 휴학 후 다시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되었
습니다. 다시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육과정은 바뀌어 있었
고, 제가 가진 전공 교재들은 모두 개정이 되어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2월부터 2025년까지, 2년의 기간을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성적

2024년에도 경기도에서 응시했고, 커트라인에서 1점대 차이로 1차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교육학 점수는 18.33점으로 고득점을 받았으나, 전공 점수
가 아쉬웠습니다. 2025년에는 경기도에서 1차는 커트라인 +6.33점으로 합
격하였고, 총합 +8점으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교육학 점수는 전과 동일
하게 18.33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1차
점수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학년도 경기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일반) [분야] 국어						
<div style="float: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인] 성적조회 </div>						
별기성적						
1차 시험성적	71.330					
2차 시험성적	96.200					
1차시험지원가산점	0.000					
2차시험지원가산점	0.000					
총성적	167.530					
순위	46					
과목	점수	후임지원가산점	합산점	유학점수	과목의부	합시
교육학	18.33	0.00	18.33	6.00	는	는
전공	53.00	0.00	53.00	32.00	는	는
수업실천	56.07	0.00	56.07	0.00	는	는
직업면접	38.13	0.00	38.13	0.00	는	는

Ⅲ. 교육학 공부 방법

교육학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준비할 때도 17점 이상을 받았었습니다. 4번의 시험 모두 교육학 고득점을 받으며 느꼈던 것은 교육학은 점수를 생각보다 잘 준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개념이어도 어떻게든 쓰니 점수를 받았습니. 또한, 길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한 장 이상 넘긴 적이 없습니다. 글씨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유의하며 썼습니다.

[2024년]

2-4월	이선화 교육학 1-2월 기본 이론 강의 수강
5-6월	공부X
7-8월	이선화 교육학 기본 이론 (상) 복습
9월	이선화 교육학 기본 이론 (하) 복습 토요일마다 실전처럼 답안지 작성하는 스터디
10월	이선화 교육학 7-8월 문제 풀이 강의 수강 토요일마다 실전처럼 답안지 작성하는 스터디
11월	이선화 교육학 7-8월 문제 풀이 강의 수강 토요일마다 실전처럼 답안지 작성하는 스터디 매일 밤 문제 주고받는 전화 스터디

[2025년]

2025년에는 공부 기록을 따로 해두지 않아 월별 공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였고 교육학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면 2025년에는 독학을 했고 교육학에 투자하는 시간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교재로 공부하기 지겨울 것 같아서 원페이지 교육학 상, 하권을 구매하여 3회독을 하였습니다. 타이트하게 진도를 빼지 않았고, 인증스터디를 가입하여 매일 조금이라도 했어요. 시험 직전 1~2달은 2024년에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받았던 잇키 교육학이라는 미니 교재를 활용하여 퀴즈를 주고받는 전화 스터디를 추가하였습니다.

IV. 전공 공부 방법

1. 국어교육론

국어교육론은 학부생 시절 좋아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이영호 교수님 수업 및 스터디로 기초가 나름 튼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졸업한 지 시간이 많이 흘러 교육과정과 전공서가 모두 개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강의의 도움과 개론서 단권화로 주요 개념을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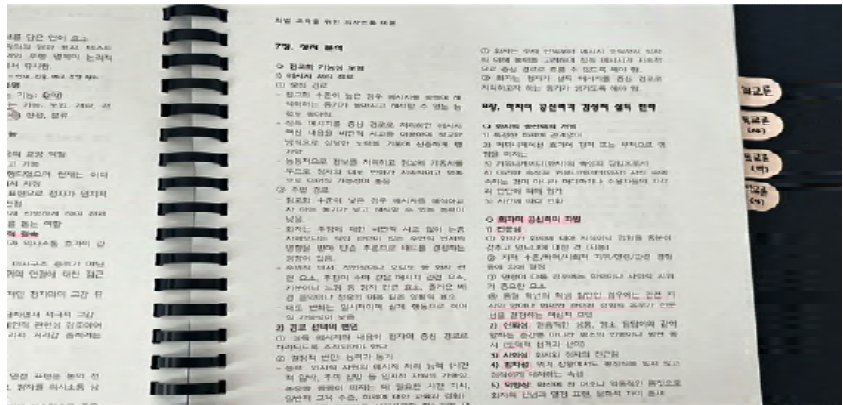
5-6월	주요 개론서 읽는 스터디
7월	공부 X
8월	황건우 국교론 7-8월 문제 풀이 강의 수강
9-11월	황건우 국교론 1-2월 기본 이론 강의 수강 및 복습 박노송 9-11월 모의고사 강의 수강 및 복습

2024년에는 5월부터 국어교육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박사과정 병행으로 7월에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했고, 8월에 문제 풀이 강의를 수강해보니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여 9월부터 기본 이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강의를 들은 것이 국어교육론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강의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문제 풀이도 두 번 진행하고 전화 스터디로 복습하는 등 꼼꼼히 공부하였습니다.

[2025년]

3-4월	주요 개론서 읽는 스터디 ①
5-6월	주요 개론서 읽는 스터디 ② 주요 개론서 단권화 작업
7-8월	황건우 7-8월 문제 풀의 강의 수강
9-11월	황건우 7-8월 문제 풀의 강의 복습 박노송 9-11월 모의고사 현장 강의 및 복습 주요 개론서 단권화 파일 더 단권화하여 복습

2025년에는 인터넷 강의도 들었지만 가장 많이 신경 쓴 것은 개론서를 반복적으로 읽고 단권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회독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단권화는 처음에는 개론서 내용을 단순히 요약하였고, 점차 중요도가 낮은 내용이나 이미 아는 내용, 직전 시험에 출제된 내용을 제거하여 삭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스터디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부분, 강사가 중요하다고 한 부분, 외워지지 않는 부분 등을 체크하여 완성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아래에 일부를 첨부합니다.



2. 문법

문법은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과목입니다. 많은 개론서를 읽기 벅찰 것 같아 인터넷 강의의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2024년]

2-8월	이태욱 상반기 강의 수강 대학원에서 '형태론' 강의 수강
9-11월	이태욱 정리 강의 수강, 이태욱 요약 교재 (아 합격이론) 2회독 박노송 9-11월 모의고사

[2025년]

2024년 이태욱 강사의 강의를 듣고 문법 지식이 많이 늘었지만 자료 정리가 아쉬웠습니다. 2024년에 들었던 황진우 강사의 국어교육론 강의와 자료가 마음에 들어 문법 기본 이론 강의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개론서인 「한국어문법총론」을 기반으로 요약해 주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문법하고 싶은 문법」, 「더 문법하고 싶은 문법」, 「문법하고 싶은 문법 마지막」을 4회독 정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쟁점들을 잘 짚어주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공부했던 책입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인덱스로 표시해 가며 읽었고, 답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은 인덱스를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남은 인덱스들만 반복적으로 읽었습니다. 제 문법 지식을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책이었습니다.

3. 문학

학부생 시절 제가 가장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이 문학입니다. 또 오랜 강사 생활로 여러 문학 작품에도 어느 정도 친숙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문학 공부는 제게 가장 후 순위였습니다.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하였습니다.

[2024년]

7-11월	EBS 독해의 원리 꾸준히 풀기 박노송 9-11월 모의고사 현장 강의
-------	---

EBS 독해의 원리는 고등학생용 문제집인데, 빈칸 문제가 있어 임용식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학부생으로 돌아간다면 이 책을 여러 회독 할 것 같아요.

박노송 모의고사는 2024년 임용시험에서 특히 문학 영역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와 거의 동일한 고전문학 문제가 하나 출제되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3-11월	수능 특강 문학 2회독, 수능 완성 문학 1회독 윤희재 7-8월 문제 풀이 강의 수강 박노송 9-11월 모의고사 현장 강의
-------	--

2025년에는 학원 강사로 재직하며 고3 수능 특강 문학을 수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따로 복습도 하고, 수능 완성 문학도 풀어보았습니다. 7-11월에는 인터넷 강의와 현장 강의를 수강하며 시간 안에 문학 작품을 읽고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문학은 적당히 꾸준히 공부한 것이 실전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V. 생활 습관

2024년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관리형 독서실에 다닌 것입니다. 저는 장의존형 학습자라 저를 묶어둘 무언가가 꼭 필요합니다. 독서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다녔던 곳은 매일 출석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세부적으로 체크하고 해당 시간에 출석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연락해 주십니다. 휴대폰을 제출하고 입장하며 교시제로 운영되어 고등학교처럼 쉬는 시간만

다 종이 올려 집중하기도 좋았습니다. 금액이 비쌌지만 그만큼 도움이 많이 되었기에 저와 같은 의존적인 성향인 경우 추천 드립니다.

2025년에는 일 병행으로 장거리를 오가는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구루미 캡스터디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캡스터디는 스터디원들이 실시간 쌍방향으로 화면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부 시간도 체크하는 공부 방법입니다. 오전 3시간 스터디, 밤 2시간 스터디, 일요일 9시간 스터디를 각각 가입하여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명절과 같은 긴 연휴 기간에는 하루 10시간 공부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집중이 어려울 때는 다른 사람이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며 자극을 받았습니다. 캡스터디는 제게 주어진 적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VI. 나오며

제가 수험생활을 돌아보며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게 묵묵히 공부하는 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영역을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여러 환경에서 공부를 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공부 공간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2년간의 수험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불안함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을 휴학하며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매일이 불안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안함 속에서도 저 자신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을 찾아 묵묵히 공부한 것이 합격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걷다 보면 반드시 빛이 보일 것입니다.

언젠가 교육 현장에서 후배 여러분을 동료 교사로 만나게 된다면 무척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운’이 나의 것이 되는 날도 있다

안시현('18)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2026학년도 경기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18학번 안시현입니다. 우선 저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체계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임용시험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주변 환경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었고, 그로 인해 공부에 소홀했던 것도 같습니다. 2025학년도 시험은 10월까지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응시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한 환경은 쉽게 바꿀 수는 없었던 것이기에 이번 2026학년도 시험 준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합격했던 지난 시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달랐던 점이 딱 한 가지 있다면 그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거창하게 세워 두었던 계획이 멘탈 관리의 실패로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그냥 포기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 준비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 지금 보는 이게 시험에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책을 붙들고 있었던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체계적인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시기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제가 학부생 시절 응시

하였던 관광 초수 시험을 포함한 총 4번의 시험을 준비하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공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영역별 공부 방법

공부 방법은 개인마다 정말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 공부 방법은 참고만 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의고사 강의를 단 한 번도 수강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방식의 공부를 꼭 해야만 합격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 맞는 공부 방법을 찾으셨다면 자신을 믿고 쪽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상당히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 강의를 들으며 공부하였고, 그간 진행했던 스터디도 대부분 단순 인 증 스터디였습니다. 또한, 저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데에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일어서 상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해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해도 하반기 가면 다 잊어버릴까 두려웠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 공부한 만큼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하지만 복습을 꼭 잊지 마세요! 복습을 해야 남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머릿속에 있는 모든 정보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맞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1) 교육학

언제 수강하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시절에 1-2월 기본 강의를 한 번 수강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강의는 따로 듣지 않고 요약집을 구매하여 계

속 회독하였습니다. 회독을 할 때는 스테디를 이용하였는데 친구와의 짝스터디를 활용하기도 했었고, 단순 인증 스테디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회독만 계속 하다 보니 논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이번 시험을 준비할 때는 11월에 모의고사 강의를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때도 강의 수강은 하지 않고 문제와 답안을 보며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감을 익히는 용도로만 사용하였습니다. 3, 4개만 봐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서 논술 답안 작성에 큰 무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2) 국어교육론: 개론서 + 강의 + 기출

학부 때 거의 모든 주요 개론서를 읽기는 하였지만 아무래도 지식이 머릿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단권화 자료를 만들자니 자료 제작은 저한테는 맞지 않는 방법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서 미련 없이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 배웠던 기본 지식을 체계적으로 복습하고, 만들어진 단권화 자료를 얻기 위해 기본 개념 강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강한 강의의 교재가 마인드맵 형식이어서 기본 강의 수강 이후로는 그 교재를 회독하며, 필요한 경우에 개론서를 발췌독하였습니다. (학부 때 교수님께서 내 주신 과제 덕분에 개론서를 한 번씩은 꼼꼼히 다 읽어보았던 터라 발췌독만 해도 충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개론서를 꼼꼼히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한 번쯤은 꼭 개론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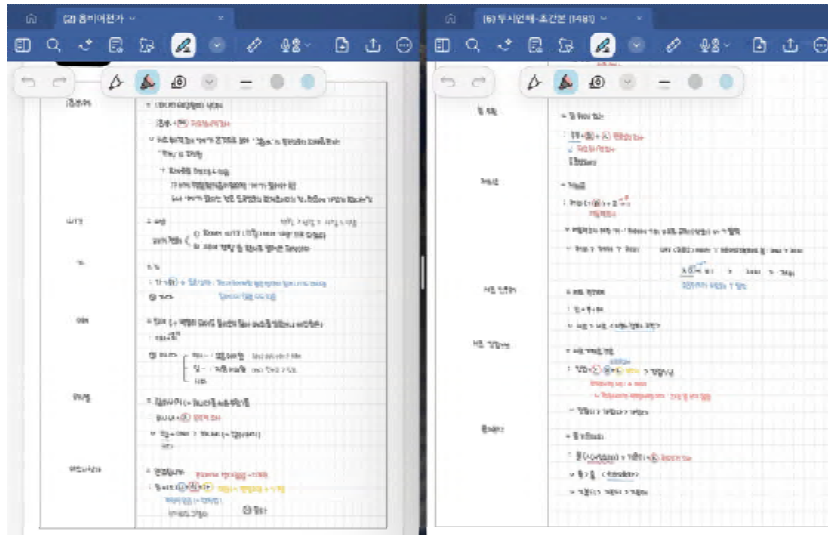
국어교육론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 제일 도움이 되었던 건 아무래도 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개론서의 지식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답안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국어교육론 문제는 꽤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주고 그 자료를 분석해 그에 맞는 답안을 서술해 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암기한 개론서의 지식 내용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으로 기출 문제를 활용하였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14년 이후부터의 기출은 꽤나 여러 번 보았고 기출을 풀 때는 문제의 어느 부분이 답안의 근거가 되는지에 중점을 두며 풀었습니다.

(3) 문법: 개론서 + 강의 + 기출

개인적으로 3개의 영역 중 제가 제일 강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현대 문법입니다. 문법 역시 혼자 개론서를 읽고 단권화 자료를 만드는 것은 저에게 무리라는 판단에 강의를 수강했었고, 그 강의의 교재를 정말 무한 회독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씩 매일 매일 읽었습니다. ‘지금 이게 공부가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도 매일 읽었습니다. 혼자 읽으면 아무래도 딴 생각으로 빠지기 쉬워서 저는 전화 스테디를 활용하였습니다. 기상 스테디를 겸해서 아침에 눈뜨자마자 한 명씩 돌아가며 교재를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스테디원이 읽는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제가 또 소리 내어 읽어야 하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밀도 있는 공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세 국어입니다. 중세 국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 수가 적다보니 중세 국어를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제일 점수 받기가 쉬운 게 중세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국어 역시 기본적인 내용은 현대 문법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헌 분석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꼭 스스로 분석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꼭 참고 분석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냥 문장을 딱 보면 자연스럽게 수학적 분석처럼 분석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강의 수강으로 올바른 분석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석이 맞는 분석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헌 분석에는 매일 분량을 정해 분석한 내용을 인증하는 스테디를 활용하였습니다. 예시 사진을 첨부해 드립니다.



문법 개론서들은 필요한 부분은 발췌독하였으나 저에게는 그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져서 많이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진호 교수님의 <국어음운론강의>는 이해하기 쉽고 도움이 많이 되니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법 기출 역시 거창한 기출 분석의 느낌이라기보다는 14년 이후부터의 기출을 반복해서 풀어보는 정도로 활용하였습니다.

(4) 문학: 강의 + 기출

문학은 정말 부족한 영역이었습니다. 늘 ‘난 문학만 아니었으면 이미 붙었어.’라는 말을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올해 시험 역시 문학에서 점수를 받아서 합격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문학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최대한 많은 작품을 접했기 때문이지 않나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저는 저 스스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문학 작품 분석 스터디 같은 것은 활용하지 않았습니니다. 문학 작품을 스스로

분석하는 힘이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저는 스스로 분석을 해도 ‘내가 분석한 게 맞나? 내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붙잡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목표는 ‘스스로 분석하는 힘을 단시간에 기르기 힘들다면 최대한 많은 작품을 알고 들어가자!’였고 실제로 이번 시험이 가장 많은 작품을 보고 들어간 시험이었습니다.

문학 문제의 경우는 문제에서 제시되는 <보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인이 공부한 지식이 아니라 <보기>의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연습을 기출 문제로 하였습니다. 국어교육론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어느 부분이 답안의 근거가 되는지에 중점을 두며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각 문학 작품을 공부하고 난 후에 바로 해당 작품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이 방법은 문학에 자신감이 없던 저에게 자신감을 채우는 데에도 좋았습니다.

(5) 2차 시험

보통 2차 시험 준비는 1차 합격자 발표 전과 후로 나뉩니다. 저는 1차 시험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에 1차 합격자 발표 전에는 경기도 시책 분석만 대충 하고 아예 2차 시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절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차 시험을 치고 나면 불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꼭 2차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후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선 개별 면접 준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인풋입니다. 인풋을 할 때 지역의 시책뿐만 아니라 담임 교사일 경우, 교과 교사일 경우에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지 최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해두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 실연의 경우에는 만능틀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비지도안인데다 짧은 구상 시간 안에 수업 설계 역량과 수업 실연 두 가지를 모두 구상해야 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

다. 그래서 그 부족한 구상 시간을 어떻게든 알차게 쓰기 위해서 수업 설계 역량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즉답형처럼 답변을 할 수 있게끔 만능 장치를 여러 가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연 모의 문제를 활용하며 문제의 조건에 저의 장치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업 실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조건’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건만은 빼먹지 말자는 마음을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2차는 정말 기세입니다. 채점관분들이 나를 무섭게 췌려보아도 신경 쓰지 말고, 굴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3. 마치며

주변에서 경쟁률이 많이 낮아져서 이제는 그리 어렵지 않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 시험은 이미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경쟁하는 어려운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강의의 강사님은 ‘대한민국에 이미 자격증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시험은 진짜 몇 안 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시험 준비에 임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말이 왜인지 모르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쉽지 않은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존경합니다.

많은 합격자 선생님들께서 이 시험은 운이라고 말씀하시고,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흥미롭게 들었던 문학 작품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고, 2차에서는 스터디원 선생님께서 나올 것 같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면접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그 ‘운’이라는 게 나에게 오는 날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따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2025년을 기록하며

안재은('23), 김수민('24), 김태훈·박서연·최지윤('25)

어느덧 1년이 흘러, 우리 국어교육과의 2025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길」을 편집하며 2025년의 여러 순간들을 천천히 되짚어볼 수 있었고, 지난 시간을 정리하며 다시 기억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우들이 쓴 글을 보며 그때의 분위기와 감정이 떠오르기도 했고, 다양한 경험들에 신기해하기도 했습니다. 지나가며 잘 몰랐던 순간들이 이제는 추억으로 다가왔고, 함께했던 시간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올해도 작년에 이어 국어교육과 인스타그램 계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우들에게 국어교육과 행사를 알리고, 우리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를 홍보하고자 촬영부터 편집, 업로드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바쁜 일상에도 촬영에 응해주신 학우들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어교육과 행사 때면 저희는 한 발짝 떨어져 행사에 참여하는 학우들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여러분은 웃음이 가득할 때도, 다가올 행사에 기대하기도,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학우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2025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학과의 모든 구성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책장에 고스란히 꽂아둘 「참길」 14호가 여러분께 지난 날의 따스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계명대학교 국어교육과 해적이 (2012~26)

- 2011.10.14. 교육과학기술부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신설 승인
(입학정원 20명)
- 2011.10.17. 김지은 교수 국어교육과 개설준비 책임교수 임명
- 2012.2.29. 1기 18명 입학
- 2012.3.1. 김지은 교수 초대 학과장 임명
- 2012.3.7. 1대 학생회장 이신우('12)
- 2012.9.1. 이영호 교수 부임
- 2012.11.2-3. 추계 학술기행 (경상북도 경주)
- 2013.2.1. 2대 학생회장 강미경('12)
- 2013.2.28. 2기 23명 입학
- 2013.3.1. 손예희 교수 부임
- 2013.9.1. 박선우 교수 부임
- 2013.10.2-3. 추계 학술기행 (경상북도 안동)
- 2013.11.13-15. 제1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4.2.1. 이영호 교수 학과장 임명
3대 학생회장 김유진('12)
- 2014.2.28. 3기 23명 입학
- 2014.9.1. Uliana Kobyakova 교수 부임
- 2014.9.19-20. 추계 학술기행 (전라북도 남원)
- 2014.11.10-11. 제2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5.2.1. 4대 학생회장 최지혜('13)
- 2015.2.27. 4기 22명 입학, 3학년 3명 편입
- 2015.9.18-19. 추계 학술기행 (경상남도 통영)
- 2015.11.11.-12. 제3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6.2.1. 손예희 교수 학과장 임명
5대 학생회장 구윤모('12)

- 2016.2.23. 1회 졸업생 (9명)
- 2016.2.29. 5기 22명 입학, 3학년 1명 편입
- 2016.9.23-24. 추계 학술기행 (충청북도 옥천)
- 2016.11.9-10. 제4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7.2.1. 6대 학생회장 윤신철('13)
- 2017.2.21. 2회 졸업생 (13명)
- 2017.2.28. 6기 22명 입학
- 2017.9.22-23. 추계 학술기행 (경상남도 남해)
- 2017.11.8-9. 제5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8.2.1. 박선우 교수 학과장 임명
7대 학생회장 양예원('16)
- 2018.2.20. 3회 졸업생 (14명)
- 2018.2.28. 7기 22명 입학
- 2018.9.28-29. 추계 학술기행 (경상남도 진주)
- 2018.10.31-11.1. 제6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19.2.1. 8대 학생회장 이기홍('14)
- 2019.2.19. 4회 졸업생 (22명)
- 2019.2.28. 8기 22명 입학
- 2019.9.27-28. 추계 학술기행 (전라남도 담양)
- 2019.10.30-31. 제7회 돈을별 국어교육과 학술제
- 2020.2.1. 김지은 교수 학과장 임명
9대 학생회장 최재혁('17)
- 2020.2.18. 5회 졸업생(19명)
- 2020.2.28. 9기 22명 입학, 3학년 1명 편입
- 2020.11.18-19. 제8회 돈을별 학술제
- 2021.2.1. 10대 학생회장 배은수('17)
- 2021.2.18. 6회 졸업생(29명)
- 2021.2.24. 10기 22명 입학, 3학년 1명 편입
- 2021.11.17-18. 제9회 돈을별 학술제

- 2022.2.1. 손예희 교수 학과장 임명
11대 학생회장 이병진('18)
- 2022.2.17. 7회 졸업생(20명)
- 2022.2.23. 11기 21명 입학, 3학년 2명 편입
- 2022.11.4. 손예희 교수 사직
- 2022.11.7. 김지은 교수 학과장 임명
- 2022.11.9-10. 제10회 돈을별 학술제
- 2023.2.1. 박선우 교수 학과장 임명
12대 학생회장 이수진('21)
- 2023.2.21. 8회 졸업생(19명)
- 2023.2.23. 12기 22명 입학, 3학년 3명 편입
- 2023.6.8. 김지은 교수 정년퇴임
- 2023.9.22-23. 추계 학술기행 (경상북도 영천)
- 2023.11.1-2. 제11회 돈을별 학술제
- 2024.2.1. 13대 학생회장 김민준('22)
- 2024.2.20. 9회 졸업생(19명)
- 2024.2.22. 13기 20명 입학, 3학년 2명 편입
- 2024.9.20-21. 추계 학술기행 (대구광역시)
- 2024.11.6-7. 제12회 돈을별 학술제
- 2025.2.1. 14대 학생회장 김지원('21)
- 2025.2.19. 10회 졸업생(19명)
- 2025.2.22. 14기 20명 입학, 3학년 4명 편입
- 2025.3.28-29. 춘계 학술세미나 (경상북도 포항시)
- 2024.9.26-27. 추계 학술기행 (경상북도 영주시)
- 2025.11.5-6. 제13회 돈을별 학술제
- 2026.2.1. 윤호경 교수 학과장 임명
15대 학생회장 김희원('22)
- 2026.2.19. 11회 졸업생(14명)

2025학년도 제14기 편·입학생 명단

권희은, 김가은, 김성은, 김태훈, 도경환, 도원경, 박서연, 배서현, 안서린,
안세은, 안제이, 이원준, 이정연, 임기홍, 정다희, 정민지, 정성희, 정우진,
최동혁, 최소혜, 최지윤 (이상 총 21명)

2025학년도 제11회 졸업생 명단

(2015~2025학년도 졸업생: 총 198명)

김민서, 김민준, 김슬기, 김여진, 김은수, 양정인, 이민성, 이선우, 이수진,
이호연, 정다희, 조연수, 최명집, 최주희 (이상 총 14명)

『계명 참길』 제14호 편집위원

안재은('23), 김수민('24), 김태훈('25), 박서연('25), 최지윤('25)